레오 14세 교황

우루과이·아르헨티나·페루 사도 순방

연설·강론·기도·인사말

2026년 11월 6~16일



책 소개

이 책에는 레오 14세 교황께서 우루과이·아르헨티나·페루를 사도 순방하시며 2026년 11월 6일부터 16일까지 전하신 연설과 강론, 기도와 인사말이 실려 있습니다.

본문은 순방 순서에 따라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파이산두·플로리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코르도바·루한, 페루의 리마·치클라요·쿠스코·푸칼파·카야오로 이어집니다. 교황께서는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시고 치클라요 교구장을 지내셨습니다. 몬테비데오행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전하신 말씀, 정부 당국자와 주교, 청년, 노동계 및 대학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하신 말씀, 각 방문지에서 봉헌하신 미사의 강론을 수록했습니다.

스페인어판은 교황청이 공개한 공식 본문에 따라 편집했으며, 일부 행사에서 교황께서 즉석에서 전하신 말씀도 함께 실었습니다.

한국어판

© 교황청 홍보부 · 바티칸 출판사

표지 사진 아헨시아 안디나(Agencia Andina)

스페인어 전자책 편집 오푸스데이 홍보실, 2026년 11월 16일

스페인어 원문 PDF · 오푸스데이 원문 기사 · 교황청 순방 자료

목차

우루과이 11월 6~8일

몬테비데오

몬테비데오행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전한 말씀 ····· 5
정부 당국자·시민사회·외교단과의 만남 ····· 6
주교·사제·부제·수도자·신학생과 함께한 저녁기도 ····· 11

파이산두

파리 론드레스 공원 미사 ····· 15

몬테비데오

카사바예 지역 공동체와의 만남 ····· 18
교육계 인사들과의 만남 ····· 21
센테나리오 경기장 밤샘 기도 ····· 24

플로리다

플로리다 '33인의 성모' 국립 성지 미사 ····· 28

아르헨티나 11월 8~11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부 당국자·시민사회·외교단을 향한 연설 ····· 33
클레이폴의 오리오네 신부 요양원 방문 ····· 38
부에노스아이레스 미사 강론 ····· 41
노동계 관계자들과의 만남 ····· 44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 ····· 49
아르헨티나 주교단 및 시노드 팀과 함께한 저녁기도 ····· 52
청년들과 함께한 밤샘 기도 ····· 56
부에노스아이레스 연방 교도소 방문 ····· 61

코르도바

코르도바 미사 강론 ····· 63
성직자·수도자·신학생·사목 봉사자들과의 만남 ····· 66

루한

루한 미사 강론 ····· 70

페루 11월 11~16일

리마

정부 당국자·시민사회·외교단과의 만남 ····· 73
페루 주교단과의 만남 ····· 79
주교·사제·수도자 등과 함께 바친 낮기도 ····· 83
페루 국민의 미래를 위한 도전과 희망 ····· 86
청년 및 대학생들과 함께한 밤샘 기도 ····· 90
교황대사관 발코니에서 전한 인사 ····· 94

치클라요

팜파스 데 피멘텔 미사 ····· 95
성 오스카르 아르눌포 로메로 경당 방문 ····· 98
주교·사제·수도자·시노드 팀 등과의 만남 ····· 99
대학 관계자들과의 만남 ····· 101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대관 예식 ····· 105
산타 크루스 데 수차밤바 미사 ····· 107
성 토리비오 데 모그로베호 희년 폐막 ····· 110

쿠스코

신자들과 대중 신심 단체 대표들과의 만남 ····· 112
삼종기도 ····· 115

푸칼파

선교사와 아마존 원주민 대표들과의 만남 ····· 117
푸칼파 미사 ····· 119

리마와 카야오

카야오 노인 환대의 집 방문 ····· 122
라스팔마스 공군 기지 미사 ····· 125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 11월 6일

몬테비데오행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전한 말씀

마테오 브루니

교황 성하, 좋은 아침입니다! 탑승을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온 이번 순방에 기자 80여 명이 성하와 함께합니다. 그 가운데 10명은 저희가 방문할 나라에서 왔습니다. 동행하는 기자들도 무척 들떠 있습니다. 일정이 빡빡해 조금 걱정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성하를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레오 14세 교황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영어로 인사)

먼저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여러분의 봉사와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은 우리가 소식을 널리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모든 이에게 평화와 선의를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알리는 데 여러분이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이번 순방이 이루어질지 의구심을 품은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첫날부터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정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주님을 찬미하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훌륭한 의료진에게 감사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제 건강은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 가운데 이미 아는 분이 많으실 몬세라트 알바라도 박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알바라도 박사는 바티칸의 교황청 홍보부 신임 장관으로서, 임기를 마친 파올로 루피니 박사의 뒤를 이어 이 쉽지 않은 직무를 맡았습니다. 몬세는 풍부한 경험과 창의력, 생기와 활력을 지닌 분입니다. 이번 여정에 동행하면서 소통이라는 매우 중요한 분야에서 바티칸과 저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몬세,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의 세 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특별한 역사를 지닌 나라들입니다.

공통점도 많고 차이점도 많습니다. 물론 이번 여정에서 가장 오래 머물 곳은 페루입니다. 저에게 페루는 여러 고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이번 여정의 가장 큰 목적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의 주교이며 교황으로서 사명을 이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사람들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늘의 세상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간절히 찾는 이들에게는 곁에 함께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번 여정이 그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방문하는 나라와 장소마다 그곳 사람들과 문화의 고유한 빛깔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이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몬테비데오 · 11월 6일

정부 당국자·시민사회·외교단과의 만남

대통령님, 존경하는 정부 당국자와 외교단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루과이 땅을 방문해 달라는 정중한 초대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님, 방금 해 주신 말씀과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우루과이의 여러 기관과 이 나라에 외교 사절을 파견한 각국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도 인사드립니다.

이 첫 만남을 통해, 어디에 계시든 모든 우루과이 국민에게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이 땅 곳곳을 찾아가 그 역사에 가까이 다가가고, 저마다 다른 삶의 자리에서 이 나라의 오늘을 이루고 있는 이들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곳인 플로리다에서는 우루과이의 수호자이신 '33인의 성모'를 공경합니다. 방문을 시작하며 길에서 만날 모든 이를 성모님의 보호에 맡겨 드리고자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나라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하시고, 오늘날에도 서로 다른 세대의 우루과이 국민을 한자리에 모으십니다.

같은 역사에서 또 하나 기억하고 싶은 사건이 있습니다. '레도타'라고도 불리는 1811년 우루과이 민중의 대이동입니다. 이를 떠올리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광장 한가운데 있는 아르티가스 기념비의 받침대에 안젤로 자넬리가 당시 행렬의 모습을 청동 부조로 새겨 놓았습니다. 그 인물들의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우루과이를 바라보는 데에도 좋은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념비 꼭대기에서 아르티가스는 홀로 말을 타고 있습니다. 아래쪽 정면 부조에서는 부하들과 함께 그 무리 속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 뒤인 1813년 4월, 의회에 모인 우루과이 대표들에게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나의 권한은 여러분에게서 나옵니다. 주권자인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니 그 권한은 이제 끝납니다."(개회 연설, 『아르티가스 문서집』 제11권, 문서 82). 권한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권한을 행사하는 이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한 문장에 담았습니다. 권한은 구체적인 공동체에서 받으며 그 공동체 앞에서 책임을 집니다.

2025년은 우루과이에서 민주주의가 중단 없이 이어진 지 4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선택에 따라 여러 정부가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공적 권위는 공동선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시민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며 법질서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74항 참조). 시민이 공적 생활에 참여하고, 각 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정하며, 통치의 책임을 맡을 사람을 선출할 수 있는 제도가 소중한 이유입니다(같은 문헌, 75항 참조).

공동선에는 오늘 우리가 받은 자원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책임도 포함됩니다. 제 전임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공동선의 개념에는 미래 세대도 포함됩니다."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회칙 「찬미받으소서」 159항). 이 책임은 천연자원과 에너지원을 어떻게 이용할지 결정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루과이는 발전원 구성을 크게 바꾸어, 오늘날 거의 모든 전기를 재생 에너

지원에서 얻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정책을 꾸준히 이어 가고 사회 각 부문이 함께 참여해 이룬 성과입니다. 이제 교통과 생산, 토지와 물과 에너지의 책임 있는 이용에서 새로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오늘의 자원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시선은 이 땅에 살아갈 이들에게도 닿습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며 어떤 기회를 만나게 될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루과이의 인구 변화는 이러한 관심을 더욱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합니다. 기념비의 어느 부조에는 아기를 품에 안은 여인이 보입니다. 행렬이 그 곁을 지나가는 동안 여인은 아기를 꼭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 보호의 몸짓은 이제 막 시작된 생명과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도 이미 인류 가족의 일원이며 그 민족의 미래에 속합니다. 어머니에게 온전히 의지한다고 해서 그 아기의 존엄이나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강생하시면서 몸소 이 처지에 놓이기를 바라셨습니다. 새 생명을 맞이하려면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책임을 지고, 가족이 힘을 보태며, 두 사람이 자녀를 기르고 돌볼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태어날 생명을 보호하는 일과 그 생명을 맞이하는 이들을 돕는 일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처음으로 환대받고 다른 이들과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는 자리는 가정입니다. 이 땅을 방문하신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오늘도 힘을 잃지 않은 한마디로 이를 표현하셨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가정을 통하여 온다.”(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 86항)

부조의 다른 곳에는 어른 곁에서 걷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아이들은 공동체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동으로 이바지하기에 앞서 이미 그 민족의 일원입니다. 그때 어른들과 함께 걷던 아이들은 자라서 공동체의 삶을 이어 갈 책임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돌보는 일에는 합당한 교육을 보장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자라나는 아이의 첫 시절을 떠받치는 것은 가정과 음식, 곁에서 함께하는 어른입니다. 교육은 그 돌봄을 이어 받아 아이의 능력을 키우고 판단력을 길러 주며, 사회생활에 자유롭고 책임 있게 참여하도록 준비시킵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교육의 중대성」 1항 참조).

교육은 노동의 세계에 들어가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립할 구체적인 기회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노동은 각자가 능력을 키우고 다른 이들의 선익에 이바지하는 길입니다. “노동은 인간을 위한 것이며 인간이 노동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노동하는 인간」 6항). 기술과 인공지능이 급속히 변하는 오늘날에도 이 기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술 발전은 인간의 능력을 넓히고 일을 수월하게 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생산 과정에서 언제든 빼 버릴 수 있는 부품처럼 취급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기념비에는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분이 지팡이에 몸을 기대며 힘겹게 걷는 모습도 있습니다. 수레 하나를 둘러싸고 여러 사람이 서로 다가가 팔을 뻗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기보다 서로 돕는 데 더

마음을 쓰는 사람도 보입니다. 나아가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이들 역시 그 민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힘이 있는지, 혼자 살아갈 수 있는지,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지로 그 사람의 가치를 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근본 존엄은 얻거나 공로로 획득하거나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회칙 「고귀한 인류」 53항)

청동은 사람들의 얼굴과 몸짓을 간직하고 있으나, 함께 걸으면서 저마다 마음속에 무엇을 품었는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일터나 거리에서, 심지어 같은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도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을 모를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 희망의 상실이 너무 깊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아픈 현실 앞에서 의료적 돌봄과 가족의 유대, 공동체가 곁에 있어 주는 일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낯선 이처럼 느끼거나, 자신이 사라져도 함께 있을 때만큼 마음을 써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몸이나 생활 여건에도 여러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질병, 장애, 육체의 통증, 자립 능력의 상실, 가난과 실업, 배제로 다른 이들의 도움이 더욱 절실한 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 병이 가져오는 한계를 직접 겪었고, 받은 돌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때 진단을 받거나 필요한 치료를 받을 여건이 없는 수많은 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모든 사회가 응답해야 할 책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는 이들도 온전한 사회의 일원이며 그 생명의 가치는 조금도 줄지 않습니다. 취약한 처지에 놓였기에 필요한 도움과 자원, 곁에서 동행하는 손길은 더욱 절실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마땅히 돌보는 일에는 인류 가족 전체가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가장 어려운 이들 안에서 당신을 알아보고 섬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이 의무의 이유를 찾습니다(마태 25,40 참조). 베네딕토 16세께서 일깨우셨듯이 “인간의 위대함은 본질적으로 고통과 고통받는 이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회칙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38항). 따라서 모든 이가 존엄하게 살고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자연스러운 생의 마지막까지 동행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교회는 교구와 공동체, 이웃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덜어 줄 수 있는 고통을 덜고, 고통을 없앨 수 없을 때에도 그 사람을 지탱해 주려 애쓰는 이들과 협력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이 공동의 과제에 자신이 줄 수 있는 희망을 보탭니다. 인간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혀도 그 희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희망은 시련을 겪는 이에게 그의 삶이 언제나 의미와 가치를 지니며, 그가 홀로 있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아르티가스와 함께 걸어가던 무리에는 처지가 매우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있었습니다. 부조를 보면 우아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수레 뒤를 걸어가고, 다른 이들은 가축을 몰거나 살림살이를 나릅니

다. 이런 다양성은 우루과이 역사의 일부입니다. 출신과 사회적 처지가 서로 달랐던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이 땅을 공동의 조국으로 일구어 왔습니다.

같은 민족에 속하더라도 저마다 출발점이 다르고 가진 자원이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디로 이끄느냐는 사람들의 생활 여건과 자신들의 미래를 일구어 갈 기회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부의 창출과 투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은 나라의 발전에 필요합니다. 그 열매가 모든 이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재화와 기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이기” 때문입니다(회칙 「고귀한 인류」 58항).

서로 다른 출신과 전통을 지닌 이들이 함께 사는 일 또한 우루과이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 다양성은 오늘 시민들의 신앙과 신념에 드러납니다. 모든 이가 함께 지킬 보편적 가치가 있기에, 국가는 종교적 중립을 지키면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자유와 존중 속에 어울려 살아갈 공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립이 종교를 사적인 영역에만 가두어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치듯이, 정당한 한계 안에서 그 누구도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받거나,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개인으로든 다른 이들과 함께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종교 자유 선언 「인간 존엄성」 2~3항 참조). 이러한 자유를 바탕으로 개인과 종교 공동체는 시민 제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공동선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추구하는 존중과 공존은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도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루과이 헌법은 국제 조약에서 분쟁이 중재나 그 밖의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촉진하도록 규정합니다(헌법 제6조 참조). 더구나 몬테비데오에 메르코수르 사무국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역내의 이해와 협력을 넓혀 가려는 이러한 소명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견해 차이가 쉽게 대립으로 번지는 시대에, 법을 존중하고 협상에 힘쓰며 끈기 있게 합의를 찾아가는 일은 우루과이가 이웃 나라들을 위해 계속할 수 있는 봉사입니다.

마치기 전에 이 광장 한가운데에 새겨진 행렬을 다시 떠올리고 싶습니다. 레도타는 우루과이의 기억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가진 것의 많은 부분을 뒤에 남겨 두어야 했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로 남으려 애썼던 시련 속의 민족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기념비의 청동 부조는 받침대의 네 면을 두르고 있습니다. 한곳에 서서는 그 무리의 일부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만나려면 가까이 다가가 둘레를 걸으며 인물 하나하나에 시선을 머물러야 합니다. 그 모두를 함께 볼 때 비로소 한 민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무리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우루과이에도 살아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대와 처지가 다른 이들이 함께 역사를 일구어 갈 수 있게 하는, 서로에 대한 책임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후계자이자 목자로서 바로 이 우루과이에 왔습니다. 이 땅에서 순례하는 교회를 만나고, 우루과이 국민 모두에게 애정을 지니고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교황청과 우루과이의 유대는 이 나라가 독립한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무렵 제 전임자 그레고리오 16세 교황께서는 1832년 8월 14일 자 교황 소칙서로 다마소 안토니오 라라냐가 신부의 권한을 확인하시고 그를 우

루과이 공화국의 대목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그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자리를 굳히려 애쓰던 새로운 우루과이 국가의 독립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일로도 해석되어 왔습니다.

수 세기에 걸친 신앙과 봉사의 역사를 지닌 교회는 자신이 거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희망을 우루과이 국민에게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고유한 사명에 따라 공동선과 모든 사람의 존엄을 위해 일하는 이들과 협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만남의 날들이 우리를 하나로 잇는 것을 굳건히 하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다가올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뢰를 새롭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우루과이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가 태동하던 때에 자신을 맡겨 드린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께서 앞으로도 그 역사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몬테비데오 · 11월 6일

주교·사제·부제·남녀 수도자·신학생과 함께 바친 저녁기도

교황 성하의 강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국민의 삶에 관한 수많은 기억을 간직한 이 주교좌성당에서 함께 저녁기도를 바치게 되어 기쁩니다. 그 기억 가운데에는 호세 헤르바시오 아르티가스가 세례를 받은 세례대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나라의 선익에 보탬이 되어 맺은 열매를 보여 주는 표징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사는 그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역사도 같은 은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로 우리를 당신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분처럼 바라보고 듣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까지 그분을 닮아 자라도록 초대하십니다.

방금 부른 시편에는 놀라운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과 은의 우상을 묘사한 뒤, “그것을 만드는 자들도, 그것을 믿는 자들도, 모두 그것들과 같아지리라.”라고 말합니다(시편 135(134),18). 사람들은 그런 형상을 만들어 내고 결국 자신이 그것과 닮아 갔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조금씩 닮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마태 6,21).

주님께 삶을 바친 우리도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것이라 여기는 일에 마음이 매이거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데에, 또는 모든 일을 내 뜻대로 관리한다는 안도감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염려를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성소에 충실하려면 거듭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보물, 우리가 닮고 싶은 분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시편은 우상들을 두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시편 135(134),16-17).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다르십니까!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타오르는 떨기나무 곁에서 모세에게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탈출 3,7).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그 하느님의 연민은 우리와 같은 얼굴과 눈과 귀와 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뭇가지 사이에 숨어 있던 자캐오를 올려다보셨습니다(루카 19,5 참조). 많은 이가 조용히 하라고 야단치던 바르티매오의 말을 들어 주셨습니다(마르 10,48-49 참조).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셨고(마르 1,41 참조), 다가오는 어린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마르 10,16 참조). 그분의 입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르 1,25-26 참조). 십자가에서는 당신을 처형하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루카 23,34 참조). 하

느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요한 14,9 참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사랑이 많은 이에게 가닿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여러 세대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한 눈물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귀는 차마 꺼내기 어려운 속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가 두려운 마음으로 고해소에 들어갔다가 용서받은 기쁨을 안고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손도 그러합니다. 그 손은 수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들어 올렸고, 아픈 이를 돌보았으며, 따뜻한 한 끼를 마련하고, 더는 걸을 수 없는 이들을 부축했습니다. 여러분 수도회의 은사를 통해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이에게 하느님의 자애를 전했는지요. 어떤 손에는 세월과 노동의 흔적이 배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며 나이 든 손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 가까이에 머무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방금 들은 짧은 독서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야고 1,3 참조). 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듯할 때, 힘이 약해질 때, 다시 시작해야 할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 갑니다. 인내는 우리 안에 흔적을 남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눈길은 더 자비로워지고, 손은 더 기꺼이 봉사하며, 말은 더 깊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분 사랑 안에서 더욱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 주교좌성당 천장 아래에 하신토 베라(Jacinto Vera) 복자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무덤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것은 우루과이 곳곳을 걸으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한 발, 사람들을 축복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성사를 거행한 손, 수많은 속이야기를 들은 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눈길을 주던 눈입니다. 여러 해 동안 복자를 가까이서 뵌 한 수녀는 소박한 말투와 걸음걸이까지 떠올리며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늘 기도하고 계시는 듯했습니다”(『시복 심사 자료집』 제1권, 154쪽). 하느님과의 친교는 복자의 얼굴과 몸짓, 사람들 곁에 머무는 모습까지 빚어 놓았습니다. 복자에게 가까이 간 이들은 설교를 한마디 듣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 복음화의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분을 닮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알지 못하고 수많은 젊은이가 교회 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자라난 이 땅에서, 그런 증언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눈길, 귀 기울이는 모습, 고통받는 이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저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고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할 때,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그들이 이미 맛보기 시작한 선하심의 주인공이 바로 그 주님이심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도 예수님을 알고 따르기를 바라는 그 열망은 성소를 위한 기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2024년 여러 교구가 함께 운영하는 신학교에 새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을 때, 많은 신자가 기도와 단식의 날에 함께하며 수확할 밭에 일꾼을 보내 주시기를 주인께 청하기 시작했습니다(마태 9,38

참조). 그때부터 그들은 다른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도록 꾸준히 간청해 왔습니다. 오늘 신학교와 봉헌 생활에서 첫걸음을 내디딘 젊은이들이 우리 가운데 앉아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그럽게 응답하는 이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을 보니 참으로 기쁩니다. 이 기도를 이어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열매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우루과이의 이 체험이 온 교회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이 몬테비데오 주교좌성당에서 전 세계의 형제 주교들에게 권고합니다. 각 교구에서 사제 성소와 봉헌 생활 성소가 늘어나기를 청하는 기도와 단식의 날을 마련해 주십시오. 본당과 가정과 수도 공동체들이 이 간청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범에 힘입어 수많은 이가 같은 신뢰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학생들과 남녀 수련자 여러분, 여러분보다 먼저 헌신의 길을 걸어온 이들을 바라보십시오. 다 닳도록 일한 그들의 손과 한결같은 사랑, 예수님과 친밀히 지내는 모습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분들에게서 주님과 친밀히 지내는 법을 배우십시오. 오랫동안 직무를 수행하거나 봉헌 생활을 해 오신 여러분께는 언제나 본질로 돌아가라고 당부합니다. 기도의 침묵과 말씀을 듣는 시간,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시간을 지키십시오. 그 친밀함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생애를 바치게 한 사랑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그분의 마음을 닮아 갑니다.

시편에서 한 가지 모습을 더 떠올리고 싶습니다. 시편은 우상들에 관해 “그 입에는 숨조차 없구나.”라고 말합니다(시편 135(134),17).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셨습니다(요한 20,22). 바로 그 성령께서 흙으로 빚어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창세 2,7 참조) 우리를 한 몸으로 모아 주십니다. 특별히 갖가지 시련을 겪을 때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맡기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모든 일을 하십시오(야고 1,2 참조). 때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힘을 보태고 언제나 베드로의 후계자와 친교를 이루십시오. 베드로의 후계자에게도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됩니다.

잠시 뒤 우리는 성모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태중에서 자비롭게 바라보실 그 눈과 우리의 간청을 들으실 그 귀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미실 그 손이 자라났습니다. ‘33인의 성모’께서 우리 마음이 언제나 아드님 곁에 머물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눈을 감을 시간이 오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 손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몬테비데오 교황대사관 앞에 모인 청년들에게 전한 즉석 인사

청년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교황과 함께하는 청년들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소리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루과이는 믿음 깊은 젊은이들의 나라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인사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방문 동안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교황대사님은 주무시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노래는 부르고 싶을 때까지 부르세요! 아, 너무 늦게까지는 말고요. 이웃들도 자고 싶을 테니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열정에도, 이 자리에 와 주신 데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강복이 언제나 여러분 위에 내리기를 빕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목차로 돌아가기

파이산두 · 11월 7일

파리 론드레스 공원 미사

교황 성하의 강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루과이 땅에서 이번 방문 중 처음 봉헌하는 미사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독서는 주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도우시고 굳세게 하시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계속 수행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바오로 성인은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선교 사명을 도와준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처지에 있는 그에게 하느님께서 모든 재산이시며, 그가 파견된 형제자매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섭리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는 하느님을 섬기고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시며, 크든 작든 맡겨진 일에 모두 성실합니다.

오늘 파이산두에서 성찬례를 거행하며 우루과이 교회의 많은 신자와 형제 나라에서 온 순례자가 같은 식탁 둘레에 모여 기쁩니다. 말씀 전례는 이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 라플라타강 유역의 이 땅에 찾아온 수많은 신앙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들이 경험한 큰 기쁨을 전하려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랬듯이(루카 2,10 참조), 그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여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 미사에서 이 땅의 아들인 몬테비데오의 하신토 베라 복자 주교의 생애와 직무를 기억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이 선포하는 신앙을 삶으로 증언하고 너그럽게 사랑을 베풀며 사도직에 자신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사목의 열정을 펼쳤습니다. 먼 거리와 험한 길과 궂은 날씨에도 말을 타고 가서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가우초 주교’로 불린 그는 우루과이 전역을 세 차례 돌며 주민들에게 신앙과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1864년 파이산두 방어전 당시 베라 주교는 포위된 도시 맞은편 카리다드섬에 머물며 피란민과 양쪽의 부상병을 돌보았습니다. 도시가 함락될 때까지 백성 곁에 남아, 서로 적이 된 군인들이 형제처럼 끌어안도록 하느님의 이름으로 간청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린 이들이 남긴 유산을 이어 갈 책임은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기에,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롭고 정직하고 충실하게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소식은 주님께 받은 보물이며, 우리는 그 보물을 질그릇에 담아 지니고 있습니다(2코린 4,7 참조).

이 지역을 보여 주는 세 가지 표징을 통해 우리가 받은 신앙의 보물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리, 둘째는 야자나무 숲, 셋째는 마테차입니다.

이곳 파이산두에는 우루과이강을 건너 이웃한 두 나라를 잇는 아르티가스 장군 국제교가 있습니다. 다리가 가져다주는 개방과 소통과 교류는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리를 놓고 유대를 돈독히 하며 사람들을 하나로 잇고 서로 소통하고 신앙의 기쁨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신토 복자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2티모 4,2) 그렇게 했습니다.

다리는 거센 물살에 쓸려 가지 않도록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야 합니다. 바위 위에 지은 집이 폭풍 속에서도 굳건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위험이 있듯이(마태 7,24-27 참조), 다리도 바람과 물살을 견디려면 제대로 된 받침이 필요합니다. 강가에 나가 다리를 바라볼 때마다 그 표징이 우리 자신을 가리키며 튼튼한 그리스도교 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에게 신앙의 이유를 묻는 이에게 답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1베드 3,15 참조). "온갖 이상한 가르침에" 휩쓸리지 맙시다(히브 13,9). 그래야 일치의 도구와 사랑의 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습을 이루고 아름답게 하는 또 다른 표징은 야자나무 숲입니다. 시편은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돋아난다."(시편 92,13)고 말합니다. 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 거센 바람을 견디고, 빛을 찾아 하늘로 곧게 뻗어 야타이의 달콤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부름받는지를 보여 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신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리고 그분과 하나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요한 15,5 참조).

이 지역의 야자나무는 한 그루씩 외따로 자라지 않고 여러 그루가 어우러져 숲을 이룹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와 기도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하나의 샘에 뿌리를 내리고 그 물을 마시는 형제자매의 공동체입니다. 신자들은 함께 눈을 들어 높은 곳에서 떠오르시는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그 빛은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인류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루카 1,78-79 참조).

끝으로 이 나라의 모든 가정과 학교와 일터, 벗들의 모임에 빠지지 않는 것을 떠올려 봅시다. 남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음료인 마테차입니다. 그 깊은 뜻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설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에 오시는 길에 마테차를 가져오셨을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길에도 함께하겠지요. 마테차가 로마까지 왔습니다!

마테차는 친밀함과 우정과 만남의 표징입니다. 나누며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우리를 하나로 잇고 형제자매가 되게 하는 유대를 돈독히 해 줍니다. 이는 환대와 화합, 함께 소중히 여기는 가치의 표징입니다. 마테차를 마시는 일은 말없이 대화를 나누며,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고유한 뜻이 담긴 관습입니다. 홀로 마테차를 마시며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때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홀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걱정과 필요, 가장 깊은 소망과 갈망을 얼마나 자주 하느님께 맡겨 드렸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간직하는 이 표징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표징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려 주고, 우리 뿌리를 일깨우며, 우리를 미래로 이끕니다. 신앙 또한 우루과이 국민이 처음부터 간직해 온 삶의 일부입니다. 용기와 창의력을 발휘해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받은 은사에 충실해야 함을 일깨우십니다.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다.”(루카 16,10) 하신토 베라 주교처럼, 받은 성소에 충실하고 우루과이 국민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많은 남녀가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그 씨앗은 공동체 안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 온전히 열매를 맺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년이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돕고, 가정과 동행하고, 어르신을 보살피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열정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어 가십시오. 많은 이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서로 모여 삶과 계획, 꿈과 희망을 나누고 특히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들과 이를 나누는 형제자매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벗이 벗에게 이야기하듯” 주님과 대화를 이어 가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십시오(요한 15,15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33인의 성모’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켜 주시고 언제나 아드님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파이산두의 묵주 기도의 성모 대성당 앞 광장에서 전한 즉석 인사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나와 맞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사 강론에서 들으셨겠지만, 저는 우리 삶의 한 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드러내는 세 가지 상징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있듯이, 우리는 모든 민족을 잇는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우리를 이어 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고,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으며, 그 평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야자나무 숲은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는 뜻을 보여 줍니다.

또 마테차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화에서 참으로 소중한 풍습입니다. 친구끼리, 가족끼리 마주 앉아 마테차를 나눕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대화가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삶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모입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이 상징들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느님을 찾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선포할 힘과 용기를 주님께 얻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작은 표징으로 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소서. 아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모두 기뻐하십시오!

목차로 돌아가기

몬테비데오 · 11월 7일

카사바예 지역 공동체와의 만남

카사바예에 사는 가정들에게 전한 교황 성하의 즉석 인사

하느님의 강복은 여러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가정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과 이 지역에 사는 모든 가정에 강복을 청하고 싶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모여 일하는 법을 배우고, 같은 일에 힘을 모으고, 생명이 소중하며 신앙이 우리를 지탱한다고 말할 때 큰 축복이 찾아옵니다.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께 충실하고 싶다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교황 성하의 연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오후입니다!

이 본당과 이 동네를 찾아와 거리를 걸으며 그토록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 낸 일들을 보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여러분을 뵈니 선교사로서 여러 공동체를 찾아갔던 때가 떠올라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맞아 주신 몬테비데오 대주교 다니엘 스투를라 추기경님, 본당 주임 파블로 코임브라 신부님, 카르멘 알바나 산스 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와 주시고 열정으로 이 만남을 준비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마음을 열어 생명과 신앙과 희망이 이겨 낸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앙헬리카, 알란, 캐서린, 감사합니다.

이 본당은 선임 교황님들께서 ‘라틴아메리카의 수호자’이자 ‘아메리카 대륙의 여제’로 선포하신 과달루페의 성모님께 봉헌된 곳입니다. 이 대륙에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하늘 어머니께서 우리를 둘러싼 현실과 국경 너머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영원한 것을 향해 마음을 열도록 초대하십니다. 마리아께서는 아드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요한 2,5 참조). 이것이 바로 본당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리는 등대가 되어 모두에게 하느님 말씀의 빛과 성사의 도움, 기도의 지지와 형제적 사랑의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이 본당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여러 채의 집을 짓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교황 재단 후원자들의 너그러운 도움으로 이 아름다운 일에 보탬이 되어 기쁩니다. 후원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집들이 비를 피하는 지붕을 넘어, 가족들이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사랑하심을 느끼며 존엄과 평화와 희망 안에서 자라는 참된 보금자리가 되기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루카 10,29-37 참조). 한 사람이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가 가진 것을 빼앗고 때린 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30절 참조). 몹시

안타깝고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이 끔찍한 폭행을 당한 데 더하여, 도움이 필요한 모습을 보고도 지나친 이들의 무관심 때문에 또 한 번 고통을 겪었습니다(31-32절 참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희망의 빛이 켜집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다가갔습니다. 상처를 싸매고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았으며, 계속 보살피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33-35절 참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이 이야기와 닮은 일을 많이 봅니다. 안타깝게도 치안 불안과 폭력은 우리 동네의 평화를,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사회가 그런 일에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때도 많습니다. 다른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 기관과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평화를 북돋우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제로 손을 내밉니다. 앙헬리카가 증언에서 들려주었듯이,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벽을 허물어 만남을 이루신 카초 신부님의 헌신적인 삶이 빛나는 모범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으로 곁에 다가가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는 다른 이의 불행을 보고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형제의 생명을 책임졌습니다. 우루과이에서 무사히 돌아오지 못할까 두려워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지나쳐 갈 수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먹일 것이 없는 어머니를 보고 양심의 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서 홀로 취약한 처지에 놓여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캐서린의 감동적인 말을 통해 이를 직접 들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이 나라의 아이가 끼니를 거른 채 잠들거나, 거리의 치안 불안 때문에 마땅히 누릴 교육과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폭력 끝에 생명까지 잃는 일은 더욱 없어야 합니다.

교회와 시민사회와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안일함에서 깨어 공동선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알란이 그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저 받았던 것을 오늘 거저 베풀고 있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새로운 도시를 함께 세울지, 편한 대로 각자 자신의 일에만 몰두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받아들이느냐 배제하느냐에 모든 경제적·정치적·사회적·종교적 사업의 성격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지,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행인이 될지 선택합니다.”(회칙 「모든 형제들」 69항)

교회의 활동은 복음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 사랑은 “인류의 상처가 가장 깊이 드러날 때 교회가 다가가도록 이끕니다. 교회는 착한 사마리아인을 본받아 신중하고 세심하게 돕되, 눈앞의 필요에 응답하는 일이 규범이 되거나 시민사회 제도가 맡은 책임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압니다.”(회칙 「고귀한 인류」 21항) 그러므로 힘을 모아 서로를 형제자매로 대하는 조국을 함께 세우라는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합시다.

사랑하는 벗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 하고 보내시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날마다 울려야 할 명령입니

다(교황 권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107항 참조).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사랑과 평화가 다스리는 새로운 도시를 함께 세우도록 이끌게 합시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주교로 서품된 날은 과달루페의 성모 축일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애정과 공경을 드리는 우리 어머니께서 하늘의 망토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몬테비데오 · 11월 7일

교육계 인사들과의 만남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인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이신 스승 예수님을 본받아 교육에 평생을 바치는 여러분을 만나 무척 기쁩니다. 이 가톨릭 대학교의 총장 직무를 감독하시는 살레시오회의 다니엘 스투를라 추기경님께 인사드립니다. 주교님들과 대학 총장이신 예수회의 훌리오 페르난데스 테체라 신부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여러 교육 기관에서 오신 교사와 학생 여러분께 특별히 인사드립니다.

38년 남짓 전에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첫걸음을 내딛던 이 대학을 방문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인간의 존엄을 드높이고자 여러 교육 단계와 다양한 배움의 자리에서 교사와 양성 공동체로서 교육에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한결같은 헌신은 우루과이의 가톨릭 교육이 “복음이 교육의 몸짓과 관계와 문화가 되는 구체적인 길”이 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그 헌신은 또한 이런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복음은 늙지 않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묵시 21,5). 각 세대는 자신을 새롭게 하는 소식으로 복음을 듣고, 씨앗처럼 자라나 열매를 맺는 그 힘을 발견한다.”(교황 교서 「희망의 새로운 지도 그리기」, 서문 1.1 참조)

교육 분야의 사목이 지향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 교육 기관의 책임자가 기쁜 소식을 듣고 보고 맛보고 만지고 그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학 교정의 생생한 벽화처럼 기쁜 소식이 감각을 일깨워, 교육 공동체에 참여하는 이들이 성장하고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인간 존엄을 더 굳게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 밖의 비형식 교육과 교육 공동체, 사회 복귀와 치료를 돕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는 말보다 믿을 만하고 역량을 갖춘 어른들이 서로 협력하며 세심하게 곁을 지키고 삶으로 증언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현실에서 이 목표를 이루려면 “이원론적 시각을 극복해야 합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단일체’입니다. 몸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물건’으로 축소하는 것은 언제나 인격의 존엄을 부정하는 일입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14항과 2026년 9월 9일 일반 알현 참조)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다섯 가지 감각을 잠시 ‘거닐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되새겨 보며 복음의 아름다움과 인간 존재의 경이로움을 새롭게 발견합시다.

시편 한 구절에서 시작합시다. “당신의 하늘을 우러러봅니다.”(시편 8,4) 시편 저자는 우리 눈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일 가운데 하나인 관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관상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놀라움을 느낄 만큼 주의 깊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창조 세계를 관상하고 하느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계획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자리와 처음 주어진 조화를 지킬 개인적·공동체적 책임을 깨닫습니다. 이 지역의 환경과 조화를 이룬 교정의 열두 건물에서도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관상은 오늘날 갈수록 어려워지는 인식의 과정, 곧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자라면 어린이와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갈망하는 깊이에 이르고, 고요 속에서 식별할 여유를 얻으며, 자신의 양심과, 또 하느님과 대화하는 데 익숙해집니다(교황 교서 「희망의 새로운 지도 그리기」 10.3항 참조). 여러분의 교육 활동에서 관상에 특별한 자리를 내어 주십시오.

둘째로, 시편 저자는 "당신 손가락의 작품인 하늘"(시편 8,4)을 노래하며 묵상을 이어 갑니다. 하늘과 땅과 물 위를 움직이는 천체와 천사와 생명체를 창조 세계에 두시는 하느님의 손가락을 예술가의 손가락처럼 알아봅니다. 그 모든 존재 가운데 사람만이 손가락을 모아 땅을 일구고 열매를 거두며, 이웃과 인사하고 어루만지고 끌어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의 손가락이 가장 끔찍한 '인간의 작품'인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도 잊을 수 없습니다(2026년 9월 25일 유네스코 본부 연설 참조).

여러분이 일구어 가는 가톨릭 교육은 교육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손길과 손과 손가락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어릴 때 세례로 아버지께서 안아 주신 그 품을 느낀다면, 영광 속에서 기다리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또 다른 품도 그리워할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 두 포옹 사이에 있음을 느끼게 하는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힘겹지만 아름다운 과제입니다(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144항 참조).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고 느끼는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 이가 됩니다.

이 여정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맛의 감각으로 이끕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맛보았습니다."(1베드 2,3) 맛은 체험하고 곱씹고 음미하면서 얻는 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느님의 선하심에 우리를 가까이 데려가고, 우리를 형제자매로 만들며 거룩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맛본다는 것은 맛을 알아내고 음식을 분류하고 식단을 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보를 모으면서도 식별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으며 맥락을 모르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와 대학 교육이 '알고리즘보다 사람을 앞세우고 기술적·정서적·사회적·영적·생태적 지성을 조화시키면서 기술과 인공지능을 슬기롭게 사용'하도록 돕는 일이 시급합니다(교황 교서 「희망의 새로운 지도 그리기」 10.3항 참조). 우리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선하고 마음에 들며 완전한 것"(로마 12,2)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후각을 생각해 보려면 요한 복음사가가 전하는 베타니아의 도유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집 안은 향유 냄새로 가득 찼다'(요한 12,3).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좋은 평판은 좋은 향기이므로, 온 세상은 좋은 평판으로 가득 찼다'고 일깨워 주십니다(『요한 복음 주해』 제50강, 7항). 오늘날 사람의 존엄과 명예는 수없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내버리고 배척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데도 우리는 어느새 그 냄새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비인간화는 학교와 대학이 마주한 과제입니다. "역설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지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을 알아보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효율을 기준으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하고,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다고 여기면 그 사람을 거부하고 내버립니다."(2026년 9월 25일 유네스코 본부 연설)

메시아께서 풍기시는 향기에 힘입어, 우리도 사람이 지닌 좋은 향기를 지켜야 합니다. 인간 생명은 그 모든 단계와 처지에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다시 선포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듣는 감각을 살펴봅시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마태 13,9)라고 합니다. 이 대학에서 함께 성찰한 내용을 여기서 들으신 뒤, 각자의 교육 기관에서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마칩니다. 오늘날에는 귀를 기울여 듣는 힘을 가다듬는 일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고 있는지 식별할 줄 알면 달라집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경의 지혜를 그리스·로마 전통에 접목하며, 참된 스승이 진리를 향한 열망을 일깨우고, 표징을 읽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자유를 기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교황 교서 「희망의 새로운 지도 그리기」 2.2항)

가톨릭 교육은 닫힌 울타리 안에서 계획할 수 없습니다. 가정과 시민사회, 정치와 행정을 맡은 이들과 산업계 및 노동계 대표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오늘날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원봉사나 선교, 지역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때 ‘경청’합니다. 귀 기울이는 사람은 이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선을 알아봅니다. 성경에서 주님께 귀 기울이는 일은 지혜롭고 슬기롭고 의로운 행동입니다(잠언 1,2-5; 2,1-9 참조). 이 세 가지 덕은 우리의 교육 활동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전보다 세대가 훨씬 빠르게 바뀌는 오늘날, 건전한 전통을 간직하며 시대를 따라가는 일은 큰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육신과 영혼, 마음과 양심, 정신과 의지”를 지닌 온전한 인간을 바라보며 계속 걸어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3항).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 안에서 계속 걸어갑시다. 여러분의 교육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지혜의 옥좌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보호에 맡겨 드리며, 마음을 다해 여러분에게 사도적 강복을 전합니다.

우루과이 가톨릭 대학교에서 교육계와의 만남을 마치며 전한 즉석 인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오후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품은 열정을 날마다 다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값진지 깨닫는 데 우루과이에 필요한 목소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 열정과 기쁨으로 계속 살아가십시오. 기쁨은 여러분에게 큰 선물이 주어졌음을 알려 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몬테비데오 · 11월 7일

센테나리오 경기장 밤샘 기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우루과이 여러분, 좋은 저녁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영 인사를 전해 주신 몬테비데오 대주교 스투를라 추기경님, 진솔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페데리카와 조반니와 구티에레스 에르난데스 가정에도 감사드립니다. 짧은 방문 동안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오랜 세월 이어 온 충실함이 있음을 압니다. 신앙을 전해 온 가정, 삶을 내어 놓은 사제와 봉헌 생활자들, 공동체를 떠받치는 평신도들, 그 가운데 많은 청년,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섬기는 수많은 이를 생각합니다. 많은 이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나아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뽑으셨습니다(요한 15,16 참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곳에도 그 열매가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하며 많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겪는 일을 성찰하고 싶습니다. 세속화가 진행되고 종교적 무관심이 더욱 널리 퍼지는 일입니다. 여러 곳에서 신앙이 이전 세대처럼 자연스럽게 전해지지 않고, 교회나 신앙생활과 일상적인 관계 없이 삶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늘어납니다. 오늘 저녁 들었듯이 우루과이에서 순례하는 신자들은 이런 현실에서 신앙을 살고 전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체험은 여러 모습으로 소수자가 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알아 가는 세계 곳곳의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신앙을 살아 내며 증언하려고 애쓰는 교사가 있고, 그리스도를 만나 외롭다고 느낄 때에도 그분을 따르고 싶어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꾸준히 모이는 공동체도 있고, 먼 길을 다니며 신자들에게 성사를 베푸는 사제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 속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 거듭 떠올랐습니다.

미카 예언자는 베들레헴을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다”(미카 5,2)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오 성인은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마태 2,6)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여전히 작았습니다. 규모나 정치적 중요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은 이 현실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수가 적거나 힘이 줄어들거나 사회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깨달을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복음은 다르게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하느님께서 베들레헴을 고르셨습니다. 그 선택만으로도 작다는 것이 하찮다는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체성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의 주님께서 빵과 포도주의 소박한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분의 탄생에서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루카는 해산할 때가 왔는데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루카 2,7)고 전합니다. 모든 곳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말에서 오늘날의 무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이 일과 애정과 계획과 마음을 흩뜨리는 일로 가득 차

면 하느님의 부재도 더는 부재로 느끼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찾지 않으며, 그분이 얼마나 필요한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나 집에는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들어갈 곳이 없어 구유에 누이셨고, 얼마 뒤 헤로데는 자신이 좌우할 수 없는 통치를 견디지 못해 그분을 없애려 합니다. 베들레헴의 일이 오늘도 되풀이됩니다. 하느님께서 불필요하다고 여기거나, 신앙은 함께 사는 삶에 아무 보탬이 될 수 없다는 듯 사적인 일로만 가두기도 합니다. 하느님 없는 세상을 세우려다 사람의 자리마저 없앨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아기가 하느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우리' 안에는 모두가 들어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삶에도 무관심이 조금씩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분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쓰는 시간과 생각하는 방식과 가정에 자리가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용서를 받으며 그 말씀으로 바르게 고쳐질 자리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하며 고해성사를 받고 복음을 묵상하며 읽어서,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거듭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란다면 우리 스스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멀리서 별을 본 동방 박사들도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밝지 않았고, 여정이 어디에서 끝날지 알지 못했으며, 무엇을 찾는지도 말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에 마음이 움직여 길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벗 여러분, 여러분은 겸손하고 소박하게 삶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펼쳐 본 적 없는 이, 여러 해 성당에 가지 않은 이, 자신이 하느님을 믿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여러분을 보며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찾아 나설 수 있고, 그 일을 위해 삶을 걸 가치가 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디디십시오. '평생'이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부 여러분, 세상이 자녀는 짐이라고 말하더라도 가정의 문을 생명에 여십시오. 모든 것을 두고 사제직이나 봉헌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느끼는 이가 있다면, 다른 가능성을 잃을까 두려워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정의롭고 정직하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치르십시오. 용서하는 것이 지는 일처럼 보이더라도 용서하십시오. 모두가 자기 자신부터 생각하라고 할 때 마지막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간과 돈, 편안한 생활과 계획을 내어놓고 이웃을 섬길 줄 아십시오. 여러분을 보는 이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저 자유는 어디에서 올까? 왜 저렇게 서로 사랑할까?"라고 물을 수 있게 하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별이 맡은 일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누군가의 마음에 질문을 일으킨다면, 그 질문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빛을 널리 비추려면 먼저 주님의 빛을 받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 수가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루카 성인은 이제 밤에 양 떼를 돌보는 목자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가지도, 길을 떠나지도 않았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삶의 자리에서 밤마다 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루카 2,10) 이 소식에서 우루과이 방문의 표어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교회 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기쁜 소식에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기쁜 소식은 온 세상에 외칠 만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죄가 용서될 수 있음을 압니다. 죽음을 앞둔 이의 곁에서 그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지 않으리라고 말해 줄 수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제단으로 가져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실 수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일어나십시오.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맡겨졌는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사회는 다른 기관에서도 소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이 죽음과 증오와 폭력과 전쟁과 죄보다 강하다는 소식을 전하는 일을 어느 기관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닌 기쁨이며, 교황이 여러분께 다시 일깨워 드리러 온 기쁨입니다.

천사는 이 기쁨이 ‘온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기다리던 이들이나 완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이미 찾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길에 우리도 함께해야 합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아무것도 찾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기쁨은 그들이 지나는 밤 한가운데로 찾아가야 합니다.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갑시다.”(루카 2,15)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거기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만났습니다. 복음사가는 그들이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루카 2,20) 자기 들로 돌아갔다고 덧붙입니다. 하던 일과 걷던 길, 아마도 겪던 어려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벗 여러분, 이 만남이 베들레헴처럼 되어 여러분이 달라진 모습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빕니다! 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과 선택하는 일, 아무도 보지 않는 일에까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들어오시게 하십시오.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바르게 사는 데, 최소한에 만족하는 습관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느님께 여러분의 일부만 드리지 말고 온전히 자신을 드리십시오! 성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이 흘러넘치는 자유롭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 삶을 보면 사랑과 진리와 행복에 마음을 다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삶을 바라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삶처럼 새롭고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우루과이 여러분, 우리가 베들레헴에 다녀왔음을 보여 줍시다!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을 만나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 줍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리

스도께서는 성체 안에 실제로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베들레헴이 바로 '빵의 집'이라는 뜻이라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생명의 빵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실 분이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감실마다 겸손히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체조배 안에서 그분을 찾으십시오. 벗에게 말하듯 그분과 말씀을 나누고, 그분의 시선 안에 머무르십시오.

우리 삶을 33인의 성모님께도 맡겨 드립시다. 우리를 아드님께 이끄시는 샛별이신 성모님께서 그분을 알아보고 따르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빕니다. 성모님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주님, 당신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당신께서 바라시는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플로리다 · 11월 8일

‘33인의 성모’ 국립 성지인 플로리다 주교좌대성당 앞 광장 미사

후아니코의 소화 데레사 본당 앞에서 전한 즉석 말씀

좋은 아침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소화 데레사 본당에서 짧게나마 함께 할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데레사 성녀께서 시성되신 뒤, 우루과이에서 처음으로 그분께 봉헌된 본당입니다. 저희 가족은, 특별히 제 아버지는 소화 데레사 성녀에게 깊은 신심을 지녔습니다. 아시다시피 33인의 성모 축일을 지내러 플로리다로 가는 길입니다. 이 축일에 이곳에 들러 신심을 드러내고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하느님께서 기쁜 순간에도 병과 아픔과 여러 어려움으로 힘겨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가정에 주님의 강복을 청합시다. 가져오신 묵주와 신심 용품도 지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 안에서 자라고 신앙을 용감하게 실천하도록 주님께 청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당신의 삶으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하나 되어 걸으며 하느님의 현존을 찾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쁨을 모든 이와 나눕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도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축하드립니다. 좋은 하루, 복된 주일 보내십시오!

교황 성하의 강론

사랑하는 우루과이의 자녀 여러분,

오늘 33인의 성모님 곁에서 큰 기쁨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이 백성이 여러 세대에 걸쳐 하느님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간직해 온 신앙과 애정을 함께 나누고자 순례자로 왔습니다.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 해마다 이곳을 찾아 순례해 오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마리아의 보호에 맡겨 드립니다.

오늘 하느님의 말씀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으나 거의 같은 축복을 받은 두 여인을 우리 앞에 보여 줍니다. 유딧이 민족을 구한 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여, 그대는 땅 위의 모든 여인

가운데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가장 큰 복을 받았소.”(유딧 13,18) 수 세기가 흘러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맞으며 외칩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루카 1,42)

그리스도교 전통은 일찍부터 두 여인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유딧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단식하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유딧 8-10장 참조). 승리가 찾아왔을 때 이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구하셨는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손북으로 나의 하느님께 노래하고, 자바라를 치며 주님께 찬미가를 불러라.”(유딧 16,1) 그래서 백성이 그를 맞으며 건넨 말은 그토록 큰 뜻을 지닙니다. “그대는 예루살렘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의 큰 자랑이며, 우리 민족의 드높은 영예입니다.”(유딧 15,9) 백성은 유딧을 통해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신 일을 기뻐했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수호자이신 성모님 앞에서 듣는 이 말씀은 각별합니다. 이 작은 성상은 우루과이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과 이어져 있습니다. 1825년 이 땅의 자유를 위해 싸우던 이들은 그 첫걸음을 성모님의 보호에 맡기고자 마리아께 나아갔습니다. 그 몸짓은 하느님을 빼놓고는 민족의 역사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일깨웁니다. 이렇게 나라를 일으키던 순간부터 우루과이는 한 어머니와 깊이 이어졌습니다. 그 뒤로 여러 세대가 지나고 여건도 달라졌으며, 많은 우루과이 사람에게 신앙이 차지하는 자리도 변했습니다. 성모님은 줄곧 이곳에 계셨습니다. 마리아께서 이 백성의 역사와 함께하시는 동안, 수많은 가정에서는 다른 여인들이 신앙을 지켜 자녀들에게 전했습니다.

자녀에게 처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세례를 받도록 데려가며, 성사를 받도록 준비시키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가르친 어머니들을 생각합니다. 집 안에 제대를 마련하고 산이와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며 평범한 일상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해 준 할머니들을 생각합니다. 교회 초기에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티모테오의 신앙 뒤에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에게서 알아본 “거짓 없는 믿음”이 먼저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깃들어 있었음을 애정을 담아 기억합니다(2티모 1,5 참조). 성경은 그 두 여인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훗날 바오로 성인의 가까운 협력자가 된 티모테오가 가정에서 배운 신앙으로 자랐음을 우리는 압니다(사도 16,1-3 참조).

이 땅의 신앙 역사에도 여러 여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여러분 곁에 머물며 이곳의 가장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자 하신 마리아 프란치스카 루바토 성녀가 있습니다. 몬테비데오에서 태어난 두 자매 돌로레스와 콘수엘로 아기아르메야 순교 복자도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았으나 세 분 모두 끝까지 신앙에 충실하셨습니다.

이 신앙 역사의 대부분은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내 안의 신앙이 어디에서 왔는지 물으면 흔히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어머니나 할머니, 대모나 수녀, 교리 교사입니다. 그분들이 들려준 말은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주님에 관해 이야기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얼마나 확신하며 살아 냈는지는 기억합니다.

오늘 그 모든 여성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믿어 주셔서, 수많은 가정에서 하느님께 이르는 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오래 이어진 가정의 전통에 힘입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 안에서도 늘 이해나 지지를 받지는 못하면서 더 애써 신앙을 지켜야 하셨습니다. 많은 분이 구체적인 아픔을 안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이제 자녀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함께 미사에 다녔는데 자녀가 성당에 가지 않은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손주에게 하느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말이 흔적을 남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애써 한 일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자문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모니카 성녀를 기억합시다. 성녀는 그 고통을 잘 아셨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듯한 아들을 위해 여러 해 기도하시며 은총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뿌린 것이 사라졌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씨를 뿌린 이가 그 이치를 모르더라도 씨앗은 자라난다고 몸소 가르치셨습니다(마르 4,27 참조).

어머니와 할머니 여러분, 신앙을 전하는 데 지치지 마십시오! 삶으로 증언하고 말로도 전하십시오. 기도와 사랑과 희망을 굳게 붙드십시오. 기회가 좋든 나쁘든 꾸준히 하십시오(2티모 4,2 참조). 인내심을 갖고, 모질게 대하거나 낙담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이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해도 계속 그분께 맡겨 드리십시오. 그들을 축복하고 곁에 있으며, 한때 받았던 것을 소박하게 일깨워 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열 수 없는 문도 하느님께서는 여실 수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 아버지와 할아버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은 신앙이 집안 남성들의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성 요셉을 본받으십시오. 성인은 예수님을 기르고 가르치는 일을 맡아 성전으로 데려가고 정직하게 일하는 법을 가르치셨으며, 삶의 첫자리는 하느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여러분, 젊은이들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사를 받으며, 아내를 존중하고 용서를 청하며, 희생이 필요할 때에도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도 무엇 하나 잃는다고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성경은 하느님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 말씀을 이야기하여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신명 6,6-7). 하느님께서는 집 안의 대화와 결정, 날마다의 삶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이 바로 부모가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교와 사제, 봉헌 생활자들도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너그럽게 수행하여 가정의 이 일을 뒷받침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망설이는 이들 곁에 머물고, 많은 이가 하느님께 이르는 길을 다시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신앙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맞아들인 그리스도께 다른 이들을 인도하는 일입니다. 마리아께서 그 길을 보여 주십니다. 복음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맞으며 외칩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루카 1,42) 마리아께서는 그 찬사를 자

신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엘리사벳이 그분이 복되다고 하자 마리아께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응답하십니다(루카 1,46-55 참조). 카나에서 사람들이 성모님께 청하자 그분은 당신 아드님께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

바오로 성인은 제2독서에서 마리아의 온 생애가 선포하는 진리를 분명히 말합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1티모 2,5) 마리아의 위대함은 온전히 그리스도와 맺으신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으로 살아가며 다른 이들을 그분께 인도하십니다. 스승과의 이 만남이 모든 복음화와 참된 성모 신심의 목적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모든 이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으니, 교회는 누구도 기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바오로 성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1티모 2,2)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청하는 이유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십니다(1티모 2,4).

우루과이의 수호 성모님을 기리는 이 축일에 온 백성을 주님 앞으로 데려갑시다. 나라를 다스릴 책임이 있는 이들이 정직하게 모든 이의 선익을 추구하도록 기도합시다. 가정과 청년, 고통받는 이들, 하느님에게서 멀리 있다고 느끼는 이들, 그분께 돌아와 삶을 바꿀 필요가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루카 성인은 그 사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 줍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신 마리아께서는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나셨습니다.”(루카 1,39) 엘리사벳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를 마중하러 나서서 주님을 모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아기가 기뻐 뛰놀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찹니다(루카 1,41-44 참조). 마리아께서 걸으신 그 길이 우리의 길을 가리켜 줍니다. 멀어진 이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만을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루과이여, 길을 나서야 합니다! 다시 가정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질문에 귀 기울이며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자녀나 친구, 이웃, 오래전에 신앙을 잃은 사람, 또는 하느님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곁에 한 번도 없었던 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모후께서 계속 신앙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가난한 이와 병든 이, 홀로 있는 이에게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아직 그분을 모르는 곳에 그분을 모시고 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빕니다.

잠시 뒤 이 성상 앞에 황금 장미를 봉헌하겠습니다. 이 몸짓으로 참으로 “우리 민족의 드높은 영예”(유딧 15,9)이신 분께 공경을 드리며, 그분께서 몸소 하신 말씀,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루카 1,48)가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고자 합니다.

이 백성의 인도자이신 마리아께 이 나라를 다시 봉헌하고, 이 땅과 이곳에 사는 모든 이를 그분의 보호에 맡깁니다. 하느님께서 성모님의 힘 있는 전구를 받아들이시어 악마의 일을 꺾으시고, 사랑하는 우루과이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서 지켜 주시기를 청합니다. 공경과 자

녀다운 사랑으로 드리는 이 황금 장미가 성모님의 자녀들에게 성모님을 본받으라는 부르심을 일깨우기를 빕니다. 성모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듯이 그분을 사랑하고, 성모님께서 그분을 다른 이들에게 모시고 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아멘.

미사를 마치며 전한 감사 인사

성찬례를 마치고 이 사랑하는 나라를 떠나기에 앞서 제 방문을 가능하게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교회의 관계자들, 행사마다 준비해 주신 분들과 자원봉사자들, 이 며칠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신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매체를 통하여 함께한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루과이는 비교적 작은 나라지만 이곳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아주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 말이 참임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을 함께 나누었고 그 기쁨이 날마다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몬테비데오와 파이산두, 이곳 플로리다에서 우리가 체험한 것이 온 나라와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신앙의 셈법이 이렇습니다.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내어 주면,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 선물은 불어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며 새로운 의미를 더합니다. 사랑하는 우루과이의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더욱 키우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얻은 기쁨을 계속 살아 내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3인의 성모님의 전구로 하느님께서 우루과이 국민을 축복하시고 일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제 마음에 간직합니다. 앞으로도 기도로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우루과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11월 8일

정부 당국자·시민사회·외교단을 향한 연설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연설
리베르타드 궁전 도밍고 파우스티노 사르미엔토 문화센터 (부에노스아이레스)
2026년 11월 8일 주일

대통령님,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와 외교단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아르헨티나 땅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대통령님, 따뜻한 인사 말씀과 대통령님을 통해 이 나라 국민이 보내 주신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외교단과 정부 당국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리며, 모든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애정 어린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곧 목자로서 왔습니다. 이 땅을 순례하는 교회를 만나고, 온 국민과 국민을 섬기는 임무를 맡은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주어진 사명에 따라 여러 민족의 삶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공적 책임을 맡은 분들께도 복음에서 길어 올린 말씀을 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화합과 공동선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는 일은 제게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보편 교회는 열두 해 동안 아르헨티나 출신 교황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곳에서 만난 장소와 사람들, 물려받은 신앙을 기억과 마음에 간직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 사도직을 이어받아 어떤 의미에서 거꾸로 그 길을 걸어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걸음을 내디디신 조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뒤에 온 교회의 역사와 얽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자라신 땅에 다가간다는 것은 훨씬 넓은 역사에 다가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분 이전과 이후 여러 세대의 남녀가 이 조국을 물려받고 그 안에 자기 삶의 일부를 남겼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분도 있고, 멀리서 와서 이곳에 보금자리를 찾은 분도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기 전부터 이 땅에 살아온 원주민들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뿌리와 경험이 만나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문을 열어 찾아온 이에게 자리를 내어 주고 어려운 때에도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걸어가는 놀라운 힘을 지닌 한 국민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기쁜 마음으로 방문한 아르헨티나에는 그 모든 분의 기여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세대도 조국을 처음부터 세우지 않습니다. 조국은 물려받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의 언어와 유대, 다른 이들이 세운 제도, 많은 사람의 수고로 커 온 재산 속에서 우리는 조국을 물려받습니다. 역사에는 감사할 일과 아픈 기억이 함께 있습니다. 세대마다 간직할 만한 것

을 식별하고 지난날의 불의가 남긴 결과를 마주하며, 모두의 물질적·정신적 유산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있는 조국은 내일 다른 이들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문화는 그 유산의 특징을 잘 드러냅니다. 호세 에르난데스의 『마르틴 피에로』, 라플라타강 유역의 정취로 스페인어를 풍요롭게 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와 수많은 작가의 글, 서로 다른 동네와 항구와 고향에서 온 사람들이 만나 탄생한 탱고에는 국경 너머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아르헨티나 고유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륙 지방의 음악과 전통, 연극에도 그 목소리가 있고, 잠깐의 휴식을 대화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는 마테차 한 잔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공동의 기억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앞선 세대에서 물려받은 이 기억은 뒤에 오는 이들의 창의성에도 맡겨져 있습니다.

그 유산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 흔적은 이 나라의 기억을 관통하며, 복음에서 삶의 의미와 희망과 형제애의 샘을 발견한 수많은 아르헨티나인의 삶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같은 유산을 나누려면 생각이 서로 달라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역사는 한 민족이 차이를 대화와 만남의 기회로 삼을 때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도 우리가 지켜야 할 유산입니다.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고, 공공 생활에 참여하며, 자신의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법을 신뢰하며, 여러 제도를 모두의 공동 공간으로 여기는 일은 세월을 거쳐 자리 잡아 온 소중한 가치입니다. 각 세대는 이 가치를 돌보고 강화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요한 바오로 2세 성인, 회칙 「백주년」, 46항 참조).

민주주의는 공공 생활에 임하는 일상의 태도를 통해서도 튼튼해집니다. 귀 기울이고, 말을 신중하게 하며, 인내로 합의를 찾고, 생각이 다른 이도 같은 운명을 나누는 동포임을 알아보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신뢰가 쌓이면 사회는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이어 주는지 기억하면서 차이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공적 책임을 맡은 분들에게는 특히 무거운 임무가 주어집니다. 권위는 봉사로 행사될 때, 당장의 일을 넘어 멀리 내다볼 때, 모두의 것을 돌보는 데 힘을 쓸 때 가장 고귀한 의미를 얻습니다. 권위를 맡은 이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맡겨진 권한의 한계를 인정하며, 공동체 전체의 선익을 향하여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습니다(요한 23세 성인, 회칙 「지상의 평화」 53-60항 참조).

국가의 권위가 섬기는 공동선은 날마다 살아가는 구체적인 여건에서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은 여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삶이 타인의 삶과 이어져 있고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약한 이를 돌보고 용서하고 나누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의 곁에 머무르는 법을 배웁니다. 많은 사람이 바로 그곳에서 신앙의 첫 씨앗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는 자기 노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들과 도시에서, 일터와 학교와 병원에서 생계를 꾸리는 이들, 사업을 일으키는 이들, 날마다 가정을 떠받치는 이들이 흘리는 땀의 가치를 이 땅은 잘 압니다. 일하는 사람은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 능력을 키우며 조국을 세우는 데 자신도 참여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교황 권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115항 참조). 그러므로 기회를 열어 주고 개인의 주도성을 북돋우며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도 성장의 결실이 돌아가게 하는 모든 일을 장려해야 합니다. 특히 앞날에 대한 불안을 짊어진 가정, 일자리를 찾는 이들, 여러 해 동안 사회를 일구어 온 어르신들, 일을 하고도 가정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들을 생각합니다. 경제가 사람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사람이 경제에 봉사해서는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에는 재능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풍요로움이 모두를 위한 열매를 맺으려면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삶을 펼칠 수 있을지는 오늘 어떤 기회를 얻느냐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고향을 떠나야 한다면, 나라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자유롭게 삶을 설계할 수 있으려면 교육과 직업 훈련, 대학과 연구를 특히 강화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역사 속에서 갈수록 더 많은 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자 힘써 왔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여러 세대의 아르헨티나인이 저마다 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직종과 전문 분야에서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육의 사명을 지키고 키우려면 젊은이들이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이웃에게 봉사하는 데 쓰도록 도와야 합니다(바오로 6세 성인, 회칙 「민족들의 발전」 14-15항 참조). 젊은이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주도성을 인정하며 생각을 내놓고 책임을 맡을 자리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이 나라는 바로 지금부터 그들의 지성과 창의성,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내다보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은 우리의 결정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합니까? 그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지 묻기에 앞서 그들의 존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은 생명을 그 시작부터 환대하고 자연스럽게 끝나는 때까지 지키는 데서 시작합니다(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 101항 참조). 병을 앓거나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장애가 있을 때에도 그 존엄은 특별히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 때에도 사람을 보살피고 고통을 덜어 주고 곁에 머물며, 어떤 형편에서도 삶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인류에 대한 그 책임은 지구를 돌보는 일로도 이어집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르헨티나에 놀라우리만큼 풍요로운 자연을 주셨습니다. 들판과 수자원, 에너지와 광물, 다채로운 생태계는 발전의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참으로 인간다운 생태는 피조물을 돌보는 일과 사람을 돌보는 일을 잇습니다. 자원의 활용이 지역 공동체의 복지에 이바지하고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살아가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지켜 주도록 힘씁니다(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 51항 참조).

빠른 기술 발전은 불과 몇 해 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그 영향이 큰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의학과 교육, 생산과 연구는 인간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도구를 갖추었습니다. 기술을 적용한 결과와 사용 방법을 결정하는 이들의 책임을 살펴야 합니다. 기술 발전에는 그에 걸맞은 윤리 의식이 필요합니다(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21-24항 참조).

이러한 책임 가운데 많은 일이 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큰 강은 여러 땅을 잇고, 생태계는 국경을 넘나듭니다. 에너지와 식량, 지식과 사람의 이동도 국경을 넘어 유대를 만들어 냅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 대륙을 함께 살아가는 민족들에게 눈을 돌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아메리카에는 사람과 자연의 풍요가 있고, 그 민족들이 공유하는 역사적 유대와 문화 전통은 협력의 넓은 장을 열어 줍니다. 아르헨티나도 자신의 경험과 역량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만남과 협력의 기회를 늘려 가는 것은 어느 나라도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함께 지는 길입니다.

심각한 위협에 맞서는 데에도 협력이 필요합니다. 조직범죄, 인신매매 조직, 무기와 마약 밀매, 부패는 공동생활을 해치고 폭력을 키우며 공동선에 필요한 자원을 빼돌립니다. 그러므로 국가들이 힘을 모아 행동하고 제도를 견고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제도의 힘은 통치의 책임을 맡은 이들의 청렴성에도 달려 있습니다. 부패는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허물기 때문입니다(요한 바오로 2세 성인,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아메리카 교회」 23항과 60항 참조).

공동의 노력은 평화에 봉사할 때 가장 고귀하게 드러납니다. 각국의 정당한 이익은 대화하고 법을 존중하며 끈기 있게 합의를 모색하는 가운데 지켜야 합니다. 남아메리카는 역사 속 어려운 순간에도 협상과 상호 이해의 길을 찾아 심각한 긴장을 극복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대화하려는 그 의지를 지키고 계속 열매를 맺게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도 이 공동의 책임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이어 온 교회의 삶은 아메리카 전역을 아우르는 역사의 일부입니다. 여러 세기 동안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을 경축하며, 가르치고 병든 이를 돌보며, 가난한 이들과 가정들 곁에 머물고 평화와 화해를 증진함으로써 이 대륙의 민족들과 동행해 왔습니다.

그 사명은 모든 이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본당과 공동체 안에서 이어집니다. 본당과 공동체는 누구나 환대받고 가까이 다가갈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마태 22,9-10 참조)라는 짧은 말에는 누구에게나 닿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라고 부르는 복음의 보편적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 환대에서 파견도 시작됩니다. ‘가서 선포하십시오’(마르 16,15 참조). 이 명령은 학교와 대학, 사회 봉사 활동, 신앙으로 이웃을 섬기는 수많은 이의 일상적인 증언에서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어떤 공공 정책도 홀로 만들어 낼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신뢰와 용서, 기꺼이 봉사하는 마음, 삶에는 성공이나 쓸모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의식은 각 사람의 양심과 가정

과 공동체의 삶 속에서 자랍니다. 신앙은 이 선을 키우고 지탱합니다. 교회는 아르헨티나 국민 곁에 머물며 그 짐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에서 솟아나는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처음부터 말씀드려 온 모습이 다시 떠오릅니다. 세대마다 앞선 이들이 손에 쥐여 준 조국을 물려받습니다. 한동안 그 땅에 살면서 섬기고 자라게 한 뒤, 다음 세대에게 건네주어야 합니다(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 159항 참조). 그렇습니다. 가르델이 노래했듯 인생은 한 줄기 입김과도 같지만, 각 세대가 소중히 지키고 전해 준 선은 오래 남습니다. 신앙은 더 멀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영원한 행복까지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르헨티나 국민 여러분, 오늘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이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려받은 놀라운 유산은 미래를 신뢰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이제 물려받은 것이 열매를 맺게 하고, 헌법 전문에 천명된 '국민의 단합을 이루겠다'는 뜻을 살려 가야 합니다. 후대가 이 나라의 역사와 가능성에 걸맞게 하나 된 조국을 물려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억을 말없이 지켜 오신 루한의 성모님을 생각합니다. 대대로 전국 곳곳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일하는 이들과 젊은이와 어르신들이 그 시대의 걱정과 희망을 안고 성모상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오늘 저도 그 기도에 제 기도를 보태고 싶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여러분을 생각하며 하신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한 백성으로 자라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아르헨티나 국민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 2016년 9월 30일). 루한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의 전구로 주님께 마음을 다해 청합니다. 성모님께서 계속 이 땅을 살피시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며, 언제나 예수님 곁에 머물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 아르헨티나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클레이폴 · 11월 9일

클레이폴 ‘페케뇨 코톨렌고 돈 오리오네’ 종사자와 입소자 방문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인사말
페케뇨 코톨렌고 돈 오리오네 (클레이폴)
2026년 11월 9일 월요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이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따뜻한 말씀을 건네주신 로마스 데 사모라 교구의 호르헤 루고네스 주교님과 이곳 센터장이신 호르헤 실라네스 수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증언해 주신 마르타와 노르마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음악으로 열정과 기쁨을 다해 저를 맞아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집처럼, 이루어 놓은 일에서뿐 아니라 몸짓 하나, 얼굴 하나, 미소 하나에서, 심지어 숨 쉬는 공기에서까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페케뇨 코톨렌고’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문을 활짝 열어 놓은 형제적 공동체로, 이곳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들려줍니다.

이 집을 설립하신 루이지 오리오네 성인은 이곳이 ‘사랑의 도시’로 불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여러 해 동안 하느님의 섭리를 깊이 믿으며 기도하고 일하셨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흔히 외면받으며 버려지는 이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자 목자이신 오리오네 신부의 뜨거운 마음에 담긴 이 바람을 기억하니, 예수님께서도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랑의 맑은 공기를 마시셨던 세 곳이 떠올랐습니다. 베들레헴과 나자렛과 베타니아입니다.

‘빵의 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사랑으로 맞아 따뜻이 감싸고 먹여 주었습니다. 지혜로운 이들도 가난하고 소박한 이들도 사랑과 경탄으로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베들레헴에는 생명에 대한 사랑이 숨 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차갑고 가난한 곳을 온기 어린 보금자리로 바꿉니다. 베들레헴은 모든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느님의 선물로 소중히 여기며 맞아들이는 곳입니다.

여러 해 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고을 나자렛에서 한 가정의 일원으로 지내고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곳에서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습니다”(루카 2,52 참조). 일과 책임의 가치도 익히셨습니다. 나자렛은 누구도 내치지 않고 저마다의 재능과 능력을 소중히 여기고 열매 맺게 하여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하는 곳입니다. 마르타가 자신의 삶과 직접 쓴 책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듯이 말입니다.

끝으로 베타니아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마리아와 라자로와 우정의 선물을 나누시며, 진실하고 꾸밈없는 인간관계의 가치를 체험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소외되거나 버려지지 않습니다. 서로 곁에 머물며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건네고, 신앙과 봉사, 슬픔과 기쁨을 나눕니다. 베타니아는 자기 안에만 머무는 데서 벗어나도록 돕는 곳,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다른 이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싶어지는 곳입니다. 노르마가 들려준 것처럼 이런 곳에서는 누구든 있는 그대로 환영받고 보살핌을 받으며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숨 쉬는 곳에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삶을 나누시며 가족의 사랑, 공동체에 속하는 기쁨, 형제적 우정을 체험하셨습니다. 이 짧은 묵상을 통해 이곳 페케뇨 코톨렌고처럼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수많은 '사랑의 도시'를 떠올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임자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장애인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 희망의 토대이며 우리 삶을 북돋는 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큰 존엄을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없이 분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몸이나 영혼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야말로 자신이 예수님의 벗이며 그분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삼종기도, 오스나브뤼크, 1980년 11월 16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큰일에 함께하는 입소자와 종사자, 남녀 수도자, 가족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오늘 많이 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눈빛에서 서로를 가까이하는 마음을, 펼친 손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수많은 봉사의 손길을, 너그러운 마음에서 크나큰 다정함과 이해를 느낍니다. 이웃 사랑과 헌신을 삶으로 보여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곳에서 애정과 수고와 정성을 다해 하는 고귀한 일은 새로운 도시, 사랑과 공존과 평화의 도시를 세우는 굳건한 기초입니다. 분명 다른 도시를 세우는 일보다 "더디고 덜 보이며 덜 눈에 띄는 건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이 향하는 곳, 이 희망의 일에 우리는 '사랑의 문명'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회칙 「고귀한 인류」 185항).

이곳과 같은 공동체를 특징짓는 존엄과 사회적 참여, 형제적 우정은 경제적 성공이나 겉모습만 좇기 쉬운 우리 사회에 전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사회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짐이 되기는커녕, 모든 인간 존엄의 토대가 무엇이며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어떻게 맞아들이는지를 보아도 한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자리에서 제가 이 나라에 바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이곳에서 보는 것처럼 큰 사랑의 일을 이루어 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개인주의와 배제를 이겨 내기를 바랍니다. 아르헨티나 국민의 진실하고 소박한 신앙이 여러 세기에 걸쳐 써 온 사랑의 역사에 수천 명의 젊은이가 자원봉사자로 함께하는 모습을 그려 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새로운 세대의 성인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2코린 5,14 참조)

사랑하는 벗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성덕의 부르심에 신앙과 희망으로 계속 응답합시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인류의 빛」 11항 참조). 사랑하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이를 바라시며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날마다 하는 일로 증언하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4항) 각자의 형편이 허락하는 만큼 받은 은사를 가장 작은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씁시다. 그리하여 사랑의 도시가 더 튼튼해지고 널리 퍼져 이기심의 경계를 허물게 합시다.

끝으로, 이 공동체의 경당에 오리오네 신부님의 심장 유해가 모셔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이탈리아 사제와 아르헨티나 땅이 맺은 깊은 유대를 보여 주는 유해입니다. 부패하지 않은 그 심장은 “사랑이 세상을 구할 것”임을 계속 일깨웁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며”(1요한 4,8),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기”(1코린 13,8) 때문입니다. 전임 교황이신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이 지칠 줄 모르는 사도를 시성하시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 준 삶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이끈 이 사람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넓어졌기에 경계를 알지 못했습니다’(『저술』 102,32).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은 그의 용감한 삶에 생기를 주었고, 아낌없이 타인을 돕게 하는 내적 힘이었으며, 꺾이지 않는 희망의 언제나 새로운 샘이었습니다.”(2004년 5월 16일 시성 미사 강론 2항)

주님께서 성인들의 마음을 빚어 주셨듯 우리 마음도 당신의 마음을 닮게 빚어 주시기를 청합시다. 뜨거운 사랑과 어진 인내와 한결같은 겸손을 지니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마태 11,29 참조).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은인들,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도 풍성히 강복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제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부에노스아이레스 · 11월 9일

부에노스아이레스 미사 강론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강론
스페인인 기념비 앞 (부에노스아이레스)
2026년 11월 9일 월요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성찬례를 거행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와서 주님의 업적을 보아라.”(시편 46,9) 하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아르헨티나 땅을 찾아와 여러분 얼굴에서 신앙의 열정을 봅니다. 신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가장 아름다운 일은 당신의 교회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주님께 감사드리려고 한 식탁 둘레에 모일 때마다 교회가 눈앞에 드러납니다.

오늘 지내는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은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의 핵심으로 이끌어 줍니다.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는 로마 주교인 교황의 주교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성전은 전 세계 교회에 일치와 친교의 표징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모든 교회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로마 교회는 친교를 섬김으로써 어머니의 역할을 합니다. 세례받은 모든 이가 하나인 집에서 서로를 형제자매로 알아보도록 섬깁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를 “하느님의 한 가족 […]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로 맞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 건물이 잘 결합되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에페 2,19-21)

우리가 들은 독서들은 바로 성전의 모습을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관해 복음은 주님께서 단호하게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장사하는 이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십니다(요한 2,15 참조). 아버지의 집이 본래 모습을 되찾도록 하신 일입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하느님과 거래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내어 주며, 자기 것을 바치는 대가로 하느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이교도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생각을 뿌리 뽑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모두 주고자 늘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 현존하시는 성전은 이렇게 다시 자녀들 모두의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에제키엘 예언자가 본 환시에서는 이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흘러갑니다(에제 47,1 참조). 깊은 뜻이 담긴 모습입니다. 그 물은 닿는 곳마다 깨끗하게 하고 피조물에 생명을 주며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여 열매가 끊이지 않게 합니다. 물은 아라바 지방으로 흘러갑니다. 성경은 이 지명으로 사해의 큰 저지대로 내려가는 사막을 가리킵니다. 사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깨끗해지자 물고기가 아주 많아지고 온갖 생물이

되살아납니다. 죽음이 있던 곳에 생명이, 병이 있던 곳에 건강이, 메마르던 곳에 풍성한 열매가 생겨납니다.

시편은 땅이 흔들리고 산들이 바다 깊은 곳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인간의 삶에 자주 찾아오는 불안정과 혼란을 보여 주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불안정한 삶과 사회적 어려움, 불안정한 일자리, 가정 폭력, 고통스러운 이별, 청년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가족 관계를 해치는 중독을 자주 겪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위기 가운데 하느님의 말씀이 희망을 비추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신처이시며 힘이시고, 위험 속에서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시편 46,2) 바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과 온 사회는 집을 떠받치고 몰아치는 폭풍에서 집을 지켜 주는 기초를 찾습니다(마태 7,24-27 참조).

오늘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을 기념하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교회 안에 계시며 구원하신다는 표징을 되새깁니다. 성령의 성전이며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는 우리의 상처를 씻고 치유하시는 생명수, 곧 예수님을 내어 줍니다(요한 4,14 참조). 주님의 집에서 주님 둘레에 모일 때 우리의 가정 또한 힘을 얻고 치유되며 끊임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어 이미 당신 마음에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은총을 가정 안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가정마다 이 나라를 참되게 새롭게 하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역사와 문화와 사회는 국민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의 샘을 가정에서 찾았습니다. 여러 문화와 민족이 만나는 이 땅에서, 가정은 신앙과 인간적 덕행, 노동의 문화, 어른에 대한 존경, 생명을 지키는 일과 약속을 지키는 충실함을 전한 자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하는 이들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가정은 이 시대의 수많은 불안 속에서 어느 때보다 든든한 기둥입니다.

가정의 문을 그리스도께 여십시오. 자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해 주고 그분과 하나 되어 머무십시오. 화목한 가정 안에서 신앙은 아주 소박한 행동을 통해 생명과 함께 전해집니다. 식사 전에 드리는 기도, 잠들기 전에 바치는 기도, 서로를 용서하고 귀 기울이는 일, 조부모가 기도를 가르쳐 주는 일, 주일 미사에 가는 일, 피정과 순례를 준비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가정은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기에 좋은 자리입니다. 이 도시의 주교를 지내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열정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사랑을 키우고 점점 더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며 성체를 받아 모시도록 부름받았습니다.”(시노드 후속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29항)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복음화의 주역이 되십시오! 아르헨티나 교회에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주교와 본당 주임 사제, 사목 봉사자와 교리 교사가 맡은 사명을 뒷받침하십시오. 가정이 신앙에 힘입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할 때 교회는 새 활력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교육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여 퍼뜨리는 참된 직무로 살아갈 때”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하여 가정생활 자체가 신앙의 여정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교 입문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학교가 됩니다.”(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 39항)

우리의 모든 가정을 루한의 성모님이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께 맡겨 드립시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나자렛 성가정에서 이 세상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아드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 집도 그분께서 현존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부에노스아이레스 · 11월 9일

노동계 관계자들과의 만남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연설
아르헨티나 가톨릭 대학교 (부에노스아이레스)
2026년 11월 9일 월요일

사랑하는 벗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자와 기업인, 노동조합과 민중 운동의 구성원, 그리고 아르헨티나 교황청립 가톨릭 대학교의 교수진과 대학 공동체 여러분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대총장이신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님과 주교회의 사회사목위원회 위원장님께 애정 어린 인사를 전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증언과 예술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음악이 우리 영혼을 하느님께 들어 올리고 일상의 경계를 넘도록 돕듯이, 노동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랍고 조화로운 일에 함께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창조주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자기 능력이 미치는 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일을 계속 발전시키고 완성하며, 모든 피조물 안에 담긴 자원과 가치를 발견하는 데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갑니다”(회칙 「노동하는 인간」 25항). 그러므로 노동은 갈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힘을 보태고 창조 질서를 존중하면서 사회를 일구는 데 이바지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여건이나 노동의 구조 자체가 아무리 달라져도 이 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회칙 「고귀한 인류」 150항 참조). 오늘날 노동은 인간 삶의 토대이자 세계를 잇는 활동으로서 경제의 근본 문제만 아니라 생태 위기와 지구 자원의 무책임한 사용이라는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소수의 지배가 법이 되는 곳에서는 노동계 전체가 착취당하고 노동자는 오직 능률로만 평가받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제시한 통합 생태론에 비추어 보면 이 현실은 유례없이 절박합니다. 노동은 피조물을 책임 있게 돌보는 데 이바지해야 하며, 기술 발전은 자연의 리듬과 각 생태계의 한계를 존중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회칙 「찬미받으소서」 11항 참조). 노동 구조가 크게 변하는 지금도 이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소수의 논리만 앞서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생태계를 훼손하고 가장 취약한 공동체에 비용을 떠넘기거나 우리 뒤에 올 이들의 생활 여건을 위태롭게 하면서 일부의 복지만 증대시키는 것은 참된 진보가 아닙니다”(회칙 「고귀한 인류」 84항).

모든 일과 노동계의 모든 분야에는 언제나 이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일은 한 사람이 자기 역량을 다해 수행하는 것이며, 일하는 이의 온전한 발전을 지향합니다. 여기에 교회 사회 교리의 첫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원리인 인간 존엄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경제·사회생활의 주체이며 중

심이고 목적입니다. 따라서 경제가 사람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사람이 경제에 봉사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이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제 전임자 레오 13세 이래 이 가르침은 교회의 사회 사상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레오 13세 교황께서는 노동 현장의 갈등을 없애고 당사자들의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회칙 「새로운 사태」 15항 참조), 경제 원칙과 기업인의 관점, 노동자와 그 가족의 필요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실업은 당사자의 삶에 닥치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일자리를 빼앗으면 소득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엄이 크게 다치고, 사회에 기여할 능력을 펼칠 길이 막히며, 사회적 배제로 내몰립니다. 그 결과 사회를 묶어 주는 유대가 약해지고 공동선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도 무너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일깨우셨습니다. “참으로 발전한 사회에서 노동은 사회생활의 빼놓을 수 없는 차원입니다. 노동은 생계를 꾸리는 방편이며, 또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건전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을 표현하고 재능을 나누는 길입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공동 책임을 느끼고, 마침내 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회칙 「모든 형제들」 162항). 여기서 존엄성의 원리는 공동선의 원리와 직접 연결됩니다. 공동선이란 집단과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충만하고 더 수월하게 자신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사회생활의 모든 조건을 뜻합니다. 공동선은 열매 없는 개인주의와 집단의 이익만 따지는 태도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이 참된 전인적 인간 발전으로 이어지는 만남의 문화를 증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우리는 노동을 성화의 수단으로도 바라봅니다. 일할 때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첫머리에서 읽듯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습니다.”(창세 2,15) 이 성경 말씀은 재화의 보편적 목적이라는 원칙의 근거입니다. 교회는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고 지키면서도 그 권리에 언제나 사회적 의무가 따른다고 가르칩니다. 하느님께서는 온 인류가 살아가는 데에 쓰도록 땅과 그 열매를 주셨습니다(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 93항 참조). 땅을 ‘일구고’ ‘돌본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인 소유주가 아니라 정의와 공평에 따라 함께 나누어야 할 유산을 맡은 관리인임을 뜻합니다. 가장 약한 이들을 소외시키는 구조적 불균형을 없애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개인과 공동체와 민족에 영향을 주고, 국가 간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모든 민족이 한 인류 가족에 속한다는 의식을 약화시키고, 국가들이 함께 결정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한 때부터 노동은 세상을 완성하시는 하느님의 활동에 우리가 협력하는 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 공동선, 재화의 보편적 목적이라는 원칙은 인간이 본디 관계를 이루며 살아감을 보여 주고, 연대의 원칙으로 모아집니다. 연대는 모두의 선익을 위하여 사람과 기관이 저마다 지는 책임입니다. ‘버리는 문화’로 기울기 쉬운 세계화된 경제 구조 안에서 연대는 새로운 사회의 틀을 구축하는 힘입니다. 그 힘으로 정의와 호혜의 원리에 따라 시장의 요구와 노동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탈렌트를 잘 쓰는 사람은 기술의 발전에 적응하면서도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실질적인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겸손히 알아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 국민은 창의력을 발휘해 일하고 공동선에 이바지했으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도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천문학과 농업, 의학에서 의미 있는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수고와 희생인 집안일, 동네 아이들에게 마테차를 끓여 주려고 기꺼이 내어 주는 시간, 밭을 갈고 가꾸고 거두는 데 들이는 긴 노동도 생각합시다. 이런 삶에서 보조성의 원리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국가와 대기업은 지역 공동체와 중간 단체의 주도권이나 역량을 흡수하지 말고 뒷받침하고 키워야 합니다. 교회의 사회사상 전통에서 국가는 가정과 지방 당국, 사회 단체와 운동 같은 중간 단체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돕습니다. 공동선을 위해 필요한 규제 권한을 행사하고 더 작은 단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맡습니다. 비오 11세 교황께서 교회의 사회 교리에 처음 받아들이신 이 원리(회칙 「사십주년」 80항 참조)는 오늘날 정부 활동의 틀이며 국가 간 경제 통합의 여러 방식을 이끄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대중 운동과 민중 경제, 폐지 수거인이나 농민이나 수공업자 같은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대중 운동에 하신 연설에서 옹호하신 이 보조성 원리를 실제로 보여 줍니다. 이들은 국가의 지원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현장에서 힘을 모아 공동체의 해법을 마련합니다.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길을 요구하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여러 차례 사회 정의의 요청이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를 옹호합니다. 땅과 집과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벗 여러분, 여러분의 증언을 듣고 여러분 안에서 하느님의 자리가 어떻게 커져 왔는지 발견하는 일은 큰 힘이 됩니다. 겸손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혼자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다른 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곁에 있는 이들과 기꺼이 협력할 때 비로소 모두가 힘을 모아 더 나은 세상을 일굴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저마다 고유하게 창조하셨듯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를 거십니다. 동시에 당신과, 또 서로 관계를 맺어 친교를 이루도록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에 바라는 하나 된 아르헨티나를 세우는 길입니다. 「모든 형제들」의 표현대로 참된 '사회적 우애'는 서로 대립하는 양극화를 넘어, 국내에서도 여러 나라 사이에서도 정의와 대화에 기초한 평화를 세웁니다.

기업계에서 엔리케 쇼 가경자의 삶은 우리에게 강한 울림을 줍니다. 그는 교회의 사회 교리에 드러난 복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회심한 가톨릭 기업인입니다. 앞으로 복자로 선포될 그는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은 단순한 생산 기구나 자본을 축적하는 수단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참된 공동체임을 깨달았습니다"(아르헨티나 제31차 산업 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2025년 9월 8일). 그가 설립에 기여한 이 대학은 그의 사상을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 뜻은 자신의 말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기업인을 양성하고 삶의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마다 자기 일터에서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 이것은 신앙과 삶의 사명입니다. 직업을 통해 성화되고 직업 자체를 성화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개인 기록과 수첩』 58쪽).

자본을 들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인들은 흔히 자기 재산을 걸기도 합니다. 스스로 뛰어들어, 우리 힘으로는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한 나라의 부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마음의 병"이라고 하신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일반 알현, 2024년 1월 24일). 재산과 자본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원리에 따라 살아갈 때 기업인의 소명은 고귀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성공의 유일한 잣대로 절대화하면 기업은 인간다움을 잃고 배제를 낳는 죄의 구조가 됩니다. 기업인은 환경의 지속 가능성과 노동의 존엄을 앞세우는 윤리적 투자로 이러한 기술 지배의 논리를 뒤집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재정적 성공도 공동선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 109항 참조).

노동조합과 노동자 단체들도 이 점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여지가 큽니다. 노동자들이 존엄에 걸맞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욱 직접 나서는 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겨난 활동들은 […] 노동법을 개선하고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며 더욱 인간다운 노동 조건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했습니다"(회칙 「고귀한 인류」 155항). 노동조합의 고유한 사명은 연대와 결속의 도구가 되고, 노동자와 기업이 협력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들을 옹호하고 노동력을 상품으로만 여기는 데 맞설 때 노동조합은 없어서는 안 될 제도입니다. 이런 도덕적 권위를 지키려면 노동계의 큰 변화를 헤아리면서 늘 삶의 변두리를 바라보고, 고용이 불안정한 이들,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거나 제도권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다리를 놓아 그들도 함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규제 없는 자동화는 수많은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고 온전한 인간 발전에 실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윤리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알고리즘은 인간의 식별이나 노동자가 현장에서 직접 애쓰는 일의 고유한 가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 107항 참조). 공권력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모든 이가 일할 기회를 얻는 것은 계속해서 공공 정책과 경제 활동의 우선 목표여야 하며, 어떤 발전 모형이 얼마나 인간다운지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회칙 「고귀한 인류」 154항). 경제와 시장과 국가가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기회를 공정하게 재분배하는 윤리적 틀 안에서, 완전 고용과 사회적 포용을 장려하는 안정된 정책을 추진하는 일에는 공공 당국의 헌신이 필수적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일터에서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며 곁에 있는 이들의 필요를 살피도록 부르십니다. 도시와 농촌의 변두리에서 고통받는 이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은 「모든 형제들」이 제시하는 정치적 사랑의 핵심입니다. 형제애는 헛된 이상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형제애는 세계화된 무관심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동등한 이로 바라보도록 요구합니다(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 73항 참조). 일상의 일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시는 그리스도를 피하지 맙시다. 하느님 눈에는 사소한 일이 없습니다. 일의 위대함은 무엇을 이루었는가보다 몸짓 하나, 말 한마디, 생각 하나에 얼마나 사랑을 담았는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크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여러분에게 교회의 사회 교리가 솟아난 원리들을 과제로 남깁니다.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고 공동선을 증진하며 재화의 보편적 목적을 인정하십시오. 실질적인 연대와 책임 있는 보조성을 실천하여 함께 사랑의 문명을 건설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에서는 늘 하느님을 바라보고, 결정을 내릴 때는 사람을 그 중심에 두며 꾸준히 일합시다”(회칙 「고귀한 인류」 16항).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길을 이 땅에서 걷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노동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길이 남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요한 15,16 참조).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부에노스아이레스 · 11월 9일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과의 만남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연설
산 마르틴 궁전 (부에노스아이레스)
2026년 11월 9일 월요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한 분이신 하느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벗 여러분, 여러 종교 전통을 대표하시는 여러분,

이번 사도 순방 중에 여러분을 만나 인사드리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우리의 만남은 대화와 우정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에서 근본이 되었으며, 우리도 우리가 사는 사회에 새로운 협력의 길, 새로운 다리를 놓아 이를 더욱 튼튼히 하고자 합니다. 저 역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 여러분 가운데 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참하느님이시며 참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마태 16,16)으로 고백하며, 여러 그리스도교 교파 형제자매들과 세례로 하나임을 인정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을 잇는 영적 유대(비그리스도교 선언 「우리 시대」 4항 참조), 그리고 다양한 종교 전통 안에 깃든 거룩하고 참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같은 문헌 2항 참조).

아르헨티나 국민의 정체성은 여러 민족과 문화와 종교가 어우러지며 형성되었습니다. 원주민과, 여러 세기에 걸쳐 꿈과 신앙을 여행 가방에 담고 세계 여러 곳에서 이 땅으로 건너온 수많은 이민자가 그것을 형성했습니다. 처음에는 가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 유다인이었고, 뒤이어 더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지역 전통과 놀라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하고,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고, 정착지와 마을을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요한 바오로 2세 성인, 파라나 공항 미사 강론, 1987년 4월 9일). 그들은 이 나라를 하나로 모아 공동의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 가운데서 종교는 사람을 가르는 구실이 되지 않고, 만나고 사회에 헌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 자기가 믿는 바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문화적 가치와 선행을 함께 나누려고 손을 내미는 방식으로 그 믿음을 살기로 합니다. 우리 교류의 바탕에는 경청이 있습니다. 경청할 때 서로를 알게 되고, 우리가 날마다 하는 한 가지 행위를 함께 돌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전통에 따라 수많은 언어와 노래와 몸짓이 저 높은 곳을 향해 모여들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존재의 신비 앞에서 서로 만나는 듯합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비그리스도교 선언 「우리 시대」 1항 참조).

사람의 말 가운데서도 특별한 말인 기도는 우리가 하는 말과 함께 서로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도록 초대합니다. 하느님께 말씀드릴 때 목소리를 내는 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종교적 삶은 우리 존재와 생각과 감정과 관계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기도는 분심을 이기고 침묵 속에서 경청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저는 이 체험을 유심히 바라보며, 각자의 신앙이 목소리를 얻는 진솔한 기도에서 드러나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종교는 인간 존엄을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표현하며, 희망을 가꾸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갈망하는 존재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을 갈망합니다. 폐가 공기를 찾듯 양심은 선을 지향합니다. 날마다 물을 찾듯 진리를 찾고, 양식이 필요하듯 정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 점에서 종교는 우리가 물질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 육신에는 넘치는 생명과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외침과 간청이 되는 이 갈망은 우리가 무에서 비롯된 존재도, 죽음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도 아님을 증언합니다. 종교는 이렇게 인간의 존엄을 지킵니다. 신앙을 표현하는 기도 안에서 선과 정의, 건강과 평화의 이상은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채워야 할 빈말이 아니라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의 의지를 드러내는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곁에 사는 이들을 보살피고, 형제애를 새롭게 하여 우리가 하는 말이 참되게 합시다. 생명의 선물을 주신 하느님을 찬미하며, 잉태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언제나 지킵시다. 특히 빈곤과 폭력이 생명을 위협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종교는 이렇게 가정과 배움터,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모든 사람의 존엄을 드높입니다.

둘째로,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하느님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동산'을 우리 손으로 파괴하지 맙시다! 종교는 민족들의 지혜를 지키는 만큼 사회를 건설하고 양심을 교육하며 우상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남들의 하느님이 아니므로 지배의 우상에서, 소유물이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므로 허영의 우상에서, 역사의 주님이시며 심판자이신 분은 한 분뿐이시므로 전쟁의 우상에서 벗어납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생명을 주시고 모든 민족을 돌보십니다. 그 권능의 참이름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우리도 세상에 그 선물의 표징이 되도록 힘씁시다. 종교는 이렇게 우리의 자유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셋째, 하느님께 말을 건네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 마음을 엽니다. 미래는 신앙의 시간입니다! 종교는 세대를 잇는 유대이며 오랜 기억과 예언과 기다림과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언제나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신앙의 빛이 죽음의 어둠을 가르면 한 사람 한 사람과 사회와 온 세상의 미래에 희망이 돌아옵니다. 이 희망은 외로움에서 벗어나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만나도록 좋은 삶의 유대를 엮게 하므로, 우리의 기다림은 함께 땀 흘려 일하는 시간이 됩니다. '종교'라는 말 자체가 이를 잘 보여 줍니다. 서로 이어 사람과 사람을 묶는다는 뜻의 라틴어 '렐리가레'(religare)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관계가 역사 속 여정을 떠받칩니다. 희망을 선물로 주신 하느님을 찬미하며, 가난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 삶의 의미를 잃은 이들, 정의에 따라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힘쓰는 이들과 희망을 나눕시다. 우리의 말이 기도와 선포가 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북돋우는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역사가 복되게 완성되기를 기다리며 인류를 위해 모든 이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사람은 참으로 자신을 알고 자신이 지닌 존엄을 돌볼수록 하느님께 가까이 간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

로 만나는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이웃에게 하는 선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을 평화로 부르시는 정의의 주님께서 언제나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로 올라갑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진실한 기도가 대립이나 상대를 업신여기는 데 이르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로 이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 주고 싶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각자는 상대주의나 종교 혼합주의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증언하고 선포해야 할 의무를 더 깊이 깨닫습니다.”(2002년 1월 24일 아시시, 세계 여러 종교 대표들에게 한 연설) 평화의 기도 날에 아시시에서 하신 이 말씀은 지금도 절실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모두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각자의 길을 걸으며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날이 되어 우리가 나누도록 하느님께 받은 존엄과 선이 우리 모든 이의 삶에 드러나기를 빕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남기시어 우리가 선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기도를 우리 자신의 기도로 바칩시다.

“인류의 주님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느님, 모든 사람을 같은 존엄으로 창조하셨으니 저희 마음에 형제애의 정신을 부어 주소서. 다시 만나 대화하고 정의와 평화를 이룰 꿈을 저희에게 불어넣어 주소서. 굶주림도 빈곤도 폭력도 전쟁도 없는, 더 건강한 사회와 더 존엄한 세상을 세우도록 저희를 재촉하소서.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에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주님께서 저마다에게 심어 주신 선과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일치의 유대를 굳게 하며 계획과 희망을 함께 나누게 하소서. 아멘”(회칙 「모든 형제들」 287항).

전능하신 분께서 인류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축복하시고 평화를 위한 우리의 헌신을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 평화는 하느님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부에노스아이레스 · 11월 9일

아르헨티나 주교단 및 시노드 팀과 함께 바친 저녁기도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강론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주교좌성당 (부에노스아이레스)
2026년 11월 9일 월요일

교황 성하의 강론

존경하는 추기경님들과 주교님들, 사랑하는 시노드 팀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여러분,

이 기도 시간에 생각으로나마 이 아름다운 나라의 여러 지방을 함께 돌아보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각 주에서 우리의 신앙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뿌리를 내려,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일치를 간직하면서 저마다 고유한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습을 꽃피웠습니다. 북서부의 소박한 믿음과 뿌리 깊은 신심을 떠올려 봅시다. 큰 강이 흐르고 들마다 미래를 심는 강변 지방으로 가 봅시다. 북동부에서는 경이로운 폭포와, 남아메리카 남부 전역의 풍습을 특징짓는 드넓은 마테나무 밭에 감탄해 봅시다. 쿠요에 다가가면 포도밭이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팜파스를 지나며 땅을 일구는 이들의 지혜를 소중히 여깁시다. 산줄기를 따라 올라 높은 곳에서 피조물이 주는 선물을 바라봅시다. 추위와 사막도 신앙의 따뜻한 환대를 가로막지 못하는 남쪽으로 가 봅시다.

이처럼 다양한 지리와 문화 안에서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어머니를 만납니다. 사람들은 행렬과 순례로,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신앙과 서원의 길을 가며, 어머니의 이름을 기리는 시와 기도와 노래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저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기적의 성모, 골짜기의 성모, 묵주 기도의 성모, 이타티의 성모, 루한의 성모 등 여러 호칭으로 마리아를 공경합니다. 사도들과 한마음으로 기도하셨던 성모님께서는(사도 1,14 참조) 오늘도 당신 아드님을 선포하는 교회와 동행하십니다. 성모님의 이 땅 곳곳에는 큰 도시부터 가장 작은 마을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고 싶어 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도 순방의 표어가 특별한 뜻을 지닙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가서 선포하십시오!’

마음으로 이 나라를 두루 돌아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을 새롭게 하였으니, 이제 우리가 모인 이 대성당으로 시선을 돌립시다. “로마와 전 세계 모든 성당의 어머니요 으뜸”인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의 제2저녁기도를 이 아름다운 삼위일체 주교좌대성당에서 바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의 어머니인 이곳에는 ‘조국의 아버지’ 호세 프란시스코 데 산 마르틴 장군의 유해도 안장되어 있습니다.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은 모퉁잇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의 신비를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 있는 돌로서 영적인 집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1베드 2,4-5 참조). 라테라노 대성전이 로마 주교의 주교좌성당이기에 이 축일에 베드로 사도좌와 이루는 친교는

특별한 뜻을 지닙니다. 우리가 이 대성당에서 축일을 지내며 그 유대를 더 가까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보편 교회의 목자로 부르심을 받으시기 전에 이곳의 주교좌에 앉으셨습니다. 또한 모든 신자는 신앙과 사랑의 일치를 살아가며, 세례로 받은 저마다의 은사를 온 교회를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초대받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신비에서 비롯한 이 친교는 주교들을 서로 하나로 묶고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시킵니다. 이 친교는 개별 교회에서도 드러납니다. 주교는 사제단과 자신에게 맡겨진 신자들과 함께 신앙과 사랑의 일치를 지키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인류의 빛」 23항 참조).

이와 관련하여 마메르토 에스키우, 엔리케 안헬렐리, 에두아르도 피로니오 복자처럼 일치와 평화를 위해 힘쓴 훌륭한 아르헨티나 주교들의 증언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의 사명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보여 주며, 우리 교회 역사에서 태어난 목자들의 학교를 이룹니다. 성인들은 계속해서 성인들을 길러 냅니다(히브 13,7 참조)”(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주교들에게 보낸 서한, 2026년 9월 8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분 안에서 “성사와 같습니다.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일치와 온 인류의 일치를 드러내고 이루는 표징이며 도구입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인류의 빛」 1항) 선물로 받은 이 일치는 우리가 서로 화해하도록 이끕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다시 만나는 이 주교좌성당 정면의 부조는, 사람들이 분열의 씨를 뿌린 곳에서도 하느님께서 생명의 길을 여신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형제들 때문에 고통받은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고, 자신을 해친 이들에게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요셉 자신도 고통스러운 이야기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음을 알아봅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창세 50,20) 화해하려면 상처를 알아보고 원한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관계를 변화시키게 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이와 멀리 있는 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알고 서로를 형제자매로 알아보도록 쉼 없이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목 사명입니다.

이 땅의 다양성은 저마다 고유한 전통과 사목 방식을 지닌 개별 교회들에서도 드러납니다. 그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으로 현존하고 활동합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주교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 11항). 이 다양성은 같은 신앙과 성사와 교회의 친교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개별 교회들은 모두 복음의 기쁨이 모든 이에게 가닿도록 교회의 사명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정당한 차이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형제애를 키우며 친교를 지킵시다. 우리의 일치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많은 이가 그분을 만나도록 돕게 합시다.

사랑하는 주교님 여러분, 최근 여러분께 편지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하루를 채우는 수많은 책임 가운데서도 우리가 파견된 까닭은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주교들에게 보낸 서한, 2026년 9월 8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 언제나 모든 사목 활동의 중심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목 봉사자 양성과 첫 복음 선포, 교리 교육, 전례와 사랑

의 실천을 계속 북돋웁시다. 서로 힘을 모아 사제·수도 성소를 키우고, 가정과 동행하며, 가난하거나 일자리가 없거나 사람답게 살 집이 없는 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2코린 5,14).

어머니인 교회의 보살핌은 마리아에게서 아름다운 모범을 찾습니다.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마리아는 신랑 신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시고 예수님께 그 사정을 말씀드린 뒤 일꾼들에게 그분 말씀대로 하라고 이르셨습니다(요한 2,3-5 참조). 목자들의 직무에도 바로 그 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목자들은 맡겨진 이들의 구체적인 처지를 듣고 헤아리며 현실을 복음에 비추어 식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실업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는 청년, 홀로 방치된 어르신, 소외된 공동체를 생각하십시오.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도 내심 하느님과 삶의 의미와 희망을 절실히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얼굴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백성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도움을 청하는 상황에서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곁에 머물며 행동으로 응답하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형제 주교님들, 여러분의 사목에 맡겨진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뒷받침해 주십시오. 정직한 노동, 어려운 이들에 대한 보살핌, 공동선에 책임 있게 봉사하는 제도 등 백성의 삶을 북돋우는 모든 일을 기뻐하십시오. 교회와 시민사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한 발전을 위해 일하는 이들과도 동행하십시오. 방금 짧은 독서에서 묵상한 천상 예루살렘을 기다리며, 영원한 선에 대한 희망에 힘입어 이 땅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형제애를 가꿉시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39항 참조).

여러분이 시노드 팀과 함께 서로에게 계속 귀 기울이기를 권고합니다. 한 분이신 스승을 함께 따르는 제자로서, 오늘의 아르헨티나를 섬기기 위해 성령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함께 식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비추시고 힘을 주시어, 각 사람의 존엄에 대한 존중,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대한 헌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피조물에 대한 돌봄이 구체적인 결정으로 이어지기를 빕니다(회칙 「고귀한 인류」 14항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아파레시다 성모 성지를 방문하셨을 때,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주교단 제5차 총회에서 겪으신 일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제자직과 선교를 주제로 일하던 주교들이 날마다 성모님께 삶을 맡겨 드리러 오는 수천 명의 순례자에게서 얼마나 격려와 지지를 받고, 어떤 의미에서는 영감을 얻었는지 직접 보았습니다.”(2013년 7월 24일 아파레시다 미사 강론) 지금 우리 모두가 계속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밝게 길을 비추는 「아파레시다 문헌」의 가르침을 따라 일해 가기를 권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우리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사람들 가운데 하느님의 거처라 부르기에 참으로 합당하십니다. 그 태중에 사람이 되신 영원한 말씀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장차 영광 속에 완성될 교회의 모습이며 시작이신 마리아 안에서, 하느님께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당신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사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약속된 기쁨을 미리 봅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인류의 빛」 68항 참조). 성모님에게서 하느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

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 자녀들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법을 배웁니다(성 바오로 6세, 교황 권고 「마리아 공경」 21항 참조). 성모님과 함께 언젠가 부정한 것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룩한 도성에 살고 싶습니다(묵시 21,27 참조).

우리의 근심과 열망, 우리의 직무와 사목 사명을 성모님께 맡겨 드립시다.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그러셨듯이 아드님께 전구하시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특히 끊임없이 회개하는 은총을 얻어 주시기를 청합시다. 그 은총이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그분 나라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도록 준비시켜 주기를 빕니다. 아멘.

주교단과 저녁 식사에 앞서 주교좌성당 밖에서 전한 즉석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열정입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박수를 보내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여러분. 저를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님의 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의 마음에 가닿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기쁨을 언제나 간직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쁜 소식을 기쁘게 선포하도록 파견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그리스도 만세!

목차로 돌아가기

부에노스아이레스 · 11월 10일

청년들과 함께한 밤샘 기도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연설
스페인인 기념비 (부에노스아이레스)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교황 성하의 답변

1. 아구스티나 플로레스의 질문 — 교황 성하, 가장 소외된 이들에게 찾아가도 바라는 만큼 곁에 있어 주지 못할 때 느끼는 좌절과 한계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그들과 계속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저녁 인사를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멋진 환영입니까! 아마 아르헨티나에서만 받을 수 있는 환영이겠지요. 감사합니다!

아구스티나, 질문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 아이들 곁에 사랑으로 머물러 주어서도 고맙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이해합니다. 힘든 일이지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모든 것이 실제로 하느님께 달려 있음을 알면서도 마치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 있는 듯 행동하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페드로 데 리바데네이라, 『성 이냐시오의 생애』 제5권 11장 참조).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다른 이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십시오. 힘이 다했을 때 하느님의 힘은 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사람이 자는 동안에도 자라나는 씨앗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르 4,26-27 참조). 우리가 뿌린 씨의 열매를 언제나 직접 보지는 못해도, 하느님께서 계속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사리아 성녀의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앞으로, 언제나 앞으로!" 주님께서 함께 걸으십니다!

2. 프랑코 풀리에세의 질문 — 교황 성하, 본당과 가정에서 실천하는 사랑을 직장의 책임이나 날마다 해야 하는 여러 일과 어떻게 하나로 이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증언과 질문에 제가 직접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과달루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헌 생활이나 사제직을 통해, 또 가정생활을 통해 그리스도께 삶을 바치고 싶어 하는 젊은이가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응답하십시오!

프랑코, 질문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손수 일하시며 한 가정의 삶을 나누신 세월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바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당신을 만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위한 삶과 할 일을 위한 삶이 서로 맞서거나 충돌하기라도 하듯 두 가지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 사랑을 담아 주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러면 일도 기도가 되고 성덕에 이르는 길

이 됩니다. 프랑코, 성찬례에 참여할 때마다 삶 전체를 제대에 가져가십시오. 그런 다음 일상으로 기쁘게 돌아가십시오.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황 성하의 연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사랑하는 벗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곳을 다시 찾아, 이번에는 여러분을 만나니 얼마나 기쁜지요! 좋은 저녁입니다! 스페인인 기념비에는 아르헨티나의 네 큰 지역, 안데스와 차코, 팜파와 라플라타강을 나타내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많은 젊은이가 그곳들을 대표하여 모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과 증언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도시의 대주교이신 가르시아 쿠에르바 대주교님의 인사 말씀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촛불이라는 표징으로 이 만남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봅시다.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루카 12,49) 이 불은 성령을 통하여 전해지는 예수님의 사랑의 불입니다. 그 불은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또 다른 불, 바빌론의 불가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난야와 아자르야와 미사엘이라는 세 젊은이의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다니 1,3-7.17-20과 2,49 및 3,1-93 참조). 그들은 그 땅에 유배되어 다른 말을 배우고 새 이름을 받았으며 왕국의 행정을 맡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미래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에게 자기 마음을 바칠지 선택해야 할 날이 왔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거대한 금상을 세우고 모두 그 앞에 엎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절하지 않는 이는 타오르는 불가마에 던져질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군중이 거대한 상 앞에 엎드리는데 세 젊은이만 꼿꼿이 서 있습니다.

임금은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몸짓 한 번이면 조용히 살던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불에서 구해 주실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다니 3,18) 그 상을 섬기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대답에는 얼마나 큰 자유가 담겨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습니다. 어떤 벌이 기다리는지는 알았지만,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벗 여러분, 오늘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루려는 성공, 돈, 외모에 대한 집착, 인기, 절제 없는 쾌락의 추구 등 우리의 경배를 요구하는 우상이 솟아납니다. 남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배신하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다른 이를 모욕할 때도 있습니다. 시기심은 남이 잘되는 일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이기심은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게 합니다. 음란물과 여러 약물처럼 결국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쾌락으로 돈을 버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구스틴은 우리에게 “오늘

저는 두 발로 서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바빌론의 세 젊은이를 떠올리면 이 말이 얼마나 더 힘 있게 들립니까! 여러분도 우리 시대의 우상 앞에서 꼿꼿이 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혹시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하신 말씀이 온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모두, 모두"(환영식, 2023년 8월 3일). 혹시라도 못 들은 이가 없도록 하시려는 듯 그분 특유의 힘주어 되풀이하는 어조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두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모두 그리스도처럼!

첫째, 모두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려서부터 예수님 가까이 지낸 이도, 이제 막 그분을 찾기 시작한 이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거나 교회에서 멀어진 이, 곁에서 함께 걸어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이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음과 상처, 살아온 이야기까지 모두 가지고 오십시오. 여기는 여러분의 집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필요도, 삶의 문제가 다 풀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저는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든, 무엇을 했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시며 곁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앞서 들었듯이 과달루페의 삶을 바꾼 것은 "이미 늦었다고 누가 말했나요?"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밤, 너무 멀리 떠나왔다고 생각하는 이들과 언젠가 누군가에게서 교회에 자기 자리가 없다는 느낌을 받은 이들에게 그 질문을 다시 들려주고 싶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도 찾고 계십니다! 자캐오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랐는데,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찾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을 불러 주시고 그의 집에 묵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자캐오는 자신이 저지른 불의를 바로잡았습니다(루카 19,1-10 참조). 아무리 깊이 떨어졌어도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실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늘 문을 열어 두고, 물음을 안고 오는 이를 맞아들이며, 고통받는 이를 돕고, 하느님을 찾는 이와 인내로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빌론으로 돌아갑시다. 세 젊은이는 묶인 채 불가마에 던져졌습니다. 불길이 몹시 거세어 형을 집행하던 사람들까지 덮쳤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불길 속을 자유롭게 걷는 네 사람이 보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묶인 채 던져진 이들이 이제 자유롭게 걷고 있습니다! 임금은 그들을 불에 태우라고 판결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두 번째 '모두'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때 하신 일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압니다.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굴복했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 주시고 사

흔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그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 생명에 참여하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 끝 날까지 제자들 곁에 머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태 28,20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조차 여러분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을 주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 마음을 움직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자르야는 불가마에서 기도를 바쳤습니다. "저희의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보시어 저희를 받아 주소서"(다니 3,39 참조). 임금에게 굴하지 않았던 그 젊은이는 정작 하느님 앞에서는 자신에게 자비가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선과 우리가 실제로 내리는 결정 사이에 때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모두 압니다.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죄의 포로로 그대로 두시기에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그분께서 가져오신 불은 우리를 옭아매는 사슬을 끊고 사랑할 자유를 되찾아 줄 힘이 있습니다. 치유해야 할 상처와 인정해야 할 잘못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바로잡아야 할 악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도록 자신을 맡기십시오! 고해성사에 다가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입니까! 기도하고 복음을 읽으며 성체성사에 다가가십시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신 분께서 그곳에서 기다리십니다.

불가마 한가운데서 세 젊은이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별에게, 산과 강과 모든 생물에게 주님을 찬미하라고 초대했습니다. 심지어 "불과 열아, 주님을 찬미하여라"(다니 3,66) 하고 노래했습니다. 자신들을 둘러싼 바로 그 불에게도 함께 찬미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노래는 온 피조물을 아우를 때까지 넓게 퍼져 갔습니다. 저는 그 노래가 지금도 계속되고 세대마다 거기에 자기 목소리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찬미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과 문화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놀이와 운동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과학과 기술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소셜 미디어와 화면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음악과 축구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찬미하고 영원히 찬송하여라!

이야기의 처음에 임금은 모두 자기 상에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지막에 젊은이들은 모두에게 주님을 찬미하자고 초대합니다. 임금은 사람들이 절하게 하려고 위협해야 했지만, 믿음밖에 아무 힘도 없던 젊은이들은 온 우주를 자기들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모두'에 이릅니다. 모두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분처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1요한 2,6 참조). 오늘 저녁 저는 바로 그 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인이 되십시오! 성인들도 자신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요한 13,34). 그 '처럼'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그들 앞에 무릎 꿇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모든 이의 주님께서 모든 이를 섬기는 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형제자매의 발을 씻어 줄 수 있습니다. 배고픈 이와 빵을 나누고, 집 없는 이에게 문을 열며, 병든 이와 아무도 찾아가지 않으려는 이를 찾아가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도 있습니다. 조언이나 바로잡아 주는 말이 필요한 사람,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어 우리가 그분을 닮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자비의 잉크로 쓰인 복음서의 한 쪽이 되어, 여러분을 만나는 이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알아보기 바랍니다.

그 기쁨은 그분과의 우정에서 솟아나고 우리를 재촉하여 다른 이들에게 그분을 전하게 합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을 기억하십시오. 빵을 떼실 때 부활하신 분을 알아본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루카 24,32) 바로 그날 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는 기쁨을 자기들끼리만 간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여러분에게 '모두 환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우리 표어의 둘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가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도시와 마을로, 구석구석 변두리까지 가십시오. 하느님에게서 멀다고 느끼는 이들이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찾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잠시 뒤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들을 두루 찾아갈 십자가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건너갈 때, 그리스도 사랑의 불길도 한 마음에서 다른 마음으로 옮겨 가기를 빕니다. 루한의 성모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이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모두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모두 그리스도처럼! 가서 선포하십시오!

목차로 돌아가기

부에노스아이레스 · 11월 11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연방 교도소 방문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인사말
연방 교도소 (부에노스아이레스)
2026년 11월 11일 수요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해 매우 기쁩니다. 저를 맞아 주시고 이런 만남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 호르헤 가르시아 쿠에르바 대주교님과 치안 장관님, 법무 장관님, 교정 당국 책임자에게 감사드립니다. 교정 사목을 맡은 사제들과 마티아스 신부님, 그리고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증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 삶이 가능하다는 이 소식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희망입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크리스티안, 막시밀리아노, 레이날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누구나 겪는 한 가지, 곧 한계의 경험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회는 종종 무능력과 질병과 노년과 고통 같은 한계를 고쳐야 할 결함으로 여깁니다. 온갖 가능성을 내세우며, 어떻게든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듯 말합니다(회칙 「고귀한 인류」 118항 참조).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어두운 현실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약이 주는 전능감, 쉽게 번 돈에서 얻는 거짓 권력,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비겁한 안도감, 부패에서 오는 처벌 면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죄와 그 결과를 통하여 한계를 깨닫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나 병으로 고통받거나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해가 지나는 동안 우리는 흉터처럼 새겨진 가르침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자유와 넘어짐, 꿈과 실망을 오가며 걸어온 길의 기억입니다."(같은 문헌 120항)

인간의 마음을 에워싸는 악은 사회와 많은 이의 삶을 망가뜨리고, 때로는 인간다움을 완전히 잃는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간다움을 잃고 비극을 일으킬 때에도 빛 한 줄기가 계속 비칩니다. […] 그 빛은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 회개와 화해의 길을 걸으며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같은 문헌 121항)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겪었거나 일으켰을지 모르는 가장 깊은 악과 고통과 실패 가운데서도, 지금 겪는 상황은 삶을 다시 시작할 특별한 때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의 증언이 그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인간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라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한계를 통과하며 자라는 때가 많습니다(같은 문헌 118항 참조). 우리 삶의 한계가 절실하게 느껴질 때 새로운 지혜를 얻고, 사람들의 애정을 느끼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같은 문헌 119항 참조).

이곳에 머무는 시간이 하느님과 화해하고 가정과 사회에 두려움 없이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계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인간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의 얼굴을 알아보는 데 마음을 열게 됩니다."(같은 문헌 122항)

이곳의 구조와 운영 방식은 한계가 얼마나 가혹한지 드러냅니다. 자유롭게 나갈 수 없고 자녀를 날마다 안아 줄 수 없으며 다른 여러 가지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그리워, 또는 상처를 주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제때 여러분을 믿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가도록 도와줄 손길을 만나지 못하여 실망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 모든 일이 아물지 않을 상처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옥이 깊은 변화와 회개의 자리, 사람이 성장하고 배우며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얻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인간의 약함을 경험하고도 메말랐던 삶을 열매 맺는 정원으로 바꾼 이들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불빛은 밖으로도 뻗어 여러분의 가정과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과 온 사회를 비춥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합니다. 가족들도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줄기 빛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빛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에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수용자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시면서 당신 자신을 갇힌 이와 동일시하셨습니다(마태 25,36 참조). 그분도 우리를 구원하시려 목숨을 내어 주시기 전에 아무 죄 없이 자유를 빼앗기셨습니다(요한 18,12 참조). 그러므로 감옥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바로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사로잡히신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굳셈과 지혜를 주시도록 청합시다. 외롭고 고립된 이 시간이 헛되지 않고 은총과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티토 2,11 참조).

교정 당국 직원과 이 나라 교도소에서 일하는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교도소를 방문하는 사목 봉사자들께 말씀드립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폭력의 여러 모습 속에서 되살아나는 속임수와 부패, 죽음을 낳는 '죄의 구조'(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 36항)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도전은 성장하고 난관을 이겨 낼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수감된 이들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자비의 일임을 기억합시다. 날마다 만나는 많은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굳건해지고 그리스도인의 희망에 닻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여 이곳이 더 인간을 존중하는 자리가 되고, 사람들이 회복하여 공동체에 돌아가도록 참으로 돕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 당국과 아르헨티나 사회 전체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에 연민과 타인의 필요에 대한 진실한 관심과 너그러움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회칙 「고귀한 인류」 119항) 우리는 한 인류 가족의 일원입니다. 모두의 선익에 이바지하는 것을 북돋우고, 특히 어린이와 청년 곁에 머물러 참된 가치를 가르치고 돌보고 보호하여 범죄의 해로운 그물에 빠지지 않게 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자비의 성모님께서 하늘의 망토로 여러분 모두를 보호해 주시기를 빕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고 그 강복이 영원히 머무르게 하소서. 아멘.

목차로 돌아가기

코르도바 · 11월 10일

코르도바 미사 강론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강론
공군사관학교 야외 광장 (코르도바)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교황 성하의 강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역사를 거쳐 베드로의 후계자들에게서 거듭 울려 퍼지는 그의 신앙 고백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은 오늘도 생생하며, 이제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수많은 신앙의 형제자매들이 전구로 우리를 뒷받침합니다. 지금 우리를 맞아 주는 이 땅에 성덕의 열매가 풍성했던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은 이들의 모범은 그들처럼 살고 목숨을 내놓으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고 그들은 그분을 온전히 본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처음 세워진 주교좌의 유산을 이어받은 코르도바는 성인들의 땅입니다. 이곳의 수도원과 성당, 거리와 병원에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어 준 이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브로체로 신부와 '마마 안툴라'를 비롯하여 아르헨티나에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선교에 파견된 남녀가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복음화의 일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을지 그들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저 종이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루카 17,10 참조).

주님께서 우리 저마다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일은 기쁜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덕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언제나 선교가 따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아본 아름다움을 이웃에게 알려야 합니다(묵상한 것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일, contemplata aliis tradere). 그리스도인으로서 "건전한 가르침에 맞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티토 2,1). 오늘 전례에서 기념하며 저 자신을 그 보호에 맡겨 드리는 대 레오 성인의 이 권고를 저의 말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대의 존엄을 알아보십시오. 타락한 삶으로 예전의 비천함에 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어느 머리와 어느 몸의 지체인지 기억하십시오.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빛과 하느님 나라로 옮겨졌음을 명심하십시오."(주님 성탄 제1강론, PL 54, 192-193)

자기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보다 더 나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삶으로 투신하고 기도로 증언하기를 기대합니다"(요한 바오로 2세 성인, 부에노스아이레스 벨레스 사르스필드 경기

장 미사 강론, 1987년 4월 10일). 그러려면 한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인들의 증언이며 어려움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살게 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지리적 중심인 코르도바에서, 주님께서 아르헨티나로 보내시어 이곳에서 태어나거나 삶의 많은 시간을 보낸 이들이 맺은 여러 성덕의 열매를 두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코르도바의 산들이 조화롭고 다채로운 모습과 빛깔로 아름답듯이, 성인과 복자들도 저마다 다른 은사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세례받은 모든 이가 거룩해지도록, 곧 그리스도를 닮도록 부름받았음을 여러 목소리로 보여 줍니다. 아르헨티나의 빛깔을 지닌 성인들에게서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형제애와 연대가 살아 있는 나라를 세우려는 헌신이 하나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모두 그 시대의 도전을 받아들여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을 만하고 살아 있게 증언하는 삶으로 빚어 갔습니다.

먼저 호세 가브리엘 델 로사리오 브로체로 성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합시다. 이 사제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기도에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그리스도를 닮게 했습니다. 우리가 화답송에서 바친 “주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고”(시편 37(36),3)라는 기도가 그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정을 아는 이라야 이런 사도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줄 아는 이라야 십자고상과 묵주만을 손에 쥔 채 복음을 선포하는 데 힘을 아낌없이 쏟고, 사랑과 정의의 그 나라를 넓혀 갈 수 있습니다.

이냐시오 영성에 마음을 빼앗긴 마리아 안토니아 데 파스 이 피게로아는 관상과 이웃을 돕는 일을 하나로 엮을 줄 알았습니다. 그는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랑이 그를 하느님께 가까이 이끄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존경하는 전임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일깨우셨듯이, 가난한 이들에게는 하느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지닌 힘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2019년 6월 13일 제3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 8항 참조). 같은 영감에 힘입은 마마 안툴라는 수많은 이에게 하늘로 가는 길을 보여 주려고 이 나라를 쉴 새 없이 걸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하느님을 모르는 곳까지 가서 그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성인, 두 모범,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두 가지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 고장에서 그분께서 친히 일으켜 주신 이들입니다.

이들과 더불어 목숨을 바치기까지 신앙을 고백한 순교자들을 두고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엑토르 발디비엘소 사에스 성인, 스페인 내전 중에,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라리오하주와 살타주에서 순교한 복자들이 그러합니다.

당신 마음에 드는 목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메르토 에스키우 복자와 에두아르도 피로니오 추기경 복자가 그들입니다.

봉헌 생활의 선물에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나사리아 이그나시아 성녀와 마리아 델 트란시토 카바니야스 복자, 카탈리나 데 마리아 로드리게스 복자는 수도회를 설립하셨습니다. 마리아 루도비카 데 안젤리스 복자와 크레센시아 페레스 복자를 비롯한 많은 수도자는 뜨거운 사랑으로 어린이를 교육하고 환자를 돌보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충실한 백성은 복음 선포를 받아들이고 소박한 일상에서 하느님과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세례의 소명을 온전히 살아간 평신도들을 기뻐합니다. 아르테미데 자티 성인과 세페리노 나문쿠라 복자, 라우라 비쿠냐 복자가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성인과 복자는 이미 지상에서 사명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분들이 남기신 거룩함의 빛나는 자취를 따릅시다. 아르헨티나 국민과 여러분 모두의 성화를 위해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나아가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1테살 4,3 참조) 학교와 광장에서, 가정과 친구들 사이에서, 농촌과 도시에서, 목장과 사무실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미사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는 분은 '가난하신 그리스도' 성상 속 주님이십니다. 브로체로 신부가 병상에서 직접 조각하도록 청한 이 성상에는 이 민족의 얼굴 생김새가 예술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 눈길이 우리에게 말을 걸도록 마음을 엽시다. 그분 십자가 그늘에서 우리는 구원과 생명,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성 대 레오 교황의 전구로 하느님께서 계속 우리를 축복하시고 언제나 이렇게 고백할 은총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마태 16,16).

대주교관에 도착해 발코니에서 전한 즉석 말씀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이 축일에 신앙의 선물, 그리고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선물을 두고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리에 이렇게 많은 분이 나오셨네요! 맞아 주시고 인사를 건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선물, 이 열정의 선물, 젊은이들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젊은이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선물에도 감사드립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고, 하나라는 것을 언제나 굳게 믿습니다. 하나 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계시고 언제까지나 함께하실 것입니다. 계속 믿음을 살아가십시오! 하느님께서 온 코르도바를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만세!

목차로 돌아가기

코르도바 · 11월 10일

주교·사제·부제·수도자·신학생·사목 봉사자들과의 만남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연설
성모 승천 주교좌성당 (코르도바)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인사 말씀을 해 주신 로시 추기경님, 증언을 나누어 주신 분들, 사랑으로 저를 맞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 참으로 기쁩니다. 봉헌 생활을 하는 분들, 신학생과 사제들, 주님과 그분 백성을 섬기는 데 삶을 바친 모든 세례받은 여러분 말입니다.

마지막 노래를 부를 때 많은 분이 손을 높이 드셨습니다. 저에게 인사하려고, 또는 노래에 맞추려고 그러셨겠지요. 바로 그 손을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이어 가는 데 여러분의 손을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땅의 역사에 깊이 자리한 영신수련이 떠올랐습니다. 마침 마리아 엘리사베트 수녀님도 영신수련의 한 관상에 관해 이야기해 주셔서 기뻤습니다. 영신수련의 전통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을 때 마마 안툴라는 누구나 계속 이 수련을 할 수 있도록 먼 길을 다녔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뒤 브로체로 성인 신부는 영신수련을 사목의 중심에 두고, 고향 사람들이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산을 넘어 이 도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르헨티나의 예수회원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냐시오 영성의 풍요로움을 지니고 가시어 온 교회와 나누셨습니다.

오늘도 사제와 신학생, 수도 공동체와 평신도들이 피정을 떠납니다. 침묵을 지키며 하느님 앞에서 그분께서 자신들의 삶에 무엇을 바라시는지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는 영신수련의 몇 가지 물음과 함께해 봅시다.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원리와 기초'에서 시작하십니다(『영신수련』 23항 참조). 첫째 물음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까? 어떤 책임과 직무와 과업보다 먼저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찾아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분을 따를 만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에 하는 모든 일은 처음에 드린 그 '예'라는 응답에서 늘 새로 솟아나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역설적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계속 봉사하고 전례를 거행하며 필요한 여러 일을 돌보지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보다 우리가 하는 일에 더 기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원리와 기초'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우리 삶은 하느님의 것이며, 다른 모든 일이 그분을 중심으로 삼을 때에야 올바른 질서를 찾습니다. 그러니 소박하게 성체성사로 돌아갑시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다

른 모든 일을 떠받치는 주님과의 친교로 돌아갑시다. 한때 우리의 성소를 밝혔던 불꽃을 잘 지키고, 급한 일이나 피로 또는 타성에 그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합시다.

이어서 영신수련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물음을 만납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이 차츰 제자리를 벗어났습니까? 우리는 어떤 점에서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했습니까?(32-43항 참조) 스승께 '예' 하고 응답한 지 몇 해 또는 여러 해가 흐르면서 예전 같으면 마음이 불편했을 일에도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웃을 모질게 대하거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고, 경쟁심과 치우친 감정, 죄와 집착이 우리 자유를 조금씩 앗아가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사목상의 이유'나 공동체 또는 개인 사정을 내세워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더는 인내심을 가지고 듣지 않을 때, 편한 쪽을 택할 때, 마주해야 할 일 앞에서 침묵할 때가 그렇습니다. 회개가 필요 없는 나이란 없습니다. 양심성찰을 하고 고해성사에 나아가며, 겸손히 바로잡힐 줄 아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서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했는지 분명히 인정하고 그분의 자비 앞에 가져갈 용기를 냅시다.

자기 죄를 똑바로 바라본 뒤에야 이냐시오 성인은 우리를 영원한 임금이신 그리스도 앞에 세웁니다(91-98항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부르시고 파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흙으로 빚어졌는지 알고도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자 하셨습니다(2코린 4,7 참조). 우리가 주님의 기대를 얼마나 저버렸는지 돌아보면서, 지금도 그분을 위해 기꺼이 나설 마음이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성소의 여정에 첫발을 내디딜 때는 대개 모든 것을 내어 드립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좋아하는 일이 생기고, 편히 지낼 곳을 찾고, 내 앞날은 이러해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집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곳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까? 해마다 정성을 쏟아 온 일을 내려놓거나 스스로는 결코 택하지 않았을 일을 받아들이라고 청하실 수 있습니까?

'두 개의 깃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선택'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자유가 차츰 정화됩니다(『영신수련』 136-189항 참조). 무엇이 나를 묶고 내 결정을 좌우하는지, 하느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시도록 어디까지 기꺼이 맡길 수 있는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백성에게 파견되었으니 그들에게 무엇을 내어 주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백성에게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훌리안이 미사에서 발견했듯이, 가진 것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순례하는 교회에는 자녀들의 사회적 필요에 매우 민감하게 응답하는 풍요로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 감수성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너그러이 함께하는 수많은 일이 싹텄습니다. 그 친밀함은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하신 다음 말씀을

기억할 만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겪는 최악의 차별은 영적인 배려의 부족입니다”(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200항).

굶주림과 불의는 절박한 응답을 요구합니다. 질병과 외로움, 일자리와 사람답게 살 집의 부족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 모든 일에 진지하게 투신합니다. 아울러 고통받는 이들은 우리에게서 교회가 지닌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전임 교황께서 특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업체도, 인도적 지원 기관도, 비정부 기구도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도록 파견되었습니다. […] 만일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일 것입니다”(교리 교육, 2013년 10월 23일). 그러니 우리의 소명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스도의 현존을 전하고, 말씀과 성사를 통하여, 또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분의 현존을 알아보도록 곁에 머물러 줌으로써 그분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백성은 교회가 자신들을 위해 여러 세기 동안 간직해 온 것을 여러분에게서 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마친 뒤 영신수련은 피정자들을 수난의 그리스도 곁에 머물게 합니다(190-217항 참조). 주님을 따르기로 한 이는 그 길이 십자가를 지나는 때에도 그분과 함께하는 법을 배웁니다(루카 9,23 참조). 우리 성소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봉사가 힘겨울 때, 첫해의 열정이 더는 충실함을 받쳐 주지 못할 때입니다. 기도가 메말라 가도 계속 기도하고, 아무리 일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여도 계속 봉사하는 힘겨운 충실함을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잘 아십니다. 사제 생활과 봉헌 생활에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자체가 아주 구체적인 봉헌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물음과 피로가 있어도 삶으로 계속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첫 성인인 엑토르 발디비엘소는 이런 충실함의 모범입니다. 겨우 스물네 살에 연례 영신수련을 막 마친 그는, 자신이 하느님 앞에 내놓은 것을 곧바로 시련 속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기도는 증언이 되었고, 그 증언은 마침내 피를 흘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증언하는 다른 길들도 있습니다. 라우라와 마르틴 신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얼마 전 입원했던 일, 그리고 눈이 멀고 한센병을 앓으면서도 백성을 계속 섬긴 브로체로 신부를 떠올렸습니다. 오늘날 기술을 활용해 계속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은 훌륭한 발상입니다. 창의력을 발휘하여 복음을 계속 전할 새로운 길을 찾으십시오. 사랑하는 벗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성소를 살아가는 방식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이도 몸의 한계도 열정을 꺼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다할 수 있어도 하느님의 능력은 결코 다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주님의 부활에서 드러납니다.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피정자를 부활하신 분께로 이끄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위로하는 직무’를 수행하시는지 관상하라고 하십니다(224항). 거기서 우리는 스승께서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발견하고, 다시 사명에 나설 힘을 그분께 받는 법을 배웁니다. 아르헨티나를 순례하는 교회도 자신을 돌아보고, 하느님께서 이미 그 안에서 일으키고 계신 것

들을 감사히 알아보며, 그분께서 어디에 새 길을 열고자 하시는지 물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분께서는 이미 거기에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마태 28,7 참조).

영신수련을 마칠 때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은 우리가 하느님께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230-237항 참조). 이토록 많은 선물 앞에서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받으소서, 주님, 받아 주소서…"라는 응답을 제시하십니다(234항). 피정의 여정은 모든 것이 시작된 자리, 가능성과 한계를 다 지닌 채 자기 삶을 다시 하느님 손에 맡기는 자리에서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답하려는 물음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당신 뜻대로 쓰실 수 있는가?' 여전히 '예'라고 대답한다면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힘을 냅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와 함께 걸으시며 당신 손에 자신을 맡기는 이들의 삶이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아르헨티나는 기꺼이 자신을 내어 드리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느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잘 압니다. 마마 안툴라는 맨발에 십자고상 하나만 들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습니다. 가진 것은 적었지만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것은 있었습니다. 브로체로 신부는 흔히 하느님과 노새 한 마리만 그의 고단함을 알아주는 가운데서도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세페리노 복자는 열아홉 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들 시간은 없었지만 누구를 위해 살고 싶은지 뚜렷이 보여 줄 시간은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은총을 부어 주시고, 라키아카에서 우수아이아까지, 또 땅끝까지 그 은총을 전할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마르 16,15 참조).

용기를 내어 하느님의 눈으로 아르헨티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시는지 묻는 젊은이들, 살아 있는 신앙 공동체인 본당들, 설립자들의 담대함을 지닌 수도 공동체들, 성인들을 길러 내는 신학교와 수련원을 꿈꾸십시오. 여러분의 동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당부하신 대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교회를 꿈꾸십시오(2013년 7월 25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아르헨티나 젊은이들과 만난 자리의 말씀 참조). 교회가 모든 곳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서나 울려 퍼지게 하는 목소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신수련이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핀 뒤에는 달라진 모습으로 그 삶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자유를 품고 계속 봉사하려는 열망으로 우리 공동체에 돌아갑시다. 우리가 오늘 뿌리는 씨로 하느님께서 이루실 일을 다 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 간 이들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도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꺼이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사랑이 자신을 빚도록 내맡기는 남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덕에 이를 때까지 '느슨해지지' 않는 이들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큰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루한의 성모님께서 이 길에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저희에게 기대를 걸어 주십사고 우리 삶으로 주님께 말씀드리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루한 · 11월 11일

루한 미사 강론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강론
루한의 성모 대성당 앞 광장 (루한)
2026년 11월 11일 수요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방금 들은 이사야 예언서의 독서는 사막과 광야와 산처럼 서로 다른 땅을 그려 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모두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꽃을 피우고 기뻐 노래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나라, 우주의 창조주께서 아르헨티나 땅을 꾸며 주신 다채로운 풍경도 떠올려 봅시다. 광활한 팜파스와 물이 풍부한 강, 수많은 산줄기와 드넓은 산맥, 푸른 고원과 끝없이 펼쳐진 평야, 깊은 바다와 웅장한 빙하와 광대한 사막이 있습니다. 이 '세상 끝'의 온 땅이 저마다 찬란하고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이사야는 하느님께서 메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 기름지게 하시듯 사람들의 깊은 갈증을 풀어 주시고, 눈먼 이의 눈과 귀먹은 이의 귀를 열어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습들은 새로운 때, 해방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뻐하고, 주님에게서 오는 힘으로 굳세어지십시오.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지형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아르헨티나의 풍요로움을 보았습니다. 만나는 자리마다, 광장과 거리에서, 발걸음마다 넘쳐 나는 창의성과 꾸밈없는 모습과 생명력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화답송으로 바친 성모의 노래에서도 동정 마리아께서는 주님 안에서 기쁨에 넘치시며 당신 안에 큰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미하십니다. 모두에게 문을 열고 빵과 음악을 나누는 이 사랑스러운 백성을 만나는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선 찾아오는 이를 위해 식탁에 언제나 자리가 있고, '마테차 한 잔, 또 한 잔'을 건네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이를 향해 내미는 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이신 루한의 성모님 집에서, 평생 '갈색 피부의 작은 수호성모님'을 마음에 모셨던 사랑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특별히 떠올립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으로 성모님을 늘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 가까이 잠들기 위해 선택하신 그 무덤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길을 일러 주십니다. 그분이 흔히 하시던 작별 인사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모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 이 나라에 부어 주신 많은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미사에서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 길에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화해, 하느님 말씀으로 받는 빛, 친교, 선교를 위한 파견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서 계시는 마리아께서는 성찬의 희생 제사에 함께하시며 이 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56-58항 참조).

지금도 수많은 형제자매가, 어쩌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질병과 빈곤, 실업과 차별, 가정의 불화와 해체 등으로 갈바리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신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한편 마리아께서는 그 끔찍한 순간에 아드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으시어 온 인류를 어머니의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으며 평화와 희망과 사랑을 새롭게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청합시다. “그 걸인을 두고, 제가 흘리게 한 그 눈물을 두고 용서하소서. 저를 바라보는 그 눈길을 마주하기 싫어했던 저를 용서하소서”(「용서의 삼바」). 사랑이 마지막 말을 하는 새로운 미래를 열려면 우리의 과거와도, 우리가 맞닥뜨린 현재와도 화해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체험도 기억합시다. 그들은 냉혹한 현실에 낙담하여 슬픈 얼굴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셨습니다. 뒤이어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타오르게 하신 분이 곁에 계심을 알아보았습니다(루카 24,13-35 참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체험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지치고 실망하고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길잡이와 나침반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 빛에 우리 자신을 맡깁시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등불이며 우리가 가는 길에 빛입니다(시편 119,105 참조).

세 번째로 화해하고 말씀의 빛을 받은 우리는 친교로 초대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당신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그곳에서는 모두가 환영받습니다(마태 22,9-10 참조). 특히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 이주민과 병자와 수감자들처럼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들, 주님께서 당신과 동일시하시는 이들에게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마태 25,35-40 참조). “일치의 성사인 성체성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음을 굳세게 하고 나누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 안의 다양한 감수성과 각 사람을 움직이는 굳은 신념은, 일치가 받은 선물이자 맡아야 할 과제라는 확신에 뿌리내릴 때 풍요로움이 됩니다.”(회칙 「고귀한 인류」 88항) 그리스도와의 친교는 각자의 문제에만 빠지거나 타인의 궁핍을 이용하거나 책임을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받은 은사를 거저 나누며, 가진 것이 적어도 많은 이의 선익을 위해 내어놓도록 재촉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사랑을 살아가도록 초대받습니다. 십자가 아래 계신 마리아께서도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갈바리아에서 마리아와 아드님께서는 모두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요한 13,1 참조). 위대한 일을 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순간에도, 기쁨과 영광과 빛의 시간에도 어머니께서 그러셨듯 주님 곁에 충실하게 머무는 일입니다. 하늘의 눈으로 삶을 보고 하루하루를 희망의 빛깔로 물들이는 일입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충실한 당신 백성 안에 영웅적인 사랑의 행동도 일으키십니다. 가족에게 빵을 가져다주려고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는 아버지, 긴긴 병원의 밤에 아픈 아이 곁을 지키는 어머니,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기꺼이 시간을 내주는 좋은 벗이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 단계는 파견입니다. 미사가 끝날 때 우리는 선교에 파견됩니다. 가서 선포하십시오!(마르 16,15 참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사도 4,20)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말과 선한 행동으로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아르헨티나여,

일어나 걸으십시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그대가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침묵하려면 사랑으로 침묵하고, 외치려면 사랑으로 외치며, 바로잡으려면 사랑으로 바로잡고, 용서하려면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대 안에 사랑이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그 뿌리에서는 선한 것만 나옵니다.”(성 아우구스티노, 『요한 첫째 서간 강해』 7,8)

루한의 어머니, 저의 교황 직무가 어머니의 축일인 5월 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보호를 청하며 이 집을 찾아오는 수백만 아르헨티나 사람처럼 저도 그 망토 아래 깃들고 싶습니다. 어머니,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도직의 길에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아르헨티나 국민이 순례하는 이 길도 인도하시고 함께 걸어 주소서. 사랑의 다리를 놓고 연대의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소서. 화해와 친교와 사명의 길을 계속 걸을 힘을 북돋워 주소서. 그들이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빛을 받고 ‘모퉁잇돌’이신 그분 위에 튼튼히 세워지게 하소서(사도 4,11). 아멘.

미사를 마치며 전한 감사 인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고향인 이 나라를 방문하면서 체험한 모든 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애쓴 정부와 교회의 관계자들, 준비위원과 협력자와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남에 직접 참여하거나 매체를 통해 함께한 수많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도 감사합니다. 두 팔 벌려 맞아 주신 아르헨티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루한의 성모상은 수레에 실려 이 땅에 도착한 뒤 더는 길을 가려 하지 않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머물렀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후계자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다른 곳에서 사명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간직하고 떠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이 땅을 하느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성모님의 하늘빛과 흰빛 망토는 여러분 국기의 빛깔에 남았습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있는 북쪽, 장엄한 빙하가 있는 남쪽, 강과 숲이 있는 동쪽, 웅장한 산맥이 있는 서쪽의 백성들이 받은 수많은 선물을 두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빕니다. 그분 이름으로 가서 기쁨과 감사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이토록 정겹게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루한의 성모님의 모성적 보호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하나 되어 지냅시다. 사랑하는 아르헨티나여, 언제까지나 안녕히 계십시오!

목차로 돌아가기

페루

리마 · 11월 11일

정부 당국자·시민사회·외교단과의 만남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연설
페루 국립 대극장 (리마)
2026년 11월 11일 수요일

페루 대통령을 예방하며 대통령궁 직원들에게 전한 즉석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여러 해 만에 페루로 돌아와 여러분 모두를 찾아뵙게 되어 저는 참으로 기쁩니다. 우선 제 집에 온 기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황으로서 선의를 지닌 모든 이와, 가톨릭 신자든 다른 그리스도인이든 누구와도 함께 걸으러 온 것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언제나 온 백성의 선익을 찾고자 합니다. 저는 페루 국민에게 공동체 정신과 하나 되려는 마음이라는 커다란 가치가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함께 일하고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기 위해 대화와 이해의 길을 늘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어쩌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지요. 함께 걸으면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도 품읍시다. 대통령님께서 청하신 대로, 오늘 밤과 이번 방문 기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 여러분의 가정과 페루 온 국민에게 하느님의 강복을 기쁜 마음으로 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오늘도 언제나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교황 성하의 연설

대통령님,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페루에 돌아와 대단히 기쁩니다. 대통령님, 따뜻한 환영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이 땅으로 정답게 초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여러 지방의 공동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번 순방을 준비하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귀환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페루와 저의 인연은 주님께서 치클라요 교구를 제게 맡기시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곳 사람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걱정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믿음에서 배웠습니다. 수많은 분이 집 문을 열고 저를 맞아 식탁을 함께 나누

셨지요. 물론 맛있는 세비체도 대접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이곳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2015년에 저는 페루 국적을 얻었습니다. 그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백성이 제 삶 속에 엮어 온 유대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땅이 얼마나 깊이 제 안에 남아 있는지, 제 삶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것이기도 한지 깨닫습니다.

저는 온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베드로의 후계자로 돌아왔습니다. 이 책임을 지고 돌아보니 그 세월은 주님께서 저를 목자로 길러 주신 길의 일부였습니다. 그 시간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면 행복한 순간도 어려움도 기꺼이 받아들이며 기쁘게 다시 걷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조국으로도 돌아왔습니다.

페루에는 언어와 전통이 다른 여러 민족이 일군 수천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의 일부는 케추아어와 아이마라어, 아마존의 여러 언어로 전해집니다. 세월이 흐르며 아프리카계 페루인과 아시아계 페루인의 유산을 비롯한 다른 유산들도 더해져 나라의 정체성을 이루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거의 500년 전, 복음의 선포는 그 역사에 결정적인 한 장을 열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일깨워 주셨듯이 “그 신앙과 원주민들이 만나 이 대륙의 풍요로운 그리스도교 문화가 태어났습니다”(제5차 라틴아메리카 주교 총회 개막 연설, 2007년 5월 13일). 신앙은 이 땅에 깊이 뿌리내려 전통과 수많은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났습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처음 핀 성덕의 꽃이 로사, 곧 장미라는 이름을 지녔고, 그 로사가 바로 페루인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페루의 각 지방은 고유한 전통을 간직하고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나라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 차이들이 제자리를 찾고 각 사람이 자기 역사와 신념에 따라 공동체에 이바지할 때 국민의 일치는 더 굳건해집니다. 페루에는 일상에서 실천하는 연대가 살아 있습니다. 이웃들이 힘을 모아 모두에게 이로운 일을 해내는 공동 작업,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정들이 서로 돕는 일, 제가 수없이 경험한 손님 환대가 그렇습니다. 그 몸짓에서 우리는 조국을 사랑하는 한 가지 방식을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한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이가 그 안에서 존엄하게 살기를 바라고, 그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며, 그 선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덕분에 이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오늘 공적 책임을 맡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과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다른 이의 선익을 염려하는 마음이 공직에서 훌륭하게 실천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이 사랑하는 땅을 방문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정치가 “드높은 소명이며, 공동선을 추구하므로 가장 귀한 사랑의 형태 가운데 하나”라고 일깨우셨습니다(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205항).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신념과 소망을 품고도 한 나라의 운명을 함께 하는 이들을 모읍니다. 제도는 그 차이를 드러낼 길을 열고, 서로 이해하는 길을 걸을 수 있게 합니다. 공적인 결정은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멀리 사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멀리 있는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면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서 한 가정의 어려움이나 온 공동체의 희망이 드러났던 일들이 기억납니다. 이토록 많은 언어를 쓰는 나라에서 듣는다는 것은 누구든 자신의 말을 이해받을 수 있도록 애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관을 찾는 이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 주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믿고 의논할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서류 한 건과 일상적인 행정 절차, 인구 조사 숫자 뒤에는 구체적인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을지는 자신들이 기다리는 응답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이견이나 아픈 경험을 마주할 때에는 특히 인내하며 들어야 합니다. 페루도 주민들 사이의 공존이 시험받는 어려운 순간을 겪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정의롭고 세심하게 다루어 화합이 자라고 서로 존중하며 차이를 마주할 여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 생활을 한다는 것은 누구도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차이가 있어도 나라의 선익을 진심으로 함께 걱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가 정직과 올곧음, 기꺼이 만나려는 마음을 가꾸기를 권합니다. 이런 자질은 사람 사이의 신뢰를 지탱하고 제도를 굳건하게 합니다.

가정에서 평화는 매우 구체적인 뜻을 지닙니다. 두려움 없이 일하러 나가고, 자녀를 돌보며, 마음 편히 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소박한 바람이지만 누구에게도 그 바람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폭력이 낳는 고통을 압니다. 그 고통을 겪는 이들 곁에 머물며, 법과 정의를 통해 사람의 생명과 존엄과 권리를 지키려는 모든 이의 노력을 북돋우고자 합니다.

자기 가족을 존엄하게 부양하는 일도 그 일상의 평화에 속합니다. 땅을 일구는 이들, 바다로 나가는 어부들, 작은 가게를 꾸리는 상인들, 도시가 움직이도록 뒷받침하는 이들을 생각합니다. 각각의 일은 나라의 삶에 이바지하며 그 존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바오로 6세 성인께서는 참된 발전은 “모든 사람과 인간 전체”의 발전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회칙 「민족들의 발전」 14항). 그 발전에는 각 사람의 물질적 안녕과 문화적·도덕적·영적 열망이 함께 담깁니다. 경제적 번영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양심의 평화, 사랑받는다는 확신, 진리를 찾고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갈 자유입니다.

진리를 찾으려는 열망은 일찍부터, 아이가 물음을 던지며 세상을 발견할 때부터 드러납니다. 그 탐구를 반겨 주는 학교는 멀게만 보이던 세계를 열어 주고 아이가 자기 능력을 알아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페루 여러 지방에서 그 발견을 함께하고 자기 땅의 가치를 전하여 학생들이 이 땅을 알고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떠올립니다. 교실에서 열린 지평은 훗날 실제 기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청년들, 특히 첫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책임을 맡을 준비를 하는 여러분에게 애정 어린 인사를 보냅니다. 그들이 재능을 키워 이웃, 특히 가장 어려운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쓰도록 함께 힘씁시다.

한 사람이 아프거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해지면 주변 사람들의 삶도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이의 병상을 지켜 본 사람은 제때 받는 진료, 벗처럼 곁을 지켜 주는 사람,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압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외로움이나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생각합니다. 많은 가정이 흔히 큰 희생을 치르며 말없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공공 당국이 이용하기 쉬운 보건 서비스를 마련하고 예방 의료를 강화하여 이런 헌신을 뒷받침해 주기를 권합니다. 남을 돌보는 데 힘을 쏟는 이들에게도 자신을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민 식당과 공동 급식소를 꾸려 온 수많은 페루 여성들, 그리고 자기 직업과 공적 책임을 통해 나라의 선익에 이바지하는 여성들도 생각합니다. 그들 모두가 자유롭게 능력을 키우고 공동체에 온전히 참여하며 폭력과 온갖 착취에서 벗어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페루에서는 아마존의 강과 안데스의 고지대, 드넓은 해안이 수많은 공동체의 삶과 주민들의 일에 고유한 모습을 부여합니다. 농업과 어업과 광업으로 이 자원을 이용할 때에는 자연을 돌보고 자연에 기대어 사는 공동체들을 존중해야 합니다(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 183항 참조). 각 지역을 잘 알면 자연 현상으로 인한 위험을 예측하고 주민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급할 때 페루 국민이 보여 주는 연대에는 그만큼 헌신적인 제도가 호응해야 합니다. 위험을 예방하고 생명이 위태로울 때 제때 행동할 수 있는 제도 말입니다.

과학과 기술은 이러한 위험 가운데 많은 것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발전은 의료를 개선하고 먼 곳의 공동체에도 교육의 기회를 가져다줍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가능성을 넓히고 우리가 일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꿉니다. 회칙 「고귀한 인류」에서 일깨웠듯이, 이 새로운 능력에는 식별이 필요하며 공동선을 향해 책임 있게 이끌어야 합니다(5항 참조). 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고 그 발전이 언제나 인간 존엄에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오용을 예방하고 그 결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적절한 법적 보장도 필요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신기술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일에도 나라 사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안데스와 아마존에 걸쳐 있고 태평양으로 열린 페루는 이웃 나라들 및 다른 대륙의 민족들과 유대를 맺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에서 이주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나라에 살며 그 땅에서 삶을 꾸려 가면서도 가족을 향한 애정을 간직하고 고향 공동체에 기여하는 수많은 페루인을 생각합니다. 머나먼 도시에서도 '기적의 주님' 성상은 페루인들을 한데 모읍니다. 그들은 이 신심을 통해 고국과의 유대를 지킵니다. 로마가 온통 보랏빛으로 물드는 것을 저도 직접 보았습니다! 거리가 멀어진다고 조국 사랑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조국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더 또렷이 깨닫기도 합니다. 페루로 오는 이들도 환영받고 존중받아야 할 이야기와 희망을 안고 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나라 간의 관계가 가정의 삶에 미치는 아주 구체적인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을 괴롭히는 전쟁과 긴장 앞에는 인내심 있는 외교가 필요합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국제법을 존중하며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는 합의를 찾아야 합니다. 나라들은 저마다 정당한 열망을 품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운명을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페루가 계속 지역 협

력과 국제 협력에 이바지하고, 입장이 서로 양립할 수 없어 보일 때에도 상호 이해를 북돋우기를 권합니다. 민족들의 고통을 덜고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페루와 교황청의 관계도 이러한 협력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페루 헌법은 가톨릭교회를 국가의 역사적·문화적·도덕적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인정합니다. 국가와 교회가 독립과 자율을 유지하며 협력하고, 다른 종교 공동체들도 존중하도록 규정합니다(제50조 참조). 교회는 이러한 인정을 깊이 새기며, 자신이 사명으로 받은 것을 페루 국민에게 계속 내어 주고자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동행하며 모든 사람의 존엄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입니다. 이 헌신은 교회 공동체와 교육·돌봄 활동, 그리고 신앙에 힘입어 직업과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통해 나라의 삶에 참여하는 수많은 평신도에게서 드러납니다. 이 관계가 모든 페루 국민의 선익을 추구하며 상호 존중 안에서 계속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페루를 섬기는 길은 많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섬기는 분들과, 날마다 자기 일로 공동체의 선익에 이바지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에게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얼굴과 대화, 애정 어린 몸짓이 제 곁에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좌에서 저는 기도와 친밀함으로 그 큰 사랑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또 이 나라의 선익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이의 노력에 빛을 비추고 방향을 제시하는 도움으로 교회의 사회 교리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 세대의 페루인들이 리마의 로사 성녀의 우물에 청원과 희망을 담아 넣었습니다. 오늘 저도 이 자리에서 그 복된 우물에 제 기도를 담아 내려보내고 싶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와 로사 성녀, 이 땅의 모든 성인과 복자의 전구를 통하여 주님께 청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여러분이 페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형제로, 자매로 알아보고 저마다에게서 조국을 더욱 사랑할 이유 하나를 더 발견하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 페루와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를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황대사관 발코니에서 전한 말씀

리마 여러분, 반갑습니다! 페루 여러분,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 제 집에 돌아온 저를 이토록 따뜻하게 맞아 주시니 무슨 말로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 열정과 기쁨에 넘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를 만나니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특히 요즈음 여러분 모두가 바쳐 주시는 기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곳 교황대사관 앞에 평화의 표징인 아름다운 비둘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평화를 북돋고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온 세상의 평화와 모든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치를 이루고 화해를 북돋우는 사람이 되며 평화를 깊이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한마디만 더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창문이 이쪽으로 난 집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잠을 자고 싶고 평화를 좀 누리고 싶으시답니다.

그러니 축제를 조금 더 이어 가셔도 좋지만 밤을 다 새우지는 마세요. 그러면 내일은 평화가 없을 테니까요.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를 위해 강복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 안에서 일치를 북돋울 길을 찾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도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소서.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리마 · 11월 12일

페루 주교단과의 만남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연설
대주교관 경당 (리마)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존경하는 추기경님들과 대주교님들, 주교님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루린 교구장이시며 주교회의 의장이신 카를로스 엔리케 가르시아 카마데르 주교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표해 해 주신 말씀과 제 건강 회복을 위해 바쳐 주신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교황님은 못 오실 거야”, “오실 수 없을 거야” 하던 ‘토마스들’이 있었다는 걸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위대하시고 그분의 은총은 우리 모두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가운데 와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형제 주교로서 대화를 나눌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몇 달 전 정기 사도좌 방문을 위해 로마에 오셨고, 이제 여기서 다시 만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페루에서 있을 만남들도 기대됩니다. 제 방문을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주교님들, 한 나라의 땅을 가로지르는 길들은 그 백성의 영혼 속에도 이어져 있습니다. 페루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산과 골짜기, 해안과 아마존, 옛길에는 서로 만나 저마다의 선물을 주고받는 법을 배워 온 민족들의 기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길이 있습니다. 이 땅을 종횡으로 가로지르며 여러 지역과 공동체와 문화를 이어 준 광대한 길망, 잉카 대로입니다. 이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 주교 직무에 관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 역시 친교와 희망의 길, 무관심의 산과 개인주의의 사막을 지나고 사람들을 갈라놓는 거리를 좁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 며칠 곳곳에서 들리는 이번 방문의 표어 ‘마음을 엽시다!’도 참으로 우리를 회개와 친교와 사명으로 초대합니다.

주교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고 그 길을 신앙을 지닌 백성과 함께 걸으며, 하느님과 백성이 자신의 우선순위에 질문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잉카의 길과 같은 선교의 여정입니다. 잉카의 길은 길손이 빼어난 경관을 바라보는 데 머물도록 낸 길이 아니라 타완틴수유, 곧 잉카 제국 전역에 닿기 위해 낸 길입니다. 긴급한 소식과 생명에 필요한 물자를 나르며 제국을 누빈 전령 차스키처럼, 주교는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나르는 전령입니다. 그는 하느님 말씀의 보물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성사를 베풉니다.

이 길이 잉카 이전의 여러 문화가 사용하던 옛길을 물려받았듯, 주교도 자신보다 먼저 시작되었고 자신이 떠난 뒤에도 이어질 구원 역사에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교에게 ‘마음을 여는 것’

은 하느님께서 이미 당신 백성과 함께 걷고 계신 길을 알아보고, 모두를 위한 희망의 미래를 계속 일구려면 아직 어디를 더 걸어야 하며 어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지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교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은 가정을 방문하고 병든 이를 동반하며 젊은이들을 만나고, 지리적으로 멀거나 사회적으로 취약하여 좀처럼 목소리를 내거나 경청받을 수 없는 공동체들에 다가가 자기 교구를 알아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목자는 모든 이를 만나러 나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점에서 토리비오 데 모그로베호 성인의 모습이 특별히 돋보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 양성을 맨 먼저 돌보고 원주민의 언어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공동체들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 요구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마라어와 케추아어와 스페인어로 쓴 교리서는, 그가 제3차 리마 관구 공의회에 모인 주교들과 친교 안에서 펼친 선교 열정을 증언합니다.

잉카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높은 고개와 좁은 길은 나그네의 인내를 시험하지만, 장엄한 피조물을 바라보면 그 노고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와 비슷하게 주교의 사명도 늘 탁 트인 길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목의 어려움과 사회의 분열, 몰이해,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결정을 마주합니다. 여기서 토리비오 성인은 다시 우리에게 빛을 비춥니다. 사목적 사랑은 문제를 피하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충실히 머물며 사람들을 위해 가능한 한 가장 큰 선을 추구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산을 넘는 길에 어려움이 따르듯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직무를 관통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가, 사랑으로 바친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봉헌과 하나 될 때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웁니다(마태 16,24-25 참조).

중요한 것은 이 길을 혼자 걷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페루 최초의 신학교가 있었던 이 땅에서, 그 길을 움직이는 야차이 와시(Yachay wasi), 곧 '지혜의 집'으로 만드는 주교를 생각합니다. 주교는 사제들에게 길을 가리켜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걸으며 수고와 갈망을 나누고, 그들의 삶에서 하느님의 발자취를 알아보며, 뒤처지는 이가 없도록 돌봅니다. 함께 걸으면 친교가 생겨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후계자와 다른 주교들, 남녀 수도자와 하느님의 모든 백성과 이루는 친교를 선물로 언제나 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신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페루 교회가 시작한 시노드 여정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백성과 힘을 모아 계속 굳건히 일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자신이 공동 책임을 지닌 주님의 선교하는 제자임을 알아보는 교회를 갈수록 더 충실히 이루어 갑시다. 각자 자기 소명에 따라 서로를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권위는 폭압적으로 행사되지 않고 순명도 맹목적인 굴종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 앞서 이 땅을 걸은 이들을 떠올리고 싶습니다. 토리비오 데 모그로베호 성인과 함께 리마의 로사 성녀를 생각합시다. 성녀의 기도와 어려운 이들에게 바친 헌신은 사도직의 결실이 주님과의 일치에, 따라서 주교 직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생활을 돌보는 일에 달려 있음을 일깨웁니다.

프란치스코 솔라노 성인에게서는 경계를 넘어 복음을 선포하는 법을 배웁니다. 성인의 기쁨에 찬 선교 정신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특히 인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변두리에 사는 이들에게 그분을 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마르티노 데 포레스 성인과 후안 마시아스 성인은 겸손한 삶으로 가장 작은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사랑이 소박한 몸짓과 귀 기울여 듣는 일에서 시작됨을 배웁니다. 사람을 명성이나 출신이나 사회적 지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에게 크나큰 아픔을 안겨 준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직자들이 저질렀거나 교회 안에서 일어난 학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듯 진실과 정의, 용서와 피해 회복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가장 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문화를 더욱 굳은 결의로 키워야 합니다.

주교와 사제와 평신도, 스페인인과 크리오요와 혼혈인 등 성인들은 서로 달랐지만 하나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페루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고 성덕의 학교를 이룹니다. 그들은 바로 지금 여기서도, 하나의 길로 이어지는 수많은 오솔길을 우리와 함께 걸으며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in Illo uno unum)가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형제 주교님들, 2018년에 저는 바로 이곳, 저 뒤쪽에 여러분과 함께 앉아 사랑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일치를 위해 힘쓰라는 간절한 권고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받은 소명, 곧 친교의 성사가 되는 소명을 가르고 축소하는 분열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가장 훌륭한 복음화입니다"(주교들과의 만남, 리마, 2018년 1월 21일). 과연 여러분 사이의 친교, 우리 사이의 친교는 여러분이 선포하는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해 주는 토대입니다.

주교의 사명은 다리를 놓고 대화를 북돋우며 만남을 위해 교육하고, 페루 사회를 갈라놓는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하려면 형제 주교들에게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신뢰를 키우고 어려움을 나누며 주교들 사이의 형제애를 굳건하게 하십시오. 어느 주교도 그 길에서 혼자라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개별 교회도 자기 사명을 다른 교회들의 사명과 무관한 듯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주교는 친교 안에 머물고 친교에서 출발하여 사회적·정치적 양극화가 자신의 예언자적 복음화 사명을 약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교는 오늘의 페루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오래된 길도 사람들을 여전히 목적지로 이끌 때 그 가치를 간직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이 참으로 그리스도께 이끄는지 묻고 그릇된 길을 밝혀야 합니다. 오늘의 페루에는 이 시대의 물음에 귀 기울이고 복음의 빛으로 시대를 비출 수 있는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가정들과 동행하고 젊은이들을 지지하며 각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수호하고 정의를 북돋우고 피조물을 돌보는 데 투신하는 목자들, 특히 빈곤과 배제, 부패와 폭력과 기회 부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목자들입니다.

이 사명은 교리에 대한 충실함과 사목적 친밀함, 성사의 거행과 이웃을 위한 헌신, 양심의 형성과 사랑의 구체적인 증언을 하나로 모으라고 요구합니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천이며 정점입니다. 감실 앞에서 우리는 직무를 올바른 눈으로 다시 바라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여정을 마칠 전령들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영원히 남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할 시간, 그리고 주교의 영적 부성을 체험할 필요가 있는 이들과 동행할 시간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주교는 자신의 한계 속에서도 위로와 일치와 희망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권고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첫째, 이 백성과 함께 걷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둘째, 우리가 선포하는 일치의 증인으로서, 주교들의 친교 안에서 계속 함께 걸어갑시다.

셋째, 언제나 마음을 엽시다. 우리 성소를 새롭게 해 주시도록 하느님께, 분열이 치유되도록 형제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가깝고 용기 있고 자비로운 '아버지인 주교'를 만나도록 여러분의 백성에게 마음을 엽시다.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이 은총을 얻어 주시기를 빕니다. 안데스 고지대와 골짜기, 아마존과 해안과 섬에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땅의 모든 자녀가 교회 안에서 환대받고 경청받고 사랑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보금자리를 찾기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리마 · 11월 12일

주교·사제·수도자·신학생·시노드 팀·사목 평의회와 함께 바친 낮기도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강론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 주교좌대성당 (리마)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사랑하는 주교님과 사제 여러분, 남녀 수도자와 신학생 여러분, 사목 평의회 위원과 시노드 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여러분.

사랑하는 이 교회 가까이, 페루 땅을 다시 밟으니 큰 기쁨입니다. 저는 신앙의 아버지이자 형제로, 양 떼를 사랑하는 목자로 왔습니다.

오래전 처음 페루에 왔을 때, 저는 하느님 백성을 섬기고 하느님 나라를 세우며, 특히 가장 약한 이들을 돌보고 정의 안에서 평화를 이루도록 파견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사람들의 삶과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어 가도록 격려하러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살아가고 공동선에 튼튼히 뿌리내린 사랑의 문명을 세우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방금 들은 짧은 독서인 요한의 첫째 서간이 우리를 도와줍니다(1요한 3,23-24 참조).

우리가 먼저 듣는 말씀은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23절)라는 초대입니다. 살아 있는 돌로 이루어진 성전을 세울 때 그분을 유일한 기초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에페 2,19-22 참조). 그리스도는 빛이시며 말씀이시고 빵이십니다. 그분과 친교를 이루어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는 곳에서 교회는 자라납니다. 일생 동안 하느님을 끊임없이 찾았던 많은 성인이 이를 보여 줍니다. 토리비오 데 모그로베호 주교 성인은 지치지 않고 새 길을 개척한 사도였고, 가난한 이들을 용감하게 지켰으며, 양 떼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준 목자였습니다. 그 힘과 활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싶다면 주님과 맺은 그의 깊은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 사명의 뜻과 기준과 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이를 본받아 파스카의 빛으로 우리의 역사를 읽고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 기적의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표징’에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찾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고 싶은 것은 화해입니다. 요한은 서간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1요한 3,23)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페루에는 사랑을 심는 교회가 절실합니다. 다른 이들이 벽을 쌓는 곳에서 다리를 놓고, 경청하고 치유하며 용서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또한 스스로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용서를 청하며, 교회 안팎에 낸 상처에 책임을 지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다시 시작하여 하나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갈등을 사랑과 용기로 마주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바오로 성인이 말하듯 이 모든 것은 우리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께서 이루셨습니다.”(2코린 5,18)

이렇게 할 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즐겨 쓰신 말처럼 우리가 참으로 평화를 이루는 장인이 될 것입니다(회칙 「모든 형제들」 225항 참조). 이것이 세 번째로 함께 묵상하고 싶은 점입니다. 저는 세상에 '무장하지 않고 무장을 해제하는 평화'를 증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2026년 1월 1일 제59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이는 참으로 시급한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대화와 형제애를 키우고 분열을 일으키는 양극화를 피합시다. 평화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며, 우리가 행동하고 서로 바라보고 존중하고 귀 기울이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평화를 퍼뜨리고자 한다면 먼저 하느님 앞에서 우리 자신 안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평화를 지키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공동체와 사회 및 정치 생활 곳곳에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례받은 이들의 가족이 살아 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친교를 실제로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가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일치와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인류의 빛」 1항). 그리스도인에게 일치는 삶에서 포기할 수 없는 차원이며 개인과 공동체가 끊임없이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세례는 은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지체로 만듭니다(1코린 12,12-13 참조). 그러나 받은 선물을 날마다 받아들일지는 자유로운 인격으로서 존엄을 지닌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그리하여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1)

그러면 기회가 닿을 때마다 어떻게 행동하여 우리가 '하나'임을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점과 상처까지도 서로 존중하고 용서하며 함께 자라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친교 안에서 모두가 똑같아지거나 언제나 곧바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과 목자들의 인도를 받아 저마다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으면서 서로 어우러져 화음을 이루는 자리가 친교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에도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상대의 아픔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그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공동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쁜 소식의 예언자로 만드는 공동 책임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묵상의 마지막 주제인 선교에 이릅니다.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입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선교 교령 「만민에게」 2항) 교회의 본성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 온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도록 이끕니다(1요한 4,16 참조).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랑의 불꽃을 살려 두고 각자의 성소에 따라 믿을 만하고 기쁜 증언을 드러내십시오. 주교들은 목자로서 양 떼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되 특히 사제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들 곁에 계십시오. 사제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 교회에 대한 충실함과 순명을 키우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형제자매와 동행하십시오. 남녀 봉헌 생활자들은 복음에 충실한 삶으로 날마다 자신이 한 '예.'라는 응답을 새롭게 하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은총을 성령께 청하십시오(요한 3,3 참조). 신학생들은 부르심의 아름다움과 새로움을 돌보고 예수님과 살아 있는 관계를 맺으며 내적 생활을 가꾸십시오. 이제 사목 평의회와 시노드 팀에서 봉사하는 평신도 여러분에게 청합

니다. 이미 시작한 일에 꾸준히 헌신하십시오. 교회에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여와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친교의 위대한 화음에 오늘도 언제나 모두 함께합시다. 은총에 마음을 열고 한마음으로 함께 걸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우리가 받은 계명, 곧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1요한 3,23)는 말씀에 충실합시다. 성령의 은총과 우리 어머니 마리아의 전구로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리마 · 11월 12일

페루 국민의 미래를 위한 도전과 희망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연설
주교좌성당 앞 광장 (리마)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페루 국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 와 주시고 저를 형제이며 길동무로서 열린 마음으로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집에 온 기분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요 며칠 세례자 요한처럼 모든 사람을 비추시는 빛, 곧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여러분 가운데서 걷고 싶습니다(요한 1,6-9 참조). 이 땅에서 '기적의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특별한 공경을 받으시는 스승께 귀를 기울이며, 그분께서 지금 페루에 하시려는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여러분이 언급한 도전들은 따로 떼어 다룰 수 없습니다. 가정과 문화적 다양성, 노동의 세계와 여성들의 처지는 서로 깊이 연결된 같은 인간 현실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회 교리는 이를 이해할 단서를 줍니다. 모든 사회·경제·정치 제도의 중심에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그분을 닮게 창조되어 무한한 존엄을 지니고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부름받은 인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바탕 위에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선은 하나의 현실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존엄을 중심에 두는 데서 공동선과 연대성과 보조성이라는 중요한 원리들도 나옵니다. 이 원리들은 개인과 가정, 기업과 제도가 결정을 내릴 때 방향을 제시합니다.

인간 생명은 빈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내어 주며 새 생명의 선물에 마음을 열 때 그 생명이 태어납니다. 자녀는 이러한 친교의 열매입니다. 만들어 낸 물건이 아니며 처음부터 자신이 비롯된 관계의 흔적을 간직합니다. 더없이 연약한 생명의 시작은 첫 환대의 장소인 어머니의 태중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그곳에서 근원적인 유대는 친밀함과 보호가 됩니다. 창조주의 계획에 따라 인간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태어나 자랍니다. 그리하여 막 시작된 생명의 존엄은 가정에서 고유한 자리를 찾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아 인간 과학의 통찰과도 일치하는 가운데 교회의 전통은 가정이 고유한 권리를 지닌 첫 자연 사회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가정이 어떤 성문법보다도 먼저 존재하며, 법은 그저 이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하고, 공공 제도는 가정을 대신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간추린 사회 교리』 214항 참조).

여러분께서 말하셨듯, 문화가 변하면서 남녀의 전통적인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새로운 태도와 생활 방식을 발전시키려고 애쓰며, 때로 잘못된 길을 따르기도 합니다(「아파레시다 문헌」 49항 참조). 이러한 상황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더욱 힘써 제시하도록 요구합니다(창세 1,27 참조). 이 결합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보완하는 법이 드러납니다. 이 결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자녀와 형제자매로서 맺는 유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모두의 헌신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은 우리 존재의 진리에 따라 산다는 것이 가사에 대한 책임을 불평등하게 나누거나 한 배우자를 다른 배우자에게 종속시키는 일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속 힘쓰며, 사회의 미래를 세우는 데 양쪽 모두 공동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살필 때 생기는 긴장을 극복하도록 돕는 인간 이해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사랑한다는 것이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와 손주와 조부모가 된다는 깊은 뜻이 드러납니다. 서로 대화하고 인내하고 친절을 베풀며 용서하고 섬기는 것입니다(1코린 13장 참조). 이를 깊이 깨닫는 일은 가정의 영성을 키우는 풍요로운 샘입니다.

가정의 각 구성원은 받은 선물과 재능을 고유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내놓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서로를 보살피고 다정하고 섬세한 몸짓을 건네며, 책임 있게 일하고 참을성 있게 듣고 본보기로 가르치는 데서 제외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고통과 외로움을 겪으면서도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 선한 사람이 되도록 수많은 어려움을 감당하는 어머니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자녀의 어머니로, 이모나 고모로, 할머니로, 큰 용기를 내어 자기 삶의 모범으로 다음 세대에 신앙과 확실한 희망을 전해 주는 여성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많은 가정이 상처받고 경제난이나 해외 이주 때문에 흩어지며, 도박과 내기, 알코올과 마약 중독, 학대와 가정 폭력으로 아파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가정을 사랑하시며 특히 위기를 겪는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그 가정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가정의 모범을 보십시오. 성가정도 보금자리를 이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처럼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지켜야 했습니다. 사는 곳을 옮겨야 했고,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으며, 외로움과 고통과 몰이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가정은 우리 가정 안에 하느님께서 계시면 성장하여 계속 나아가고, 문제에 맞서며, 십자가 곁에 굳게 서고, 신앙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오늘날의 또 다른 도전은 디지털 환경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저는 최근 회칙 「고귀한 인류」에서 오늘날의 기술이 가족이 실제로 함께 지내는 시간을 대신하고, 가족 구성원을 산만하게 하며 때로는 해로운 콘텐츠에 노출할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함께 풀려면 정치권과 교육 기관, 가정이 협력해야 합니다(142항 참조).

우리 가정의 아들딸은 곧 페루의 시민이며, 우리 도시와 농촌의 기업인과 노동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선을 이루는 참된 주역이 되도록 부름받은 기업계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기업은 자본과 경영과 노동이 온전한 인간 발전을 향해야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간추린 사회 교리』 338항 참조). 정당한 공권력은 공정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일과 휴식과 가정생활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하여 기업인과 노동자를 도와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인적 관계와 경제적 기반이 굳건하고 안정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삶이 이렇게 서로 의존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공동선이란 힘을 합쳐 더 큰 선을 이루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회칙 「고귀한 인류」 62항 참조). 그래야 사회의 부와 자원이 소수의 이익에만 쓰이지 않고 모든 이의 발전에 이바지합니다(같은 회칙 65항 참조).

이 상호 의존 속에서 교육은 원리들을 현실에 옮기는 실제적인 수단이 됩니다. 오늘 아이들을 그들 고유의 존엄에 맞게 교육하면 내일의 정직한 사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사람들의 동등한 존엄을 중심에 둔 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가정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인격과 지성을 길러 주는 교육 정책, 노동의 존엄과 민간의 주도성을 함께 존중하는 노동 정책을 보장할 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의 기초를 굳건히 합니다(같은 회칙 168항 참조).

인간의 존엄을 중심에 두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빛을 비춥니다. 페루가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그 문화와 언어, 역사와 지방이 다채롭기 때문입니다. 페루의 크리오요 왈츠에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풍성한 산, 아름다운 땅, 미소 짓는 바닷가와 비옥한 들, 눈 덮인 봉우리와 강과 골짜기, 이곳이 나의 페루라네!” 서로의 다름은 만남과 풍요로운 나눔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에 함께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사람이 더불어 사는 곳에 어디서나 그렇듯, 역사가 남긴 상처와 불신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농담’이나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이라는 핑계로 외모나 출신, 사회적 처지에 따라 사람을 가르고 모욕하고 판단하는 말과 행동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삼가 말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과 함께(2026년 2월 5일 사순 시기 담화 참조), 우리의 태도에서도 적대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온유함은 공격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립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워라.”(마태 11,29) 하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은 마음의 힘입니다. 분노와 원한을 다스려 인내와 대화, 화해하려는 마음으로 바꾸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난의 순간에 모욕을 당하시고도 폭력이나 위협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며 이 덕을 온전히 보여 주셨습니다. 태양의 제국(intipa imperion)에서 우리가 ‘높은 곳에서 떠오르는 태양’(루카 1,79)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기도합시다.

이러한 맥락에서 토리비오 데 모그로베호 성인을 어찌 잊겠습니까? 성인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강요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민족들은 평화롭게 공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친교를 이루어야 하는 도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다른 이를 존중받아 마땅한 형제로 알아보기 시작할 때 문화적 다양성은 평화를 이루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성 안의 일치는 성령의 업적이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의 표징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꾸고 굳건히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사도 2장 참조). 가톨릭교회는 온 세상을 품으며 동시에 각 지역의 고유한 모습을 지닙니다(회칙 「고귀한 인류」 26항 참조). 교회는 모든 언어를 말합니다(아우구스티노 성인, 『설교』 268편 참조). 리마 교리서가 이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인간 존엄을 인정하려면 여성들이 모든 자리에서 존중받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회와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의 기여는 꼭 필요합니다. 가정생활에서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는 일, 여성을 향한 학대와 폭력에서 드러나는 남성 우월주의가 여전히 남아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존엄과 책임을 지닌다고 인정하고 선포한 그리스도교의 새로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베네딕토 16세, 제5차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주교 총회 개막 연설, 아파레시다, 2007년 참조).

가난한 처지의 여성이나 원주민 공동체와 아프리카계 아메리카인 공동체의 여성들은 이중으로 소외될 위험도 있습니다(『아파레시다 문헌』 454항 참조). 우리의 할머니와 어머니, 자매와 딸일 수 있는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아직도 현실로 남아 온 인류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신앙의 형제자매뿐 아니라 선의를 지닌 모든 남녀에게 간곡히 다시 호소합니다. 여성을 소중히 여깁시다! 여자아이들을 보호하고 존중합시다!(회칙 「고귀한 인류」 57항 참조)

교회는 여성이 지닌 풍요로움과 재능과 감수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동정 마리아께서는 그 탁월한 모범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여성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여러 모습을 한 몸에 아우르시는 새로운 여인이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바오로 6세 성인, 교황 권고 「마리아 공경」, 36항). 복음에 나타나는 성모님께서는 자유롭고 굳센 여인으로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며 교회의 사명에 동행하십니다(『아파레시다 문헌』, 266항 참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정과 기업, 문화적 다양성과 여성의 역할은 결국 한 가지 요구로 모입니다. 누구나 존엄하게 살며 모두의 선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구조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패와 폭력과 개인주의를 이겨 내려면 공동선을 찾는 정직한 마음도 필요합니다(회칙 「고귀한 인류」 169항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하는 제자로서 우리 가정을 형제애의 학교로, 기업을 존엄한 노동과 사회적 책임의 공동체로 만듭시다. 서로 다른 문화는 만남의 기회로 삼고, 우리 제도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해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자리가 되게 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이 참된 평화의 토대가 되는 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설을 마친 뒤 전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강복]

하느님께서 페루를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리마 · 11월 12일

청년 및 대학생들과 함께한 밤샘 기도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연설
페루 국립 경기장 (리마)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교황 성하의 연설

리마 여러분, 카야오 여러분, 카라바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루린과 초시카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모두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페루에는 희망의 표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국립 경기장에서는 바로 여러분이 희망의 표징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니 얼마나 기쁜지요! 이토록 정답게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카스티요 추기경님과 질문해 주신 젊은이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주앙과 에밀리와 루스빈다 수녀님께서 진솔하게 마음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들으니 요한 복음의 한 장면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세례자 요한은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그분을 가리키며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 1,36) 하자, 두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돌아서서 "무엇을 찾느냐?"(38절) 하고 물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물음입니까!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물으신다고 생각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만나고 싶으냐?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서둘러 대답하지 마십시오.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하는 물음들이 있습니다. 가장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들, 온 힘을 다해 이루고 싶은 꿈을 떠올려 보십시오. 때로 밤잠을 앗아가는 걱정과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기에 그 모든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이 탐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어 '파시온'(pasión)입니다. 이는 깊이 사랑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안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 주게 하는 대상을 두고 쓰는 말입니다. 동시에 '수난', 곧 앞으로 나아갈 의욕마저 꺼뜨리는 듯한 고통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곁에 누가 있어도 혼자라고 느끼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잃은 아픔이나 앞날의 불안을 짊어진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 왜 침묵하시는 듯한지 묻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기억합시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그 제자들은 그 이름이 무엇을 예고하는지 아직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신 주님의 수난에 비추어 그 뜻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의 고뇌와 어둠을 겪으셨

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마르 15,34) 하고 외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바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었기에,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다. 그분이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죽음의 도구였던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는 뜨거운 사랑이 드러난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께 가십시오. 기도할 말을 찾기 어려울 때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눈물과 아직 우리가 답할 수 없는 물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들도 찾아가십시오. 어떤 아픔에는 시간과 다정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그 길에서 우리를 받쳐 주고 고통이 결코 마지막 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가치 있는 모든 것,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열정을 쏟으십시오! 재능을 가꾸고 여러분 문화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며 용기 내어 이웃을 위한 큰 뜻을 펼치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상기시키셨듯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은 우리가 자기 삶을 스스로 맡고 한 사명에 책임을 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38항 참조).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 사는 데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없는 선을 여러분이 이룰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두 제자에게 돌아갑시다. 그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스승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요한 1,38-39). 얼마나 소박한 대답입니까!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는 일을 미리 다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말인 ‘성소’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으로 무엇을 할지,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내어 줄 만한지 묻습니다. 용기를 내어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비로소 발견하는 대답도 있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일깨워 줍니다(에페 1,4 참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 꿈을 포기해야 할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더 위험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으시며, 삶을 온전히 누리려면 죄도 경험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창세 3,5 참조). 사랑하는 벗 여러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악은 언제나 독이 됩니다.”(2005년 12월 8일 미사 강론)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해치는 것이 어찌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의 깊은 소망을 더 잘 아십니다. 사랑하고 행복해지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신 분께서는 그 열망을 온전히 이루어 주고자 하십니다.

첫 제자들의 경우처럼 모든 것이 흔히 소박한 초대에서 시작됩니다. 친구의 권유, 봉사 체험,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지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과의 만남이 그런 초대입니다. 오늘 저녁에 들은 이야기들도 하나의 초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

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성체 앞에서 침묵하며 그분을 만날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그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물음을 건네게 하십시오. 무엇을 바라시는지 두려워하지 말고 여쭈어보십시오. 어떤 이는 사제직이나 봉헌 생활로, 어떤 이는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자기 능력을 이웃을 섬기는 데 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실수를 너무 많이 했다거나 다시 시작하기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지난날을 아시고 지금도 함께 걷자고 초대하십니다. 앞날의 모든 일을 다 정한 뒤에야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동행하시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흔히 우리가 길을 가는 동안에 그 길을 보여 주십니다.

복음은 귀한 대목을 하나 더 들려줍니다. 두 제자는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습니다”(요한 1,39 참조). 요한 성인은 그 시각까지 기억합니다. 오후 네 시쯤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세월이 흘러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길을 함께 걸으며 깊어질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맡기고 싶은 세 번째 말, ‘우정’에 이릅니다. 우리 성소도 주님 곁에 머물고 그분께 귀 기울이며 기쁨과 근심을 나누는 법을 배울 때 자랍니다. 시간이 흘러 제자들은 그분의 사랑이 어디까지 이르는지를 알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요한 15,15)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성금요일 오후에 이루어질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13절).

여러분을 부르시는 벗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와 성찬례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우정을 가꾸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수록 우리도 그분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맺는 우정에서 이웃과의 더욱 참된 우정도 자랍니다. 이웃의 선을 진심으로 바라며 용서할 줄 알고, 특히 어려울 때에도 충실한 우정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고 하느님께 가까이 이끄는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우정에서 태어나 그 우정으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형제자매들을 만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고, 힘이 빠질 때 격려하거나 그냥 옆에 있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늘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히 모임을 이끌고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의 돌봄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니에서 고뇌의 시간에 벗들이 가까이 있기를 바라셨음을 기억하십시오(마태 26,38 참조). 여러분의 슬픔을 그들에게 털어놓고 필요한 도움을 청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만남 뒤에 안드레아는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요한 1,41) 하고 알리고는 그를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특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이들을 생각하십시오. 우정이 담긴 몸짓 하나가 한 생애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그분과의 우정이 얼마나 큰 선을 주는지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를 듣고 용기를 내어 그분을 따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에게 되풀이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베네딕토 16세, 베드로 사도직 시작 미사 강론, 2005년 4월 24일).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시며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참된 친구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 신뢰가 날마다 그분과의 우정을 깊게 해 줄 것입니다. 동정 마리아와 페루 성인들의 전구를 통하여, 날마다 이 신뢰를 키워 주시고 우리 소명을 열정으로 살아가며 언제나 당신과의 우정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청합시다.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도와주는 짧은 기도를 함께 바칩시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소서, 주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시고 제 가정에 오시고 제 공동체에 오소서. 어서 제 삶에 오소서! 주님, 어서 오소서!

교황대사관 발코니에서 전한 말씀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함께해 주시고 큰 열정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충실히 살고 마음을 열어 그분 말씀을 귀담아들으며,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하나 되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강복을 청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도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목차로 돌아가기

리마 · 11월 13일

교황대사관 발코니에서 전한 인사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인사말
교황대사관 (리마)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사도 순방의 다음 목적지로 떠나기 전에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말했군요. 여기서는 집에서도 이탈리아어를 씁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 이제 다음 방문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치클라요로 갑니다. 리마에서 누린 그 기쁨을 간직하며 여정을 이어 가고 싶습니다. 이곳 리마에서 며칠 동안 하나 되어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수많은 축복과 신앙,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는 마음을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예로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살아 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큰 희망으로 함께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맡은 일을 이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치클라요 · 11월 13일

팜파스 데 피멘텔 미사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강론
팜파스 데 피멘텔 앞 야외 광장 (치클라요)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치클라요에 돌아오니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과 다시 함께하는 것은 제게 축복입니다. 보내 주신 사랑과 도움, 특히 하느님의 도움으로 시련을 이겨 내고 있는 제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니, 제 삶과 주교 직무에 여러분이 되어 주셨고 지금도 되어 주시는 축복에 저절로 주님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저도 늘 여러분을 기도 중에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형제들을 신앙 안에서 계속 굳세게 할 은총을 주시도록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전례는 세례받은 모든 이의 시급하고 피할 수 없는 의무인 복음 선포를 바라보게 합니다. 또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나 신앙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관계없이, 성품을 받은 직무자와 평신도를 아울러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하는 제자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도록 이끕니다. 바오로 6세 성인 교황께서는 교황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에서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도 복음화에 무관심할 수 없다고 일깨우셨습니다. 복음화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자 가장 깊은 소명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지혜로 교회가 “구원의 보편 성사와 같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인류의 빛」 1항과 48항 참조). 교회는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명을 이어 갑니다. 주님께 받은 선교 명령에 순종하여(마태 28,19-20 참조), 그분의 구원 활동이 세상 끝까지 닿고 복음의 가치에 따라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일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자주 느낍니다. 21세기의 선교하는 제자로서 오늘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가정과 본당 공동체, 교구 공동체로서 어떻게 복음화의 사명을 이어 갈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바를 실천하는 삶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먼저 선포와 삶 모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또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는 힘은 자기 의지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 은총으로 청하고, 자신이 애쓰고 헌신하여 그 은총에 응답해야 합니다. 오직 그분께서만 우리 삶을 변화시켜 다시 힘을 내어 신앙을 선포하고 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례길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복음의 기쁨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열려 있는 선물입니다. 그 만남의 중심에는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생명의 빵으로, 당신의 피를 구원의 음료로 내어

주시며(마태 26,26-28 참조), 세상이 믿도록 모든 제자가 하나 되게 해 주시기를 아버지께 청하십니다(요한 17,21 참조).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성체성사와 말씀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이 두 식탁에서 양식을 얻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친교 안에서도, 이웃을 형제처럼 환대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 안에 그분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음화는 가르침을 강요하거나 효율적인 조직에 기대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만나 뵌 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복음화의 중심에는 삶의 증언과 공동체가 곁에 있어 주는 일이 놓여 있습니다. 증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포할 수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일깨우셨듯 복음화의 토대는 신앙과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아름다움"입니다(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36항). 인간의 지혜만을 내세워 설득하거나 사람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데 기대지 않습니다(1코린 2,1-5 참조). 복음을 나누면 그 기쁨이 새로워지고 커지기에 기쁨은 복음화의 일을 빚어 갑니다.

구원의 소식을 기쁘고 생기 있게 전하려면 겸손하고 세심하게 사람들을 돌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자유를 깊이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기도'를 되살리는 일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작은 가정 교회'로서 가족들이 지역 공동체, 보편 교회라는 큰 공동체, 그리고 온 사회의 삶에 적극 참여하도록 이끄는 선교의 중심임을 기억합시다.

이런 의미에서 방금 들은 요한의 둘째 서간은 복음화에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신앙을 선포하는 일은 사랑을 실천하고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들을 돕는 일과 이어집니다. 요한은 이 서간에서 형제애를 긴급히 호소합니다. 세례를 받은 이에게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곧 "처음부터" 받은 계명입니다(2요한 1,5). 이 사랑은 실천과 헌신과 존중을 동반합니다. 또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노력과 떼어 놓을 수 없이 이어져 있음을 보여 줍니다(회칙 「고귀한 인류」 30항 참조).

사랑은 진리와도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어떤 이론이나 추상적 관념이나 이상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계명에 충실히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당신 삶에 맞추도록 초대하십니다. 사랑과 진리가 어우러지려면 성덕의 그윽한 향기를 새 기쁨으로 퍼뜨리며 신앙을 실천해야 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으로 떨어지고, 사랑 없는 진리는 굳어지고 차가워짐을 기억합시다(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 3항 참조).

복음화는 오늘날 신앙을 전하는 조건과 방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신앙 전수가 거의 끊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종교적 무관심과 물질주의, 이기심이 날마다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는 새로운 도전에 용기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의 진리에 뿌리내린 정신이 조화를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벗 여러분, 선교는 즉흥적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난 것을, 곧 우리가 경험한 구원과 받은 죄의 용서와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 일을 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만난 만큼 선교사입니다.”(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120항)

저는 이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뜨겁게 하기를 주님께 빕니다. 세례받은 이들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세상에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을 이웃과 나눕시다. 가정에서 이 기쁨을 살아 내고, 일터에서 맡은 일을 잘 해내며 기쁨을 전하고, 신앙을 사적 영역에만 가두려는 유혹에 맞서 공적 생활에서도 기쁨을 드러냅시다. 이 사도직을 수행할 때 교회는 우리가 살아 있는 돌로서 하느님의 성전을 세울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음을 깨닫도록 돕습니다(1베드 2,5 참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선교는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의 제단 앞에서 다시 만나는 이 첫 미사부터, 이곳 치클라요와 온 페루에서 살아 있는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로 마음먹읍시다. 작은 마을과 고을, 도시에 복음이 넘치게 하여 모든 이에게 ‘주님의 영광’을 전합시다. 온 피조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복음화의 성모님께서 전구해 주시기를 빕니다(마르 16,15 참조). 아멘.

목차로 돌아가기

치클라요 · 11월 13일

성 오스카르 아르눌포 로메로 경당 비공개 방문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인사말
성 오스카르 아르눌포 로메로 경당 (치클라요)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치클라요 교구의 에딘손 주교님, 노동자 성 요셉 본당의 알론소 신부님, 그리고 성 오스카르 로메로 경당 공동체의 모든 분께 오후 인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하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 오스카르 로메로에게 봉헌된 이 새 경당을 세우려는 꿈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 주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중 많은 분이 여기 계십니다. 이 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신 공동체의 모든 분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수술을 받은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수많은 다른 분의 기도 덕분에 이 종이 회복하여 오늘 여러분 가운데 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당신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 교회의 일원이 되라고 초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어 그분께서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이어 가라고 맡기신 사명을 계속하도록 부르십니다. 또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를 각자의 성소에 따라 부르십니다. 주교와 사제, 봉헌 생활자와 평신도 모두 교회라는 친교에 참여하여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신앙을 나누며, 이웃과 가족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서로 나눕시다.

수많은 일정 가운데 오늘의 짧은 방문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꼭 오고 싶었습니다. 서로 가까이 있고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의 사명을 이어 가기 위해 늘 힘을 모아 함께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 방문으로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모두 일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바칩시다. 저도 겸손히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강복을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강복]

그리스도 만세!

목차로 돌아가기

치클라요 · 11월 13일

주교·사제·수도자·신학생·시노드 팀·사목 평의회와의 만남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연설
평화의 성모 성지 (치클라요)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여러분, 좋은 오후입니다! 이렇게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를 대표해 말씀해 주신 에딘손 주교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증언을 들려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치클라요 교구의 여러 본당과 페루 곳곳에서 오신 사제와 부제, 남녀 수도자와 신학생, 시노드 팀과 사목 평의회 위원, 그리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에콰도르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 듯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평화의 성모라는 이름으로 모시는 이 성지에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여러분 가운데 오니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유대를 더욱 깊이 느낍니다. 교회는 친교의 신비이며 역사 속에서 길을 걷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다양한 은사와 직무는 이 백성의 풍요로움을 잘 보여 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열의를 다해 북돋우신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에 본질적인 차원입니다. 여기에는 함께 걸으며, 귀 기울이고 식별하며, 함께 책임을 지고 사명에 참여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노달리타스를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토대는 세례에 뿌리를 둔 그리스도와의 유대입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토대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하느님의 자녀이자 가톨릭 교회의 지체가 되어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봉사나 직책, 직업이나 직무에 앞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느님의 자녀이며 그분 백성의 일원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 사명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온 공동체가 복음화의 책임을 함께 집니다. 세례는 언제나 말씀을 듣고 신앙을 경축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공동체에 참여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특히 가난하고 배제된 이들을 섬기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먼저 보여 주어야 할 증언은 구성원들이 서로 나누는 형제애입니다. 이 사랑에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가 비칩니다(요한 13,34-35; 17,22-23 참조). 친교 없이 선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친교를 이룸으로써 하느님과의 일치와 인류의 일치를 위한 표징과 도구가 됩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인류의 빛」 1항 참조). 참된 친교는 다양한 문화와 성소, 은사와 직무를 교회의 풍요로움으로 알아보고 북돋웁니다. 교회 안의 권위는 봉사하고 식별하며, 은사와 활동을

귀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평신도의 참여는 세례받은 사람의 존엄을 드러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치듯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가는 교회는 온 인류,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를 함께합니다(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1항 참조). 사회와 문화의 현실에 귀 기울이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가정과 청년, 이주민과 원주민, 가난한 이들과 동행하는 일, 정의와 평화와 공동선을 위해 힘쓰는 일은 교회의 사명에 따르는 의무입니다.

‘시노달리타스’에는 함께 걷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차원이며, 길을 걷는 하느님의 백성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으신 회중을 드러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걷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발견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집을 이루는 살아 있는 돌처럼 각자 자신의 몫을 보태도록 힘쓰는 것입니다(1베드 2,4-5 참조). 한 분이신 성령께서 여러 성소와 다양한 은사와 직무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1코린 12,1-31 참조).

그러려면 기도와 말씀 경청, 미사 참례와 성체조배, 형제적 대화와 공동체의 식별에 뿌리내린 영성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생활과 사목의 방식이 마음에 자리 잡아야 한결같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시노달리타스를 말하기는 쉽습니다. 실천하려면 공동체를 먼저 섬겨야 하는 목자들부터 모두가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구와 본당이 친교와 참여와 사명을 함께 살아가려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일부도 참여하는 사목 평의회의 역할을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평의회는 자문 기구이지만 교회에서 맡는 역할이 큽니다. 공동체의 말에 귀 기울이고 현실을 파악하며, 무엇이 먼저인지 식별하고 더 알맞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모든 공동체에 사목 평의회가 마련되고, 위원들이 필요한 양성을 충실히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벗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꾸준히 이어 가십시오. 평화의 성모님께서 여러분의 노력을 축복하시어, 하느님 나라가 이 북부 땅에 뿌리내리고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선익을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그토록 중요한 기도의 마음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주교와 사제, 봉헌 생활자와 평신도 모두가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으려면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목차로 돌아가기

치클라요 · 11월 13일

대학 관계자들과의 만남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연설
산토 토리비오 데 모그로베호 가톨릭 대학교 (치클라요)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연설

형제 주교 여러분, 존경하는 대학 관계자 여러분, 이 대학의 파트리시아 캄포스 총장님, 정계와 시민사회를 대표하시는 여러분, 교수와 연구자, 행정 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치클라요에 돌아와 산토 토리비오 데 모그로베호 가톨릭 대학교(USAT)의 이 회랑에서 여러분을 만나니 매우 기쁩니다. 먼저 생명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페루 국민을 섬기며 선교를 함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최고 책임자로 있던 동안, 권한을 맡는 일은 봉사이며 대학을 이끄는 일은 경청이고, 교육은 희망을 품고 행하는 고귀한 일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만남에서 우리 대학의 수호성인 토리비오 데 모그로베호께서 남기신 영원한 유산을 기억합니다. 저명한 법학자이자 리마 대주교였던 성인은 삶 자체로 지혜와 사랑과 정의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선포하신 신앙과 가르치신 학문은 이 교실에서 연구를 이끄는 나침반으로 남아야 합니다. 대학, 특히 가톨릭 대학교는 진리를 찾는 일이 인류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되는 살아 있는 공동체입니다(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령 「교회의 심장부」 1-2항 참조). 대학 교육의 질은 무엇보다, 그 주역인 여러분이 지혜롭고 정직하며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 힘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복잡한 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대학은 인재를 길러 내고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곳, 지성이 실용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를 충실히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진리 자체이신 분을 섬겨야 합니다. 이처럼 가톨릭 대학교는 겸손하게 대화하고 엄밀하게 탐구하며 언제나 공동선을 추구함으로써, 신앙과 이성, 종교와 과학의 만남이 열매를 맺도록 힘씁니다. 대학이 이런 자세를 지닐 때, 일부에게만 열려 있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숙련 인력을 공급하는 데 그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의와 노동자의 존엄에 무관심한 진보는 실제로 억압과 배제의 장치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대학교는 공적·정치적 영역에서 양심 없는 과학은 모두의 삶을 망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의무가 있습니다. 영혼 없는 기술 또한 삶을 참으로 개선하지 못합니다. 한편 인문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교육은 오래가는 형제적 관계를 엮어 갈 능력을 길러 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지나며 단순한 접속을 넘어 친교로 향하는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벗 여러분, 기술은 언

제나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때로 기술은 그것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이의 흔적과 이해관계와 야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맑은 정신과 깨끗한 마음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현실을 물질적 데이터로 환원하는 기술 지배의 사고방식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교수와 학생 모두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발휘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기계도 컴퓨터 프로그램도 지닐 수 없는 지혜를 언제나 찾으십시오. 그럴 때 기술의 진보는 각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 공동선을 증진하며 우리의 온전한 발전에 봉사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앞에 두고 토리비오 데 모그로베호 성인의 모범이 우리의 길을 비춥니다. 원주민이 자주 착취와 차별을 겪던 시대에 그는 복음의 열정으로 그들의 인간 존엄을 지켰습니다. 섬기는 이들의 언어를 배워 그 문화 안에서 복음을 선포했고, 그들을 위해 아메리카에서 가장 일찍 나온 원주민 언어 교리서 가운데 하나를 썼습니다. 그의 사목은 강생의 이치가 교회의 사명을 통하여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계속 열매 맺음을 보여 줍니다. 이 지역에서 성인이 펼친 큰 문화적 활동은 오늘 우리에게도 힘을 줍니다. 오늘날의 사막은 이 거룩한 목자가 말을 타고 가로질렀던 람바예케의 메마른 벌판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를 배제하는 새로운 도덕적·시민적 문맹도 사막입니다. 성인의 모범을 따르는 대학은 과학의 혁신을 활용해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사회가 입은 상처를 치유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수와 학생 여러분, 이렇게 하여 우리는 현대 사상의 핵심 쟁점 하나에 이릅니다. 인간의 한계, 곧 인간이 지닌 유한성입니다. 오늘날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의 약속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조들은 언젠가 기술이 모든 질병과 고통은 물론 노화와 죽음마저 없앨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의 진보는 인간 지성이 맺은 훌륭한 열매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민족 전체가 빈곤과 억압에 시달리는 동안 불멸을 얻고자 하는 거부들만의 특권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사이버네틱스와 생명공학으로 인간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환상이 상품처럼 팔리고 있습니다. 그 환상 앞에서 그리스도교 인간학은 우리의 한계가 제조상의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위대함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임을 일깨웁니다.

실제로 한계는 연대를 향한 부르심이며 초월을 향한 열림입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신화가 우리를 이기심에 가두고 약한 이를 내치게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는 모든 이의 필요에 마음을 기울이게 됩니다. 토리비오 데 모그로베호 성인은 고된 여정 중에 신체의 한계를 체험했습니다. 병이 들고 피로와 권력자들의 몰이해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의 교회와 사회 역사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그렇게 시련을 겪은 삶을 통해서였습니다. 오늘 그 모범을 새롭게 살아 내는 일은 우리 몫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 새로운 시대에 태어나 자란 세대입니다. 이 시대가 주는 기회를 받아들이고 신앙의 빛으로 살피십시오. 신앙은 외로움과 지루함과 고통이 가져오는 혼란과 어둠을 비추는 횃불입니다. 앙헬라가 진솔하게 들려준 이야기처럼 신앙은 언제나 희망을 줍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고 약속하는 마술처럼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살아 있는 관계는 우

리에게 힘을 주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시는 십자가에 뜻을 부여합니다. 아드리아노가 말했듯 신앙을 덕으로 산다는 것은, 지혜와 굳셈을 얻고 중요한 것을 알아보게 하는 힘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기도와 공부는 마음을 변화시켜 마침내 삶을 바꿉니다. 그렇게 진리는 삶의 선택이 되고 기도와 공부는 성찰에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삶의 어느 때든 기쁨을 찾고 발견하는 일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스만 교수님께서 뜻이 깊은 말 하나, 곧 '희생'을 들려주셨습니다. 일상에서 이 말은 포기를 뜻하지만, 그 뿌리에는 무엇보다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이 버리는 것까지도 포함하여 우리 존재 전체가 가치를 얻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 체험의 참뜻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일치하여, 우리 삶과 그 수고와 희망을 하느님의 활동에 열어 드립시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것을 언제나 선으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교수님들과 대학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지성을 통해 실천하는 사랑의 고귀한 표현임을 경이로움과 열정으로 발견하십시오. 수업과 연구에서 이 젊은이들과 동행하며 저마다에게 말과 삶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의견보다 진리를, 사익보다 정의를 앞세우는 자유로운 사상가가 되십시오. 학생들과 함께 끈기 있게 지혜를 찾아 여러분이 사는 곳, 동료들 가운데, 또 페루 사회에 그 지혜를 선물하십시오. 학문적 역량을 가꾸며 그것을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쓰십시오.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의 선익을 위해, 또 오늘날 백성의 선익을 업신여기는 투기로 깊이 상처 입은 피조물을 돌보는 데 쓰십시오.

사랑하는 벗 여러분, 다시 힘을 내어 교육에 계속 헌신하기를 권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일을 지혜의 옥좌이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에 맡겨 드립니다. 영원하신 말씀을 태중에 모셨던 성모님께서 용기와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산토 토리비오 데 모그로베호 학교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한 즉석 인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해 주시는 모든 일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 '고맙고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입니다. 저 한 사람의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은 다른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 사람과 함께 준비를 도우며 시간과 힘을 내주었습니다. 큰 희생을 감수한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러 오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섬기는 법,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삶을 바치는 법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저마다 받은 선물을 어떻게 이웃을 섬기는 데 쓸지 찾으십시오. 지난 며칠 동안 아마 그리 쉽지 않은 형편에서도 여러분은 시간과 수고를 내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그런 뜻에서 여러분은 참으로 교회의 심장에 계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봉사는 참으로 크고 중요합니다.

이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강복을 드린 뒤 사진을 몇 장 함께 찍으러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각자 자리에 계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언제나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기도)

우리 어머니 마리아께도 기도합시다.

(성모송)

(사도적 강복)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치클라요 · 11월 14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관 예식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강론
산타 마리아 주교좌성당 (치클라요)
2026년 11월 14일 토요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거행하며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주교좌성당에서 우리는 수없이 함께 신앙을 거행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치클라요 교구를 섬기는 주교로서 처음 발걸음을 내디딘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걷도록 허락하신 그 세월에 감사하며, 이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원죄 없으신 동정 마리아의 아름다운 성상에 관을 씌우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성모님의 머리에 얹을 이 관은 교황이 여러분과 온 교회와 함께 성모님께 드리는 감사와 자녀다운 사랑을 나타냅니다. 성모님은 치클라요를 살뜰히 돌보시는 어머니이자 보호자이시며,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후로 높이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독서에서 들었듯, 오늘날에도 어둠은 우리를 노리며 온통 에워싸는 듯합니다. 번져 가는 폭력이 불러오는 불안과 아직도 많은 형제자매를 짓누르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나 희망을 흐리게 하고 신뢰를 약하게 하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하느님의 선물은 우리 눈앞에 여전히 빛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이사 9,5) 이 아기는 하느님의 아들이며 마리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둠에 잠긴 채 일치와 화해를 갈망하는 인류에게 아무 힘도 없는 아기로 응답하십니다. 그분만이 사람의 삶에서 가장 깊이 숨겨진 곳까지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그 빛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내고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해치는 죄의 결과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누구인지 밝혀 주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과 서로 형제자매임을 아는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가 원죄 없으신 동정 마리아를 “우리 기쁨의 원천”이라 부르는 것은 마땅합니다. 성모님께서 천사의 알림에 “예.” 하고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루카 1,38 참조). 그 응답으로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우리 세상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시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묵시 21,5 참조), 우리를 죄의 비극에서 건져 내시며, 모든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영원한 삶을 보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치클라요 땅의 자녀 여러분. 원죄 없으신 동정 마리아를 향한 신심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빚고 신앙을 굳세게 하는 그리스도교의 뿌리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 백성을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셨고 오늘도 함께 걸으십니다. 그분의 전구와 보호를 믿으며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한 가족으로서 계속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가족은 사랑과 연민, 용서와 정의를 추구하는 일이 세상을 특징짓기를 갈망합니다. 이 가족은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서 언제

나 우리를 예수님께 이끄는 안전한 길을 가리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생명의 원천이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새 기회를 주시는 진리이십니다.

원죄 없으신 저희 어머니, 오늘 자녀다운 사랑으로 어머니께 제 눈길과 마음을 들어 올립니다. 어머니 곁에서 치클라요의 목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곳 마을과 도시를 다니는 저와 함께하셨습니다.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하셨듯이, 이곳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살피도록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에 제 생명과 베드로 후계자로서 제 직무를 맡깁니다. 이 땅을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시며 언제나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만남을 마치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마음을 모아 하늘의 어머니께 이 기도를 함께 바칩시다.

하느님의 현존으로 가득하신 거룩하신 마리아님, 지상에서 사시는 동안 아버지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저희에게 소박함의 모범을 보여 주셨으니, 저희와 계속 함께 걸어 주소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 전구하시어 저희가 성령의 말씀을 순한 마음으로 듣는 은총을 얻게 하소서. 저희가 그 은총의 도움으로 그분을 충실히 따르며 평화와 화해를 이루고, 하느님 나라와 형제자매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목차로 돌아가기

산타 크루스 데 수차밤바 · 11월 14일

산타 크루스 데 수차밤바 미사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강론
산타 크루스 데 수차밤바 야외 광장
2026년 11월 14일 토요일

산타 크루스 데 수차밤바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본당 신자들에게 전한 즉석 인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곳 산타 크루스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니 무척 기쁩니다. 이번 치클라요 교구와 온 페루 사목 방문 중에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큰 꿈만 같습니다. 산타 크루스 주민 여러분과 멀리서 오신 모든 분을 만나 대단히 기쁩니다.

주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모두를 선교하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병이나 다른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 또한 충실함과 기도로 신앙을 아름답게 증언합니다. 여러분도 교회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하느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언제나 하나 되어, 하느님의 백성,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 모두를 축하합니다. 이제 강복을 드리고 몇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곧 미사를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도적 강복)

강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미사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를 이렇게 맞아 주신 산타 크루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세”(시편 118(117),24). 저는 그동안 수없이 그랬듯이 오늘도 이 성찬례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선교사로서 느끼는 기쁨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산타 크루스에, 카하마르카주에, 페루 안데스 산맥의 아름다운 언덕과 골짜기와 비옥한 계곡에 모였습니다. 안데스에 뿌리를 두고 잉카 제국이 꽃피었으며 깊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태어난 땅입니다. 많은 분이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농촌 공동체에 가족과 농토와 일손을 두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험한 길을 지나온 여행이면서 믿음의 순례이기도 합니다. 발걸음과 수고 하나하나가 한 가지 소망을 표현합니다. 바로 여기 산타 크루스에서 ‘세뇨르 델 코스타도’(옆구리 상처의 주님) 성상으로 공경받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그 양식으로 힘을 얻어 희망 안에서 굳세어지려고 오셨습니다.

요한 사도의 셋째 서간에서 가져온 첫째 독서는 가이오스라는 그리스도인에게 한 권고의 일부를 들려줍니다(3요한 1,5-8 참조). 요한은 널리 알려진 그의 선행을 강조한 뒤, 길을 가는 선교사들을 돌보고 여정에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길을 떠나며 "이교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7절) 때문입니다. 오백 년 전 이 산들 사이에서도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들은 첫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태어나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여러 차례 식량이나 추천장도 없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과 안다밤바의 기적의 주님과 원죄 없으신 그분 어머니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토리비오 데 모그로베호에서 침보테의 순교자들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한 이들이 이곳을 찾은 뒤부터,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박수와 세상의 큰 인정에서 멀리 떨어져 조용히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왔습니다. 이처럼 안데스의 신앙은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실천하며 소박하고 진실하게 자랐습니다. 마을과 세대를 잇는 전통과 축일에 드러난 그 신앙은, 역경 앞에서도 누구도 홀로 있다고 느끼지 않는 기질과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안데스 여러 지역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기쁨은 주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시편 112(111),1 참조). 그 안에는 "가난하고 소박한 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하느님을 향한 목마름"이 비칩니다(성 바오로 6세, 교황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 48항).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복음의 기쁨」에서 대중 신심이 복음화의 강한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심 안에서 "받아들인 신앙이 한 문화에 육화하여 계속 전해집니다."(123항) 대중 신심은 땅과 정직한 노동과 가정처럼 본질적인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또한 오늘날 널리 퍼진 피상성과 소비주의를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수백 년 동안 너그러움과 헌신으로 이 산들 사이에 하느님 나라를 전하고자 애써 온 수많은 선교 사제와 남녀 수도자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또한 사제가 자주 함께할 수 없는 곳에서 적지 않은 희생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사목적으로 돌보는 교리 교사들을 위하여 감사 기도를 바칩니다. 이들은 형제자매들을 이끌어 말씀 전례를 거행하고, 성사를 받을 준비를 도우며, 병든 이를 방문하고 여러 필요를 살핍니다. 주님께서 이미 당신 곁으로 부르신 분들, 공동체 안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시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 외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곳과 온 세상에서 여러 방식으로 선교와 복음 선포에 헌신하는 수많은 평신도를 두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과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루카 18,1-8 참조). 당대 문화에서 과부는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다른 이에게 의지해야 하는 사람을 상징했습니다. 자신을 지킬 방도가 없이 억눌리던 가난한 여인은 재판관에게 끈기 있게 정의를 청했습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던 재판관은 그의 간청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마침내 정의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비유는 무엇보다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웁니다. 또한 주위의 수많은 아픈 현실에 눈을 뜨라는 초대입니다.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루카 18,3) 하고 재판관에게 호소한 과부의 청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의 입에서 여전히 아무런 응답 없이 울려 퍼집니다. 이는 교회와 사회 모두가 깊이 염려할 일입니다. 가령 이곳에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찾아 해안의 대도시로 고향을 떠

나야 하는 이들의 고통을 생각해 봅시다. 출생률 저하로 마을이 비어 가고 대를 잇기 어려운 현실, 그리고 땅에서 얻은 자원의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는 과제도 생각해 봅시다.

이처럼 많은 어려움 앞에서는 낙심과 원망, 심지어 폭력에 굴복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이 진보와 평화로 가는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비유의 과부는 이기심과 불의와 악을 이기는 길을 보여 줍니다. 잔혹함으로 맞서기보다 기도하고 인내하며, 잘못된 일은 포기하지 않고 지적하며, 필요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힘 있게 요구하고 성실히 일하면서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토루미산 꼭대기에서 그러하듯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이 보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여인이 포기하지 않은 힘은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끝내시며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8절) 하고 물으십니다. 신앙과 기도와 행동은 깊이 이어집니다. 신앙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는 이웃을 위해 헌신할 힘이 있습니다. 여기 사는 여러분은 이를 잘 아십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하느님을 믿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고, 그분의 도움으로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큰 꿈을 꾸고 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신앙 덕분입니다. 여기서 지혜와 개척 정신으로 이웃에게 존엄한 일자리를 주려고 힘쓰는 이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농민과 상인, 소규모 사업자와 수많은 이가 날마다 받은 재능을 공동체를 위해 쓰며, 일자리를 통해 온전한 인간 발전의 좋은 본보기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회칙 「고귀한 인류」 181항 참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걷는 길과 피로와 근심, 여러분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아십니다. 젊은이들의 희망을 헤아리시고 어르신들에게 지혜를 불어넣으시며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영혼이 갈 곳을 모르고 헤맬 때 그분께서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힘이 다할 때 그분께서는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낙심할 때 그분께서는 희망을 되살려 주십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망토 아래 저희를 지켜 주시고,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례가 우리 모두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헌신을 굳건하게 해 주기를 청합시다. 이곳 산타 크루스에서 깊은 신심으로 공경하는 '세뇨르 델 코스타도'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지켜 주시며, 일치와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생각과 행동을 언제나 일깨워 주시기를 빕니다.

미사를 마치며 전한 교황 성하의 즉석 말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침 강복을 드리기 전에 짤막한 묵상 하나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타 크루스에 오신다면 분명 믿음을 발견하시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의 증언에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 주시는 충실함에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날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사냐 · 11월 14일

토리비오 데 모그로베호 성인의 희년을 마치며 가톨릭 공동체와 함께한 기도 모임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연설
성 토리비오 데 모그로베호 성지 (사냐)
2026년 11월 14일 토요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니 깊은 기쁨을 느낍니다. 이 순간이 오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교구를 제게 맡기셨던 세월의 많은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간직한 기억이 있습니다. 치클라요 주교로서 직무를 시작하기 전날 밤입니다.

저는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토리비오 성인의 전구로 주님 마음에 드는 목자가 될 은총을 청했습니다.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여러분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을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특유의 기쁨과 환대로 맞아 주시고 다정한 몸짓을 보여 주시며 맛있는 음식도 정성껏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숙한 그 맛마저도 이곳에서 보낸 좋은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고향에 온 듯 다시 느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해 주신 에딘손 파르판 주교님과 증언을 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동과 감사로 귀 기울였습니다. 그 말에서 제가 늘 마음에 간직하는 이 백성의 신앙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토리비오 데 모그로베호 성인의 시성 300주년 희년을 성인께 봉헌된 이 성지에서 마칩니다. 사냐에서 성인의 일생을 한눈에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성인은 이 지역의 주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목 방문을 하시는 중에 여기서 아버지께 영을 맡기셨습니다. 목자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기꺼이 나아가는 데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 길을 실제로 걸어가고, 자신과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곳 사냐에는 빈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 그 곁에 멈추어 기도했습니다. 토리비오 성인의 유해는 리마로 옮겨지기까지 잠시 그곳에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덤을 보며 성인이 이 땅을 지나가신 뒤 남은 것을 생각합니다. 수많은 공동체의 신앙과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 외딴 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헌신입니다. 치클라요에서 지내던 때 저는 그들 가운데 많은 이를 만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특히 잉카우아시와 카냐리스에 갔던 때, 가정들이 저를 반겨 주던 때, 사제들과 그들을 돌보는 수녀님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 갔다가 여러분의 신앙 덕분에 복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돌아온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냐에는 고향을 떠나 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러 세대의 아프리카 남녀의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많은 이가 큰 고통과 굴욕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아프리카계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한 저의 사랑과 가까이 함께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전통, 조상들의 기억을 사랑으로 간직하는 모습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이 교회의 삶에 여러분이 보태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토리비오 성인께 몸소 견진성사를 받으신 마르티노 데 포레스 성인의 모범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일깨우고 성덕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도록 북돋아 주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토리비오 성인의 삶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필요한 것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땅의 많은 가정이 범죄와 갈취, 치안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압니다. 두려움 속에 사는 이들과 정직하게 일하여 얻은 것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이들, 여전히 차별을 받는 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필요한 평화를 주님께서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서로 하나 되어 돌보고, 다른 이의 고통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울 사람과 그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과 함께 걸을 가정은 언제나 있습니다.

저는 최근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주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토리비오 성인을 '먼저 복음이 자신의 삶을 빚게 하신' 목자로 기억했습니다(토리비오 데 모그로베호 성인 시성 300주년을 맞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주교들에게 보낸 서한, 2026년 9월 8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사제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우정을 돌보고 사랑과 경건으로 성사를 거행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백성 곁에 언제나 머무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모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에게 계속 신앙을 전하십시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아시고 저마다에게 아름다운 성소를 주시는 주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을 바꾸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사랑하도록 가르치게 합시다.

마치기에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날 밤의 기도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해가 흘렀고, 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얼굴을 기억합니다. 벌써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갔으며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이들을 특별히 정겹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기도 안에서 늘 기억합니다.

그날 밤 저는 목자가 되는 법을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청했습니다. 오늘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여러분은 그 간구에 하느님께서 주신 응답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애정, 그 세월 동안 제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온 교회의 돌봄을 제게 맡기셨으니, 제가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알며 같은 은총을 다시 청합니다. 지금까지 해 주셨듯이 계속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와 토리비오 데 모그로베호 성인께서 전구하시어, 여러분이 충실하게 복음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쿠스코 · 11월 15일

신자들과 대중 신심 단체 대표들과의 만남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강론
삭사이와만 국립 고고학 공원 (쿠스코)
2026년 11월 15일 주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만남을 시작하며 먼저 쿠스코의 리차르드 다니엘 알라르콘 우루티아 대주교님의 삶과 직무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주교님은 이번 방문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 뵙고 싶었던 분입니다. 모든 형제 주교와 하나 되어 그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주교님에게 의인들의 상을 내려 주시고, 그분을 잃어 슬퍼하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데서 오는 위로를 주시기를 청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를 맞는 이곳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삭사이와만은 돌 제단처럼 안데스의 하늘로 솟아 있고, 옛사람들은 신적인 것을 찾아 그곳에 올랐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하느님께서 아들딸을 찾아 내려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잘 준비된 마음에 들어오시어 용감하고 소박한 '예'를 청하십니다. 역사를 영원히 바꾼 동정 마리아의 대답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님의 어머니이신 거룩한 동정 성모님, 기뻐하소서!"라는 입당송으로 전례를 시작했습니다(『로마 미사 경본』, 복되신 동정 마리아 공통, I, 연중 시기, 1, 입당송). 방금 들은 복음은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어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 주고자 천사의 말에 "예." 하고 응답하신 기쁨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 본문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이끄시는 분으로 동정 마리아를 바라보게 합니다. 마리아 자신도 신심 깊은 가정에서 메시아를 기다리셨습니다. 부모님은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에 따라 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마음을 기울이며 그 자리에 계셨기에, 그분이 보내신 전령인 천사의 말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인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사명에 응답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자렛의 집으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지내는 날마다의 삶, 성모님이 잘 아시는 표징으로 가득한 자리에서, 성모님의 언어와 그 문화의 표징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기 알맞은 때와 방법을 찾으시어, 모두가 당신을 만나고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신비는 수천 년에 걸쳐 매우 다른 환경에서 새로 드러났지만, 전능하신 분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 작아지시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그 일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대중 신심입니다.

대중 신심 안에서 선조의 기억과 가정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거룩하신 어머니께 드리는 신뢰, 성인들에 대한 공경은 음악과 춤과 성화, 그리고 각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에 맞는 여러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종교 축제와 순례와 행렬에는 문화적 표현을 넘어서는 뜻이 있습니다. 성화와 노래와 서원과 표징 하나하나의 뒤에는 하느님을 찾는 마음들이 모여 있고, 하늘에서 응답하며 다가오는 다정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해 내려온 관습을 주님을 만나고 선포할 기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본당과 신심 단체와 교회 운동 안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 뒤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로서 파견되어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복음을 알게 된 기쁨과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살아가는 기쁨을 증언할 준비를 하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대중 신심을 “하느님 백성이 자발적으로 펼치는 선교 활동의 참된 표현”이라고 하셨습니다(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122항). 또한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 성령의 활동으로 살아 움직이는 향주적 삶의 표현”이라고 하셨습니다(같은 문헌 125항, 로마 5,5 참조).

방금 들은 복음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점은 주님 탄생 예고의 신비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공동체에서 살며 믿음이 깊어지셨습니다. 천사의 알림을 받으신 뒤에도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일상을 나누셨습니다. 하느님을 만난 뒤 사람들과 멀어지거나 홀로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 안에서 자라나 이웃과 온 인류에게 도움이 될 선물을 지키는 분이 되셨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하느님과 이웃에게 이어 줍니다.

이는 분열과 상처와 불신이 있고, 사람들이 같은 가정의 일원이며 한 아버지의 아들딸이라고 서로를 알아보기 어려운 우리 시대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런 때에 종교 전통은 신앙과 사랑의 빛 아래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자리가 되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렬에서는 생각이 다른 이들도 나란히 걸을 수 있습니다. 순례는 온 가족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전례는 공동체를 한자리에 모으고, 수호성인의 축일은 화해하고 용서를 청하여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표징은 작은 고을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더불어 살고 서로 보살피며 평화를 이루는 문화를 온 세상에 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축제를 형제애와 사랑을 배우는 자리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고 즐거워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도 돌보십시오. 그래야 기쁨이 모두의 것이 되고 모두가 하느님 앞에서 하나 되어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친교와 연대가 배어 있는 민중 전통에는 그 고유한 표징과 활동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게 전해 줄 가르침의 귀중한 보물입니다. 청년들이 활동에 참여하고 그들의 기여가 환영받고 존중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함께 일하며, 필요하면 시대에 맞게 활동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전통의 미래는 물려받은 것을 지키는 데서 더 나아가 그것을 살아 있는 방식으로 전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세대마다 유산을 물려받고, 새로운 길과 도구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유산을 더 풍요롭고 새롭게 하여 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성의 본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령 청년들과 함께 구원 역사와 성인들의 삶을 알아보고 깊이 묵상하며, 축제의 그리스도교적 뜻을 설명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경축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프란치스코, 2013년 5월 5일 신심 단체와 대중 신심의 날 미사 강론 참조). 전통을 통하여 제단 둘레에서 계속 자라며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의 살아 있는 신앙 체험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체성사는 삶의 중심이며 원천입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인류의 빛」 11항 참조).

이 길에서 마리아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십니다. 페루의 대중 신심에는 성모님께 대한 깊은 공경이 깃들어 있습니다. 바티칸 정원에서도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난해 이 백성과 함께하시며 기쁨과 슬픔을 아시고 희망을 가르치시는 마리아의 여러 호칭을 담은 모자이크를 축복했습니다.

선교사 페레스 보카네그라의 찬가 '하낙파차프'(Hanacpachap)도 이 점을 아름답게 일깨웁니다. 이 찬가는 신학적으로 깊으면서도 구체적이고 안데스의 문화와 삶에 가까운 시적 비유로 성모님을 찬미하며 그분께 간구합니다. 이 찬가와 안다우아이이야스의 아름다운 성 베드로 사도 성당, 그리고 창의롭고 세심한 복음 선포의 다른 증언은 모든 신심이 뜻을 얻는 길을 보여 줍니다. 모두를 예수님 둘레로 모으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하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의 모후이시며 쿠스코의 어머니와 보호자이신 동정 마리아께 대중 신심을 새롭게 하는 여정을 맡겨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뒤 영적으로 한마음이 되어 황금 장미를 바치며 이 일을 함께할 것입니다. 성모님께 저희를 그 마음에 품어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고통받는 이에게 힘을 주시고, 모두가 아드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걸을 은총을 얻어 주시기를 청합시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목차로 돌아가기

쿠스코 · 11월 15일

삼종기도

레오 14세 교황 성하와 함께 바치는 삼종기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 승천 주교좌대성당 앞 광장 (쿠스코)
2026년 11월 15일 주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살아 있는 신앙과 여러분의 사랑에 둘러싸여, 병들고 연로하신 형제자매들, 사제와 봉헌 생활자들과 함께할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특별한 애정과 감사로 리차드 알라르콘 대주교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성모 마리아의 사랑 가득한 전구에 맡겨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10월 30일부터 쿠스코의 새 대주교로 봉사하시는 리사르도 에스트라다 대주교님께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 아침 우리 가운데 모신 아름다운 십자고상을 바라봅니다. 쿠스코의 수호자이신 '지진의 주님', 곧 '타이타차'이십니다.

오늘 전례는 마태오 복음에서 아름다우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탈렌트의 비유입니다(마태 25,14-30 참조). 그 옛날의 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모든 것, 곧 생명과 신앙과 성소를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삶에서 키우고 이웃과 나누도록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질병으로 몸과 마음에 고통을 겪는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배척하는 문화와 물질적 생산성에 매인 세상의 눈에는 질병이 한 사람의 가치를 꺼뜨리는 불행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큰 거짓입니까! 복음의 빛으로 보면, 신앙으로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수난 신비에 결합한 질병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라고 그 사랑을 나누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뛰는 심장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영혼들의 구원과 성소와 평화를 위해 사랑으로 봉헌한 고통은 영적인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나약함에서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 사랑과 구원의 탈렌트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리차드 대주교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에 결합하여 생명을 전하시고자 당신 자신을 봉헌하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랑하는 자녀들, 스승님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제와 남녀 수도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 하느님 백성을 사목하는 직무, 가난과 정결과 순명의 복음적 권고가 지닌 아름다움이라는 탈렌트가 맡겨졌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손에 얼마나 큰 책임이 놓여 있습니까! 생명을 내어 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다 내어 쓰는 일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를 북돋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된 ‘지진의 주님’ 십자고상에 눈길을 돌립시다. 1650년 땅이 크게 울려 여러분의 선조들에게 파괴와 공포를 안겼을 때, 이 거룩한 십자고상을 거리에 모시고 나가자 여진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쿠스코 사람들과 온 페루는 타이타차께서 어떤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피난처이시며, 역사가 흔들리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닻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와 이루는 친교의 표징으로, 오늘 특별한 신심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자녀다운 사랑으로 이 예수님 십자고상에 둘러 드릴 수다리오를 봉헌합니다. 존엄과 그리스도인의 희망으로 고통을 견뎌 내는 백성에게 교황이 전하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 수다리오를 두르신 ‘지진의 주님’을 보실 때 보편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자녀의 신뢰를 품고 동정 마리아께 의탁합시다. 성모님에게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받은 은총을 땅에 묻어 두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감사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삼종기도를 바치며 특히 병자들의 건강과 사제와 봉헌 생활자들의 성화를 맡겨 드립시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진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평화 속에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푸칼파 · 11월 15일

선교사와 아마존 원주민 대표들과의 만남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연설
말레콘 푸에르토 카야오 (푸칼파)
2026년 11월 15일 주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와 벅찬 마음으로 오늘 페루 아마존 한가운데 있는 '붉은 땅' 푸칼파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저마다 다른 모습을 지닌 공동체의 따뜻한 품을 느끼며 하느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마다 다른 얼굴과 배경이 어우러져 이곳은 생생한 빛깔을 띤 만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말씀과 노래로 마음속의 아픔과 희망을 나누어 주신 데에도 감사합니다. 잊을 수 없는 푸에르토 말도나도 방문의 발자취를 남기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따라, 저도 목자로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곁에서 함께 걸으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신앙과 희망 안에서 굳세어지기를 바라며, 이 땅에 절실한 정의와 평화를 찾는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인류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조물의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모순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큰 고통을 줍니다. 이 사랑하는 페루에서 선교사와 주교로 살아온 세월은 주님을 충실히 섬기려는 교회가 인류와 함께 걸어야 한다는 말의 뜻을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지금 여기에서 그분을 닮고 따르는 길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임을 바라보니 교황 권고 「사랑하는 아마존」의 말씀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가장 가난한 이들과 원주민과 맨 마지막에 있는 이들의 권리를 위하여 싸우는 아마존을 꿈꿉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존엄이 드높여지는 곳을 꿈꿉니다."(7항)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들은 목소리는 아직 아물지 않았으며 더 깊어진 상처를 전합니다. 땅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이 함께 솟아올라, 창조의 균형을 위태롭게 하는 시장과 착취의 논리를 드러냅니다. 아마존의 숲을 지키는 일은 그곳 주민들을 돌보는 일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통합 생태론과 사회정의, 영적 생활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 10항 참조).

첫 번째 증언은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에 목숨까지 잃을 수 있음을 일깨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자기 땅을 지키던 많은 원주민 지도자가 살해되었습니다. 이 형제들의 피는 하느님께 울부짖으며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증언은 가슴 아픈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먼 거리와 당국의 방치로 많은 공동체가 보건과 교육을 누릴 권리를 빼앗기는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여성과 소녀, 청소년이 처한 취약한 상황, 폭력과 성적 학대로 겪는 참담한 아픔을 마음 깊이 느낍니다.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에 공모자들이 침묵하며,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디서든 부패와 자의적 처사는 인간의 선함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바로 그곳에서 복음은 개인과 공동체가 회개하라는 더 강한 부르심이 되어 다가오고, 치유와 위로, 잘못을 바로잡을 새로운 희망을 열어 줍니다.

사랑하는 벗 여러분, 푸칼파는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젊은 도시입니다. 도덕과 교육이 새로워지는 일도 시급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가르치고 선조들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다음 세대가 세계적인 과제에 대처하도록 준비시키는 좋은 교육을 위해 쉼 없이 힘씁시다.

이 광대한 곳을 마음껏 이용할 자원의 보고로 여기는 경향에 맞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귀 기울이는 데서 출발하여 새로운 관점을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소수의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연과 문화를 착취하는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이 낳는 해로운 결과를 지적하셨습니다(106-114항 참조). 인내와 넓은 안목으로, 사랑의 문명을 드러내는 통합 생태론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관점은 복음에 뿌리내리고, 세상 만물이 서로 긴밀히 이어져 있음을 저마다의 언어로 알아온 민족들의 지혜를 존중합니다. 여러분은 무분별한 벌목과 불법 채굴 및 석유 유출로 인한 수질 오염이 남기는 상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무분별한 천연자원 착취의 쓰라린 결과입니다. 여기에 마약 거래도 숨어들어 가난한 청년들에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헛된 환상을 심어 주며 그들을 자기 문화의 뿌리에서 떼어 놓습니다.

교회의 사회 교리는 성령의 인도로 시대의 징표를 읽도록 도우며 계속 발전하는 도구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앎과 교회의 지혜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세대에 걸쳐 얻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아마존 민족들이 견뎌 내고 다시 시작하는 힘에 감탄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당신 백성을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교회도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마존 교회 회의와 범아마존 교회 네트워크는 아마존의 얼굴을 지닌 교회를 더욱 뚜렷하게 세우고자 노력합니다. 일꾼이 적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나라에 맞먹는 넓은 대목구에 사제가 고작 스물다섯 명입니다. 외딴 곳에서 큰 충실함으로 신앙을 지켜 온 남녀 수도자와 평신도 공동체 사목 봉사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의 교회 봉사를 인정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길을 홀로 걷지 않습니다. 아마존의 어머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가정과 공동체를 돌보시고 여러분의 꿈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느님께서 아마존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푸칼파 · 11월 15일

푸칼파 미사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강론
우카얄리 지역 체육 단지 (푸칼파)
2026년 11월 15일 주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큰 기쁨으로 성찬례를 거행합니다. 신앙으로 주님의 제단 둘레에 모이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 그 삶을 뜻으로 채웁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도시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의 비유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도록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주인과 종들이 겪은 일을 들려주시며, 당신 말씀의 참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마음을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종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들은 세상에서 권력을 둘러싼 긴장과 함께 쓰이지만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새롭고 놀라운 뜻을 얻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그분께서는 이 말들을 일부러 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종이 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스스로 주인이라 여기는 이들에게 회개를 가르치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참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형제애로 부르시어 삶을 바꾸고 우리가 맺는 관계와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비유를 들어 봅시다. 주인은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 주인과 함께 기뻐하여라.”(마태 25,21.23)라고 합니다. 이 칭찬은 우리가 착하고 성실하다는 것이 우선 하느님께 받은 선하심과 신뢰에 응답하는 일임을 보여 줍니다. 하느님께서 맡기시는 일은 억압하거나 멀리하려는 표시가 아니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려는 약속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당신 재산을 맡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비유에 나오는 소중한 탈렌트가 그 선하심의 표징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탈렌트는 선행의 열매를 맺으라는 과제이자 책임이 됩니다. 이 탈렌트는 하느님의 첫 선물인 삶을 선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써서 정의를 실천하고 진리를 찾으며, 이웃과 사회를 돌보는 법을 배웁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지혜롭게 쓰며 받은 재화를 불립니다.

비유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마태 25,26)도 나옵니다. 주인은 그에게 “내가 뿌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흩어 놓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같은 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주인이신 하느님께서는 당신 종인 우리에게 선하시고 너그러우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매정하고 가혹하며 착취하는 사람으로 여겨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24절 참조).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능력을 믿는다. 네 삶을 억누르기는커녕 사랑한다. 모든 이와 기쁨을 나누고자 내 것을 너와 나누고, 열매 맺도록 네게 맡긴다. 비유의 종이 악한 것은 하느님을 이 세상 주인들과 같다고 여기기 때문

입니다. 세상의 주인들은 자주 자신을 하느님처럼 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게으름에 앞서 주인에게 “당신은 모진 분이시어서, 뿌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흩어 놓지 않은 데에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24절)라고 말하게 한 그릇된 마음을 꾸짖으십니다. 이 비유는 두려움에서 주님에 대한 신뢰로 옮아가도록 부릅니다.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스스로 그분의 노예라고 느끼는 이들을 그분이 주시는 기쁨에 함께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는 오늘에도 살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재화, 무엇보다 생명과 땅이라는 선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기 때문입니다. 둘은 깊이 이어져 있어 하나 없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과 우리가 사는 땅의 건강이 함께 가기에 생명의 존엄을 해치는 것은 땅의 아름다움도 파괴합니다. 인간의 활력과 창조 세계의 돌봄이 함께 가기에 노동을 착취하는 일은 환경을 약탈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평화와 생태계의 균형이 함께 가기에 사람들에게 가하는 폭력은 땅에 대한 폭력이며, 땅에 가하는 폭력은 사람들에게 가하는 폭력입니다.

사랑하는 벗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기에서 우리 역사의 비극 한복판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전임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과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 “아마존 환경의 파괴와 그곳 주민들의 인간 존엄에 대한 위협” 사이의 아픈 관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베네딕토 16세, 2007년 5월 10일 청년 대상 연설 2항, 프란치스코, 시노드 후속 교황 권고 「사랑하는 아마존」 12항 참조). 개선은 더디고 미미한 사이, 창조 세계를 착취하고 오염시키는 수단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 악에 맞서 주님의 탈렌트를 땅에 묻어 두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끝없는 지배욕이 낳은 고통을 돌보고 치유할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들은 복음은 온 백성에게 해방과 희망의 소식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대답합시다. “탈렌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의 선익을 위하여 쓰고 싶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이웃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나의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이 도시와 우리나라와 우리가 정의와 평화의 시대로 만들고 싶은 미래를 위하여, 선한 삶의 열매를 맺는 탈렌트를 함께 가꿉시다.”

이 마음은 미사 중에 땅과 사람의 노동이 맺은 열매를 제단에 올리는 몸짓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 주시는 식탁에서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하느님께 올려 드린 선물을 다시 세상에 널리 나눕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빛으로, 세 가지를 가꾸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탈렌트를 불리도록 초대합니다.

먼저 신앙을 함께 가꾸십시오. 하느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는 백성이 되십시오. 교회는 이렇게 인간의 말을 받아들여 하느님의 진리를 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인간에 관한 진리를 전합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복음이 주는 지혜로 일상을 바라보고 모두에게 정의로운 미래를 열어 주십시오. 이 사명은 기도에서 시작하여 성사에서 힘을 얻습니다. 온 교회의 일이기에 가정과 본당, 거리와 학교, 병원과 교도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선의를 가진 모든 이와 친교를 이루며 어디서나 주님의 탈렌트를 불리도록 힘쓰십시오.

둘째로, 우리의 고귀한 인간다움을 가꾸십시오. 이 일은 무엇보다 페루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위한 일이며, 어린이를 돌보고 어르신들을 지키며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과 연대하는 일입니다. 선을 행하려면 사랑으로 폭력에 맞서고 정직으로 부패에 맞서야 합니다. 사람이 치유되는 곳에서 땅은 꽃핍니다. 사랑의 문화는 도덕적 오염을 덜어 줍니다. 그 오염이 공동의 집인 창조 세계에 입히는 모든 상처의 원인입니다.

끝으로, 시련 앞에서도 언제나 기쁨을 가꾸십시오. 부와 권력은 마약처럼 사람을 타락시키고 마음을 속여 고뇌에 빠뜨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기쁨이 그런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참된 기쁨은 신앙에서 옵니다. 그 토대는 하느님의 은총이며, 그 은총은 우리 자신을 형제자매를 위해 내어 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온갖 시련과 도전을 겪으며, 십자가에서 우리 각자의 어려움을 짊어지고 평화를 이루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로운 사회를 함께 세웁시다. 구세주께서 희망의 빛을 주시어 이 길에 동행해 주시기를 빕시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빕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리마·카야오 · 11월 16일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의 작은 수녀회가 운영하는 환대의 집 방문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인사말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의 작은 수녀회 환대의 집 (카야오)
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교황대사관 발코니에서 전한 인사

리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모두 좋은 아침입니다!

마침 예언자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군요. 우리는 모두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기적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잠시 뒤 이곳 교황대사관을 떠나 미사를 봉헌하러 갑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함께하시고 이 자리에 와 주시며, 저를 맞이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언제나 신앙과 희망으로 가득하고, 하느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분의 현존과 가까이 계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표징이 되기를 빕니다. 특히 가장 작은 이들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인사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페루를 떠나기 전 마지막 만남 가운데 하나인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니 무척 기쁩니다. 환영 인사를 해 주신 카야오 교구의 루이스 알베르토 바레라 파체코 주교님과 이 집을 맡고 계신 에르메네힐다 원장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교님은 오늘 생신이십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신 호세 루이스 님과 마리아 델 카르멘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춤과 음악으로 따뜻이 맞이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고 기쁜 얼굴을 뵈며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는 데서 형제적 사랑을 봅니다. 그 사랑은 하느님과의 만남에서 태어나 일상의 소박한 일들에 드러나며,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 카야오의 집은 어르신들에게 '존엄의 오아시스'(교황 권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51항)이자 희망의 오아시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오아시스는 사막에서 푸른 나무와 물을 찾고 쉴 수 있는 곳입

니다. 기댈 곳 없는 이를 돕는 자선 활동도 그렇습니다. 이곳은 목마름을 달래고 힘을 북돋우며, 이곳에 살고 일하는 이들과 찾아오는 이들에게 새 힘을 줍니다. 페루 전역에 이런 집이 곳곳에 세워져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맞이하는 자선 시설의 연결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의 작은 수녀회 수녀님들께 감사드리고, 수녀회를 설립하신 예수의 데레사 호르네트 이 이바르스 성녀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성녀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 몸을 돌보십시오."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수많은 선한 일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돌봄과 보호,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일에 새롭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볼 줄 아는 능력은 인간다움의 중요한 차원"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회칙 「고귀한 인류」 114항).

안타깝게도 몸을 돌보거나 돕는 손길이 없고 영혼을 생각하는 이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습니다. 힘없고 방어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는커녕 학대하고, 생명을 사랑하기는커녕 파괴하려 합니다. 수많은 형제자매의 몸과 영혼이 방치되고 자주 조종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다움이 메마른 그곳에서 가장 약한 이들은 십자가 위의 예수님처럼 "목마르다."(요한 19,28)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목마릅니다. 사랑과 생명의 샘에서 마시고 싶습니다. 돌봄과 보호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이 복된 페루 땅에서 자선 활동을 하는 모든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와 가정, 단체와 자원봉사자도 생각합니다. 페루에는 형제애의 오아시스가 더 많아지고, 개인주의의 사막이 더 줄어들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고, 약하고 소외된 이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아픔을 알아보며, 키레네 사람처럼 그들이 십자가를 지도록 돕는 이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영혼과 몸이 결합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우리가 하는 일도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신앙에 맞게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양심성찰을 하면서 우리의 참된 보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왜 아직도 그렇게 많은 문제와 불평등이 남아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통하여 이렇게 많은 것을 받은 나라에서, 그 횃불을 다음 세대에 건네줄 사람이 왜 이다지도 적습니까? 그 비결은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우리 신앙의 뿌리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생명을 낳으려면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샘이 바로 성사와 교리 교육, 성체조배와 형제적 사랑입니다. 영혼을 치유하고 굳세게 하는 은총의 약을 잊으면 몸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셨으며 그 모범이 빠르게 국경을 넘어 전해진 마르티노 데 포레스 성인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성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소박하고 겸손한 몸짓으로 몸을 돌보고 영혼을 북돋울 줄 아셨습니다. 성인의 말로 전해지는 "저는 돌보고, 하느님께서 낫게 하십니

다.”라는 말에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오늘도 페루의 아들딸들이 성덕의 길을 걸으며, 사랑하는 페루와 세상 곳곳의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물질주의와 소비주의로 메마른 사막이 연대와 아낌없는 헌신이 자라는 푸른 초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페루가 내어 줄 수 있는 것이 많음을 저는 압니다. 헛된 세상일을 논하느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어린이와 청년, 어르신, 사회에서 가장 작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용기 있게 지킵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에게는 전해 줄 거룩함의 오랜 역사와 감사드릴 아름다운 현재, 함께 이루어 갈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복음화의 성모님께서 이 길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수녀님들의 공동체,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 가정에 주님의 강복을 청합시다.

카야오시의 열쇠를 받으며 전한 인사

이렇게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카야오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니 무척 기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가정, 아들과 딸, 어린아이들, 병든 이와 어르신에게 주님의 강복을 청합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 믿음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강복)

대단히 감사합니다. 곧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목차로 돌아가기

리마 · 11월 16일

라스팔마스 공군 기지 미사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강론
라스팔마스 공군 기지 (리마)
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강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아버지께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다시 체험했습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기쁘게 교황 곁에 모인 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당신 교회 안에 살아 계시며 교회를 모아들이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언이 온 페루에 울려 퍼지며 좋은 열매를 맺기를 빕니다!

권력의 횡포로 상처 입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새로운 힘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마태 28,18).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마태 28,19) 우리가 복음 선포에서 들은 유일하고 참되신 주님의 명령은 교회 사명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분의 일을 이어 가는 것입니다.

첫 제자들과 역사 속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선교하라는 명령을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미사에 모여 있는 것도 그 덕분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분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는 법을 날마다 배웁니다. 리마의 두 번째 대주교인 성 토리비오 데 모그로베호께서 시성되신 지 300년이 되는 해에, 우리는 그분이 사도로서 증언하여 우리 백성 안에 깊이 뿌리내린 그리스도교 신앙의 선물을 페루 국민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성인들은 성경을 참되게 해석하는 이들입니다. 성인들은 삶의 체험으로 복음의 진리를 확인했으며,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해하도록 이끌어 줍니다.”(베네딕토 16세, 2009년 8월 19일 일반 알현) 그래서 우리는 토리비오 성인의 체험에 비추어 오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갈릴래아 호숫가의 첫 제자들처럼, 그분도 예수님께 특별한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뜻밖에 찾아온 부르심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 앞날이 밝은 평신도였던 토리비오는 교회의 목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도들처럼 주님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분은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 나라를 가로질렀습니다. 원주민들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님의 현존을 찾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믿음을 이해해 가면서 성령께서 조용히 하시는 일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오랜 여정으로 풍요로워진 토리비오는 리마에 도착한 뒤 주교로서 특히 말씀의 직무에 힘을 쏟았습니다.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가 가르쳤듯이 “참된 종교”를 선포하는 유일한 길은 온유함이라는 확신으로 그 직무에 열심히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바오로 성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시종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1코린 4,1) 토리비오 성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 머무는 동안 저들도 알아듣는 말로 설교합니다. 스페인 사람들과 제 말을 이해하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풀이해 줍니다.”[1] 그분은 사제들에게 케추아어를 배우라고 역설하셨고, 많은 성직자가 여전히 업신여기던 원주민과 메스티소들이 성품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셨습니다.

토리비오는 원주민들 스스로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조상들의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도, 강요 없이 자유로운 의지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의 끊임없는 사목 방문이 이를 보여 줍니다. 그분은 신자들을 알고 돕고 필요하면 바로잡으며,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사를 베풀고자 찾아갔습니다. 쉬지 않고 견진성사를 베풀고 설교하셨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아주 작은 선물 하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방문들로 당국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반대와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교사이자 복음 선포자, 아버지이자 목자로 살아가며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착한 목자께서 내어 주시는 하느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1코린 4,4)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쓰고 곧이어 당부합니다. “때가 되기 전에 아무것도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분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1코린 4,5) 우리에게도 크나큰 내적 자유와 인내로 귀 기울이는 태도를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기다릴 수 없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토리비오 성인은 모든 이를 받아들이시면서도 가장 뒤처진 사람들을 특별히 돌보셨습니다. 성인의 전기를 쓴 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돌보는 양 떼에서 가장 세심한 보살핌을 받는 이들은 원주민이었다. 그들도 그 마음에 응답하여 마치 각자의 아버지인 듯 그를 사랑했다.”[2] 성인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의 모든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원주민을 위한 병원을 세우는 데 기부하셨습니다. 울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나를 부유하게 해 주는 가난한 이여! 오, 나에게 옷을 입혀 주는 헐벗은 이여! 오, 나를 배불리 먹여 주는 굶주린 이여!” 사목 방문을 마칠 때마다 원주민의 상황을 기록하고 부당한 일을 고발하며 시정을 요청하는 서류를 모아 국왕에게 보냈습니다. 불의를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방문을 마치며 저도 여러분이 신앙과 사랑으로 굳세어지도록 돕고 싶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마음에 간직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페루 국민은 저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든 하느님께 마음을 열면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모상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총으로 치유되고 성삼위와의 유대 안에서 드높

여진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치유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토리비오 성인은 모범을 통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거룩하게 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성인의 삶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살아 있는 지체임을 알아보게 합니다. 성인은 교회의 친교에 마음을 여시고 교회를 선교하는 친교로 체험하셨습니다. 그 친교는 교회가 삼위일체의 참된 거처라는 데서 흘러나오기에, 신앙의 일치 안에서 서로의 차이와 감수성, 다양한 생각을 소중히 여깁니다. 일치의 성사인 성체성사는 그 친교를 드러내고 굳건하게 해 줍니다. 토리비오 성인에게 성체성사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친교는 시노달리타스를 통하여 교회의 모든 차원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토리비오 성인은 여러 공의회와 시노드를 개최하여 일찍이 이를 실천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귀 기울여 듣고 대화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들였고, 가난한 이들도 진리를 찾는 데 함께하도록 하며 공동체적 식별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16세기에 제시된 지침들이 라틴아메리카 전체 공의회가 열린 19세기 말까지 이어졌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토리비오 데 모그로베호 성인은 당대에 바벨을 세우려던 사람들 가운데서 사랑의 문명을 건설하셨습니다. 동시대의 리마의 로사 성녀와 마르티노 데 포레스 성인, 프란치스코 솔라노 성인도 그 문명을 이끈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깨달읍시다. 성체성사를 거행할 때마다 그분의 약속을 되새깁시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 여정은 끝나지만 선교의 때는 계속됩니다! 미사를 마칠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도록 파견됩니다. 그러니 가서 참되신 하느님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십시오! 이 기쁜 소식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게 하십시오!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의 전구로, 부활하신 분께서 계신다는 믿음이 언제나 우리의 사명에 활력을 주기를 빕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를 모든 이에게 전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아멘.

순방을 마치며 전한 감사 인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방문을 마치며, 친교를 이루어 보낸 이 며칠 동안 주님께서 부어 주신 풍성한 선물과 은총에 얼마나 깊이 감사하는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페루, 고맙습니다!

정부와 교회의 관계자들, 순방을 준비한 이들과 협력자,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이번 사도 순방을 가능하게 한 수많은 분과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평야에서, 저곳 산지와 아마존에서, 페루 전역에서 매체를 통해 이 만남에 함께한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집에 온 듯 편안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참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제가 '주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베드로의 후계자로 섬기는 법을 조금 더 배웠습니다. 길과 광장에서 인사를 나눈 아이들의 미소, 주위로 퍼져 나가던 청년들의 기쁨, 가정의 따뜻함, 빠짐없이 우리 만남에 오신 어르신들의 다정함을 마음에 담아 갑니다. 그분들의 노래와 다채로운 춤, 향을 피우는 향기가 땅끝까지 선교하고자 하는 제 열정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러 왔으며, 늘 감탄했던 여러분의 신앙과 신심의 증언을 이제 가지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남의 기쁨으로 새로워진 우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계속 기도합시다. 동정 마리아와 하늘의 모든 성인의 전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의 페루, 하느님께서 그대를 축복하시기를! 마리아께서 망토로 그대를 덮어 주시기를!

주석

1. 「산 라사로의 원주민에 관해 대주교 각하께서 밝히시어 왕립 인디아스 평의회에 보낸 의견」, 1595년 4월 14일. C. 가르시아 이리고옌, 『성 토리비오』 제1권 97쪽에서 재인용. ↩
2. V. 로드리게스 발렌시아, 『성 토리비오 데 모그로베호, 남아메리카의 조직가이자 사도』 제2권, 3. ↩

목차로 돌아가기